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文學碩士 學位論文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周 茜 茜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指導教授 박 정 구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3년 4월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周 茜 茜

周茜茜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3년 7월

위 원 장 \_\_\_\_\_ 이 강 재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옥 주 \_\_\_\_\_ (인)

위 원 \_\_\_\_\_ 박 정 구 \_\_\_\_\_ (인)

## 국문초록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사용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의미가 다양하며 용법이 복잡하다. 한정부사 ‘只’, ‘就’, ‘才’는 의미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능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现代汉语词典》에서 한정부사 ‘就’의 첫 번째 의미 항목과 《现代汉语八百词》에서 한정부사 ‘就’와 ‘才’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은 모두 ‘只’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세 한정부사의 의미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现代汉语词典》에서의 한정부사 ‘只’와 《现代汉语八百词》에서의 한정부사 ‘就’는 모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只’와 ‘就’는 항상 서로 대체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现代汉语词典》에서의 한정부사 ‘才’와 《现代汉语八百词》에서의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모든 수량을 한정하는 문장에서 이 세 한정부사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외에, 한정부사 ‘只’, ‘就’, ‘才’에 대한 대조 연구가 많지만, 더 많은 화용적 대조 분석이 필요하고, 통사적, 의미적 대조 분석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

정밀한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중국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어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를 분석할 때 실험자가 예문을 정문으로 판단한 비율에 따라 예문의 문법성을 판단하였다. 어감 설문조사 결과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문 비율	0% ~ 50% (50% 미포함)	50% ~ 75% (50% 포함, 75% 미포함)	75% ~ 100% (75% 포함)
표기 부호	*	?	o

본고의 내용은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부분이며, 본고의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只’, ‘就’, ‘才’가 비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특성 부분이다.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각각 어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제3장은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특성 부분이다.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연속적, 비연속적 연용 특성을 살펴봄,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제4장은 ‘只’, ‘就’, ‘才’의 특성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본고는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을 통해 이들의 통사적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해석한 다음,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해석하였다. 제5장은 결론 부분이며, 본고의 연구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통사적 특성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는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就’는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지만, 주어, 술어,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才’는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 동사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를 수식할 수 없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술어,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둘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적 특성이다.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주어의 수량, 범위, 체언성 술어의 범위,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없다. 한정부사 ‘就’는 주어, 술어,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한정부사 ‘才’는 주어, 술어의 수량,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셋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화용적 특성이다. 한정부사 ‘只’는 예상 수량이 없고,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 ‘才’는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 ‘실제 정도가 예상 정도보다 많이 낮다’,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넷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연용 특성이다.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只 > 就才 > 才就 > 才只 > 只就 > 只才’ 순이다. 한

정부사 ‘只’, ‘就’, ‘才’의 전연용 능력은 ‘只>才>就’ 순이며, 후연용 능력은 ‘就>才>只’ 순이다. 또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sub>1</sub>只<sub>2</sub>>就<sub>1</sub>才<sub>2</sub>>只<sub>1</sub>只<sub>2</sub>/只<sub>1</sub>就<sub>2</sub>>就<sub>1</sub>就<sub>2</sub>>只<sub>1</sub>才<sub>2</sub>’ 순이다. ‘只’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就>才’ 순이며, ‘就’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才>就’ 순이다.

다섯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이다. ‘只’는 ‘어기사-특별부사-일반부사’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只’의 실화 정도가 강화되었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려워졌다는 원인이다. ‘就’는 동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就’의 허화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就’의 의미가 앞으로 더 허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났다는 원인이다. ‘才’는 명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才’의 의미가 ‘재능’에서 ‘드물다’로 변화하였으며, ‘수량 한정’의 의미가 생겨났다. 이것이 한정부사 ‘才’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항상 수량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원인이다.

여섯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이다.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지만,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 유일성과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무슨 성분을 수식하든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다.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 [+양태성<sub>2</sub>]이지만,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량성과 양태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한정부사 ‘就’의 양태성은 한정부사 ‘才’의 양태성보다 더 풍부하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고, 예상 수량에 ‘중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억울’, ‘타협’,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한정부사 ‘才’는 예상 수량에 ‘기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주요어 : 한정부사, 只, 就, 才, 연용, 의미기능,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

학 번 : 2019-23708

# 목차

국문초록 .....	i
<b>제1장 서론 .....</b>	<b>1</b>
1.1 문제 제기 .....	1
1.2 선행 연구 .....	5
1.2.1 ‘只’, ‘就’, ‘才’에 대한 개별 연구 .....	5
1.2.2 ‘只’, ‘就’, ‘才’에 대한 대조 연구 .....	9
1.3 연구 방법 .....	15
1.4 논의 구성 .....	17
<b>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b>	<b>18</b>
2.1 주어 수식 양상 .....	19
2.1.1 수량 미포함 주어 .....	19
2.1.2 수량 포함 주어 .....	23
2.2 술어 수식 양상 .....	30
2.2.1 체언성 술어 .....	30
2.2.1.1 수량 미포함 체언성 술어 .....	30
2.2.1.2 수량 포함 체언성 술어 .....	33
2.2.2 용언성 술어 .....	39
2.2.2.1 수량 미포함 용언성 술어 .....	39
2.2.2.2 수량 포함 용언성 술어 .....	41
2.3 부사어 수식 양상 .....	55
2.3.1 수량 미포함 부사어 .....	55
2.3.2 수량 포함 부사어 .....	58
2.4 소결 .....	63

제3장 ‘只’, ‘就’, ‘才’의 연용 특성 .....	65
3.1 연속적 연용 양상 .....	65
3.1.1 수량 미포함 주어, 술어, 부사어 .....	67
3.1.2 수량 포함 주어, 술어, 부사어 .....	71
3.2 비연속적 연용 양상 .....	93
3.2.1 수량 미포함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 .....	93
3.2.2 수량 포함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 .....	98
3.3 소결 .....	130
제4장 ‘只’, ‘就’, ‘才’의 특성 해석 .....	133
4.1 의미변화 과정 .....	133
4.2 의미기능 차이 .....	140
4.2.1 유일성 및 양태성 <sub>1</sub> .....	142
4.2.2 한량성 및 양태성 <sub>2</sub> .....	153
4.3 소결 .....	172
제5장 결론 .....	174
참고문헌 .....	177
中文摘要 .....	184



## 표 목차

<표 1>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사전적 의미 .....	3
<표 2> 어감 설문조사 실험자의 학력 정보 .....	16
<표 3> 어감 설문조사 결과의 표기 방법 .....	16
<표 4>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	28
<표 5>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	28
<표 6>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	29
<표 7>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	50
<표 8>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	52
<표 9>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	54
<표 10>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	61
<표 11>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	61
<표 12>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	62
<표 13> 전연용, 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 .....	66
<표 14> ‘只’, ‘就’, ‘才’의 연속적 연용 특성 .....	90
<표 15> ‘只’, ‘就’, ‘才’의 비연속적 연용 특성 .....	128
<표 16>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 .....	171

## 그림 목차

<그림 1>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 차이 .....	165
-------------------------------------	-----

# 제1장 서론

## 1.1 문제 제기

중국어는 내용어(content word)인 ‘실사’와 기능어(function word)인 ‘허사’로 나눌 수 있다. 허사는 실사에 비해 수량이 적지만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허사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며, 허사의 용법은 매우 복잡하다. 오랫동안 현대중국어의 부사 연구는 중국어 문법 학계의 중요한 문제였다. 그 중에서 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단지’, ‘오직’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a. 你申请了几所学校?

너는 학교를 몇 개 신청했어?

b-1. 我只申请了一所学校。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2. 我就申请了一所学校。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3. 我才申请了一所学校。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1)을 살펴보면, (1b-1)의 ‘只’자문, (1b-2)의 ‘就’자문, (1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들은 통사적으로 서로 대체될 수 있다. 이는 세 예문이 의미적으로 같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의 의미가 같다면, 왜 같은 의미의 한정부사가 세 개나 존재하는 것이며, 과연 이들 사이에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지 등의 질문을 할 수 있다. 사실 (1)의 ‘只’, ‘就’, ‘才’는 통사적으로 서로 대체될 수 있지만, 서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2) a.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只张三报名了。  
b.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就张三报名了。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장삼만 지원했다.  
c.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才张三报名了。

(2)를 살펴보면, 통사적으로 (2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2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때 ‘就’, ‘只’, ‘才’는 서로 대체될 수 없다.

‘只’, ‘就’, ‘才’ 중 일부만 서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3) a. 你今天有几门课?  
너는 오늘 수업이 몇 개 있니?  
b-1. ?我今天只两门课。  
b-2. 我今天就两门课。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b-3. 我今天才两门课。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3)을 살펴보면, (3b-2)의 ‘就’자문과 (3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b-1)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이때 ‘就’와 ‘才’만 서로 대체될 수 있다.

- (4) a. 张三只做饭, 不洗碗。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b. 张三就做饭, 不洗碗。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c. \*张三才做饭, 不洗碗。

(4)를 살펴보면, (4a)의 ‘只’자문과 (4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4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때 ‘就’와 ‘只’만 서로 대체될 수 있다.

또한 ‘只’, ‘就’, ‘才’의 명칭에 대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예를 들면, 김혜진(2011)은 범위부사 ‘只’, ‘就’, ‘才’를 ‘只류 범위부사’라고 명명하였고, 邓慧爱(2010), 王琪(2012), 张琨(2012), 李嘉璇(2016) 등 학자들은 ‘ 한정성 범위부사 ’로, 邓根芹(2005), 刘立成(2008) 등 학자들은 ‘ 한정성 부사 ’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黄河(1990), 周小兵(1991), 陈伟琳(1998), 车慧(2011), 李孟函(2015), 曹舒婷(2020) 등 학자들은 ‘ 한정부사 ’라고 불렀다. 본고는 학자들의 분류를 종합하여 ‘只’, ‘就’, ‘才’를 ‘ 한정부사 ’라고 부르기로 한다.<sup>1)</sup>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 <표 1>과 같다.

사 전	《现代汉语词典》	《现代汉语八百词》
只	①범위를 한정한다. ②只有, 仅有.	①동작과 관련된 사물을 한정한다. ②동작과 관련된 사물의 수량을 한정한다. ③동작 자체와 동작의 가능성 <sup>2)</sup> 을 한정한다. ④명사 앞에 사물의 수량을 한정한다.
就	①仅仅, 只.	①범위를 한정한다. 즉 只와 같다. ②수량이 적음을 강조한다.
才	①수량, 횟수가 적음, 능력, 정도가 낮음 등 나타낸다.	①수량이 적음, 정도가 낮음을 나타낸다. 즉 只와 같다.

<표 1>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사전적 의미

1) ‘한정’은 ‘definiteness’라는 의미가 아니라 ‘restrictive’, 즉 ‘제한적’이라는 의미이다.  
2) 动作的可能性, ‘这件工作只能慢慢地做, 不能操之过急’와 같은 것을 일컫는다.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사전은 동의어의 의미기능 차이를 밝혀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정확한 이해 및 사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위의 <표 1>을 통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의미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며 기능적으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지만, 《现代汉语词典》에서 한정부사 ‘就’의 첫 번째 의미 항목과 《现代汉语八百词》에서 한정부사 ‘就’와 ‘才’의 첫 번째 의미 항목은 모두 ‘只’와 같다고 하였는데, 이 세 한정부사의 의미기능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둘째, 《现代汉语词典》에서의 한정부사 ‘只’와 《现代汉语八百词》에서의 한정부사 ‘就’는 모두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只’와 ‘就’는 항상 서로 대체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셋째, 《现代汉语词典》에서의 한정부사 ‘才’와 《现代汉语八百词》에서의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모든 수량을 한정하는 문장에서 이 세 한정부사를 똑같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부사 ‘只’, ‘就’, ‘才’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 1.2 선행 연구

### 1.2.1 ‘只’, ‘就’, ‘才’에 대한 개별 연구

‘只’, ‘就’, ‘才’에 대한 개별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只’에 대한 개별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马志纯(1988)은 접속사 ‘只有’, 부사와 동사의 조합 ‘只+有’의 의미와 용법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부사와 동사의 조합 ‘只+有’는 부사 ‘只’ 또는 동사 ‘有’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sup>3)</sup> 예를 들며 다음과 같다.

- (5) a. 她只有一个孩子。  
그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b. \*她只一个孩子。  
c. 她有一个孩子。  
그녀는 아이가 하나 있다.

马志纯(1988)에 따르면, (5a)의 ‘她只有一个孩子’는 (5b)의 ‘她只一个孩子’라고도 할 수 있고, (5c)의 ‘她有一个孩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5c)의 ‘她有一个孩子’는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5b)의 ‘她只一个孩子’가 자연스러운지에 대해 다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邓根芹(2005)은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으로 한정부사 ‘只’에 대해

3) 马志纯(1988)은 접속사 ‘只有’가 문장에서 강조 기능만 하기 때문에 생략해도 문장이 여전히 성립되고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부사와 동사의 조합 ‘只+有’는 부사 ‘只’가 동사 ‘有’의 부사어이기 때문에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되지만 의미가 크게 변한다고 지적하였다.

① 只有最后这个方案还比较切实可行。《现代汉语八百词》

② 她只有一个孩子。

예문 ①의 접속사 ‘只有’는 생략해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지만, 예문 ②의 부사와 동사의 조합 ‘只+有’는 생략되면 의미가 크게 변하여 ‘她本人是一个孩子’와 ‘她只有一个孩子’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분석하였는데, ‘只’가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6) a. \*只马林生像个头一回逛窑子嫖客不知是客气点好还是亲热点好。  
《王朔文集·我是你爸爸》

b. ?春燕便对她娘说：“只我进去罢，你老不用。”  
《红楼梦·第六十四回》

해당 예문은 문학작품에서 인용한 것인데 시대적으로 이른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의 어감에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고, 한정부사 ‘只’가 명사와 대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徐以中(2003)은 주어 앞에 있는 ‘只<sub>1</sub>’과 주어 뒤에 있는 ‘只<sub>2</sub>’의 의미지향과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저자는 주어 앞에 있는 ‘只<sub>1</sub>’은 주어만 의미지향할 수 있고, 주어 뒤에 있는 ‘只<sub>2</sub>’는 뒤의 성분만 의미지향할 수 있으며, ‘只’가 동일한 문장에서 다른 의미지향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의미지향의 차이는 주로 화용적 전제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4)</sup> 그러나 저자는 한정부사 ‘只’가 명사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만 하였고, 논문은 주로 ‘只’의 의미지향에 대해 분석하여 ‘只’가 명사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다. 徐以中(2010)은 ‘只’와 ‘only’의 의미지향과 주관성을 대조하였다. 저자는 ‘只’는 뒤의 성분만 의미지향할 수 있는 반면, ‘only’는 앞의 성분도 뒤의 성분도 모두 의미지향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only’의 주관적 의미가 ‘只’의 주관적 의미보다 더 풍부하고 강렬하다고 제시하였다.<sup>5)</sup>

4) 徐以中(2003)은 ‘只’의 의미지향과 화용적 중의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副词“只”位于“主语前”(只<sub>1</sub>)只能指向其后的主语部分,不能指向其余成分;“只”如果位于主语后(只<sub>2</sub>),则只能后指,不能前指。“只”在同一句子中可以有不同的语义指向,这种语义指向的不同主要是由于语用前提不同造成的。

5) 徐以中(2010)은 ‘只’와 ‘only’의 의미지향과 주관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副词“只”只能后指,不能前指,“only”既可前指,又可后指。“只”字句的语序只有一种,它总是位于修饰语之前。“only”存在两种语序,即可在修饰语前,也可在修饰语后。由于特异语序更多负载说话人的主观性,因此“only”主观义要比“只”的主观义更丰富和强烈。

王丽君(2000)도 한정부사 ‘只’의 의미지향과 화용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只’가 속한 구문에 따라 여기 강조, 음절 조화, 유일성과 배타성 강화 등 화용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한정부사 ‘只’가 특수 구문에 속하는 경우 외에 ‘只’자문 자체가 어떤 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 외에, 李范烈(2009)은 ‘只’와 조합할 수 있는 구조 형식을 고찰함으로써, 한정부사 ‘只’의 의미지향에 대해 고찰하였다. 张振华(2009)는 한정부사 ‘只’의 의미지향 성분이 용언성 성분일 때의 조건과 규칙을 분석하였다.<sup>6)</sup> 刁晨(2019)은 정보초점의 관점에서 의미와 화용을 결합하여 초점 표지 ‘只’가 초점을 표시하는 기능, 방법,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한정부사 ‘只’의 의미지향을 많이 연구하였지만, ‘只’의 의미기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또한 ‘只’에 대한 화용적 분석이 부족하여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就’에 대한 개별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주기하(2014)는 부사 ‘就’의 의미기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인지언어학 이론을 가지고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가 ‘연결 기능’을 지니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가 ‘유일화 기능’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주기하(2015)는 더 나아가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는데, 문법화 이론과 인지언어학 이론을 토대로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부사 ‘就’의 문법화 과정과 의미기능, 그리고 화용적 측면의 표지어 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허설영(2015)은 기존 연구와 BBC 코퍼스 조사를 통해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에 대해 다시 고찰하였는데, 범위부사 ‘就’가 ‘유일성’ 자질을 지니고 있어 배타적인 기능을 한다고

6) 张振华(2009)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과 규칙을 제시하였다.

①“只”的语义指向为单个动词或形容词, 对行为动作或事物的状态加以限定, 但一般要与“不”对举使用, 表排除的项, 形成对立。

②“只”的语义指向后面的一般谓词性成分时, 表示对行为动作的时间、状态的限定, 或是对能愿动词或表心理活动的动词的限定, 或是指向后面整个谓词性成分, 表示对整个谓词性成分的限定。

③“只”的语义除了可以指向后面一般的谓词性成分外, 还可以指向后面的连谓短语和兼语短语, 表示限制行为动作的方式或范围。

④“只”的语义还可以指向复句形式。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주장하였다. 그 외에, 祁伟伟(2021)는 선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담화적 시각에서 부사 ‘就’의 주관적 양태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현대중국어 담화에서 ‘就’가 요청, 건의, 비난, 의문 등 화자의 감정, 태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비교적 강한 주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sup>7)</sup> 지금까지의 연구는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에 치우쳐져 있고, 한정부사 ‘就’에 대해 더 많은 통사적, 화용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才’에 대한 개별 연구를 살펴볼 것이다. 张谊生(1996)은 통사기능과 의미기능에 따라 부사 ‘才’를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 ‘才<sub>1</sub>’과 파생 의미를 나타내는 ‘才<sub>2</sub>’, ‘才<sub>3</sub>’으로 나누었다. 저자는 ‘才<sub>1</sub>’은 주로 시간, 수량, 범위 등 경향성이 있는 주관적 양태를 나타내며, 문장의 정보초점과 의미지향에 따라 다시 ‘작음’을 강조하는 ‘才<sub>A</sub>’와 ‘큼’을 강조하는 ‘才<sub>B</sub>’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고, ‘才<sub>2</sub>’는 주로 배타성의 논리적 관계를 강조하며, ‘才<sub>3</sub>’은 변명성의 어기를 강조한다고 제시하였다.<sup>8)</sup> 张谊生(1999)은 더 나아가 부사 ‘才’의 기본 의미와 파생 의미를 귀납하는 것을 바탕으로 ‘才’와 기타 부사 ‘就’, ‘刚’, ‘再’, ‘只’, ‘方才’, ‘不过’ 등을 다양한 측면에서 대조하였다.

张谊生(1996)과 비슷하게, 易正中(2009)은 부사 ‘才’의 분포 상황에 따라 ‘才’를 ‘소량’을 나타내는 ‘才<sub>1</sub>’, ‘대량’을 나타내는 ‘才<sub>2</sub>’, 유일한 조건 또는 원인에서의 결과를 나타내는 ‘才<sub>3</sub>’, ‘才……呢’와 같은 특수 구문을

7) 祁伟伟(2021)는 ‘就’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관적 양태 의미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번호	양태 의미	해석	예문
①	意愿义	说话者表达自身的意愿和需求	我就要去。
②	评价义	说话者对某人或某件事的看法和评论	就这条件, 能住人吗?
③	疑问义	说话者对某件事的真实性有所怀疑	他昨天就来了?
④	确信义	说话者进一步强调和确认某一事实	他昨天就来了!

8) 张谊生(1996)은 ‘才’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의미기능	예문
才 <sub>1</sub>	才 <sub>A</sub>	趋小强调 你看你, 比我才大三岁, 就倚老卖老起来了。
	才 <sub>B</sub>	趋大强调 我不在家, 你半夜才回来, 你干什么来着?
才 <sub>2</sub>	强调排他性的逻辑联系	因为没有地方去, 才越觉得自己的窘迫。
才 <sub>3</sub>	强调申辩性的语气	昨天那场球才精彩呢!

구성하는 ‘才’로 나누었다.<sup>9)</sup> 钟华(2009)는 부사 ‘才’에 강세를 줄 때와 강세를 주지 않을 때의 의미적, 화용적 차이점을 고찰하였는데, 강세 위치의 변화로 ‘才’의 의미기능과 화용기능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시간이나 어기를 나타내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 외에, 戴春霞(2005)는 부사 ‘才’의 주관량 문제를 탐구하였는데, ‘才’가 앞의 성분 ‘X1’을 의미지향할 때 ‘주관대량’을 나타내지만, 뒤의 성분 ‘X2’를 의미지향할 때 ‘주관소량’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사 ‘才’에 대한 전반적인 의미 분석을 많이 진행하였지만, 한정부사 ‘才’에 대한 집중적인 의미 분석이 부족하다. 또한 한정부사 ‘才’에 대한 통사적 분석도 부족하여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 1.2.2 ‘只’, ‘就’, ‘才’에 대한 대조 연구

‘只’, ‘就’, ‘才’에 대한 대조 연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只’와 ‘就’에 대한 대조 연구가 있다. 周小兵(1991)은 한정부사 ‘只’와 ‘就’에 대해 대조하였는데, 분포, 지향 및 문체 선택의 세 가지 측면에서 ‘就’의 사용이 더 많은 제한을 받고 ‘只’의 사용은 제한을 덜 받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면, ‘就’는 기본적으로 체언성 성분만 수식할 수 있지만, ‘只’는 체언성 성분과 용언성 성분을 모두 수식할 수 있다. 본고는 周小兵(1991)의 견해와는 반대로 ‘只’의 사용이 더 많은 제한을 받고 ‘就’의 사용은 제한을 덜 받는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陈伟琳(1998)은 한정부사 ‘只’와 ‘就’의 의미지향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只’와 ‘就’는 현대중국어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한정부사이며, 때로는 서로

9) 易正中(2009)은 ‘才’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분류	의미 항목	예문
才 <sub>1</sub>	表示少量	老王来天津才三天。
才 <sub>2</sub>	表示大量	老王在北京住了三个月才回家。
才 <sub>3</sub>	表示唯一条件或原因下的结果	只有努力学习,才能考上好学校。
才 <sub>4</sub>	用于特殊句式“才……呢”	你说我死心眼,你才死心眼呢。

대체될 수 있지만 대등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陈伟琳(1998)에 따르면, ‘只’와 ‘就’의 차이점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첫째, ‘只’의 의미지향은 단방향으로 뒤의 성분만 의미지향할 수 있고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 없다. ‘就’의 의미지향은 쌍방향으로 앞의 성분도 뒤의 성분도 의미지향할 수 있다. 둘째, ‘只’의 의미지향 범위는 넓지만, ‘就’의 의미지향 범위는 좁다. 본고는 陈伟琳(1998)이 제기한 ‘只’와 ‘就’의 첫 번째 차이점에는 동의하지만, 두 번째 차이점에는 상반된 견해를 갖는다. 다시 말해 ‘就’의 의미지향 범위는 넓지만, ‘只’의 의미지향 범위는 좁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刘立成(2005)은 ‘只’는 문어체와 구어체에서 모두 사용되고, 통사적 분포가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으며, 문장 유형 중 반문문과 감탄문에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就’는 구어체에서 자주 사용되며, 반문문에 주로 사용된다고 보았다. 본고는 刘立成(2005)과 달리, ‘只’가 통사적으로 더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제한은 본문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다음으로, ‘就’와 ‘才’에 대한 대조 연구가 있다. 王群(2005)은 부사 ‘就’와 ‘才’의 의미변화의 양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就’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 기타 배타)-확신 어기 강화’를 나타내며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는 ‘시간의 이름-한정 의미(소량)’를 나타내지만,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을 나타내며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늦음-한정 의미(대량, 기타 배타)-확신 어기 강화’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就’와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의 ‘한정 의미(소량)’의 차이점을 밝히지 않았다.

蒋静忠·魏红华(2010)는 초점민감성분 ‘就’와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의 차이점을 대조하였고, 陈辰(2017)은 ‘就’와 ‘才’가 의미적, 화용적으로 많은 대립성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았고 초점민감성분 ‘就’와 ‘才’의 의미 해석과 초점 관련 기능을 연구하였다. 蒋静忠·魏红华(2010)와 陈辰(2017)의 견해가 같은데, ‘才’의 의미기능은 초점이 도입한 항목 집합을

등급 서열로 만들고 초점과 그 안에 포함된 항목을 긍정하고 다른 항목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就’의 첫 번째 의미기능은 ‘才’와 같고 두 번째 의미기능은 초점을 긍정하고 다른 항목을 부정하는 것으로 ‘只’와 같다고 제시하였다.<sup>10)</sup> 그러나 蔣静忠·魏红华(2010)와 陈辰(2017)은 ‘就’와 ‘才’의 공통점, ‘就’와 ‘只’의 공통점에만 주목하고, ‘就’와 ‘才’의 차이점, ‘就’와 ‘只’의 차이점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史天冠(2016)은 문체 색채적 의미와 문법적 용법의 측면에서 부사 ‘就’와 ‘才’에 대해 대조하여 분석하였는데, ‘才’가 ‘就’보다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의미가 더 많다고 보았다.<sup>11)</sup> 본고는 史天冠(2016)이 든 예문 수가 부족하여 ‘才’가 ‘就’보다 주관적 감정과 주관적 의미가 더 많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다.

또한 金立鑫(2014)은 실험 방법을 사용하여 가장 간략한 구조에 변량 성분을 일일이 삽입하고 이에 따른 최소 차이를 통해 부사 ‘就’와 ‘才’의 주관량 의미 차이에 대해 분석하였다. 丁青(2015)은 부사 ‘就’와 ‘才’의 의미 양방향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左思民(2019)은 부사 ‘就’와 ‘才’의 강조 용법과 비강조 용법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李恩洙(2012)는 부사 ‘就’와

10) 蔣静忠·魏红华(2010)와 陈辰(2017)은 ‘就’와 ‘才’의 의미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부사	의미기능	예문
才	把焦点引出的选项集合变成等级序列, 肯定焦点及其蕴含选项, 否定其他选项。	我吃三碗饭才饱。
就	把焦点引出的选项集合变成等级序列, 肯定焦点及其蕴含选项, 否定其他选项。(才와 같다)	我吃三碗饭就饱。
	肯定焦点, 否定其他选项。(只와 같다)	这个地方就产煤, 不产别的产物。

11) 史天冠(2016)은 ‘就’와 ‘才’의 문체 색채적 의미와 문법적 용법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才”或“就”+动词+时间名词都可以表示时间的长短, 但“才”可以延续, “就”不能。
  - ② 时间名词+“才”或“就”+动词时, “才”有不满意的含义, “就”没有过多的感情色彩。
  - ③ “才”与“就”都可以与过去式连用, 但“才”表示过去刚做过某事, “就”表示只做过某事。
  - ④ “才”或“就”+不+动词都表示不做某事, 但“才”更具有撒娇的意味。
  - ⑤ 关联词“只有…才”和“只要…就”不能互换。
- 总之, “才”比“就”更多一些主观感情色彩, 更多一些主观意味。

‘才’의 여러 의미가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에 대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대조하여 분석하였다.<sup>12)</sup>

그 외에, 孟艳丽(2010)는 ‘就’, ‘才’ 및 관련 부사와 문말조사 ‘了’가 공기하는 비대칭 현상과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허설영(2013)은 부사 ‘就’, ‘才’와 어기조사 ‘了<sub>2</sub>’의 공기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王冬梅·姜炫先(2015)은 긍정문과 서술문에서 부사 ‘就’, ‘才’와 문말조사 ‘了’, ‘的’의 공기 현상을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부사 ‘就’와 ‘才’에 대해 다각도로 대조 연구를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정부사 ‘就’와 ‘才’에 대한 대조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의미적, 화용적 대조 연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예를 들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의미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의미 대조를 진행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한정부사 ‘就’와 ‘才’는 의미 차이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서로 대체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구별하고 해석하는지도 대조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외에, 한정부사 ‘就’와 ‘才’의 화용적 의미는 문맥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한정부사 ‘就’와 ‘才’의 화용기능을 분석하는지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어서 ‘只’, ‘就’, ‘才’에 대한 대조 연구들 중, ‘只’와 ‘才’에 대한 대조 연구는 매우 적다. 杨立斌(2012)과 刘芝(2012)는 부사 ‘只’와 ‘才’의 의미 지향과 통사기능에 대해 고찰하였지만, 통사적, 화용적 분석이 부족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12) 李恩洙(2012)는 ‘就’와 ‘才’의 의미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동사 ‘就’는 ‘빨리 접근하다’의 의미를 나타냈으며, 후에 부사로 두 가지 방향으로 발전한다. 첫째, ‘就’는 공간적으로 ‘어떤 목표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시간적으로 ‘어떤 사건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발전하여 시간부사가 되었다. 두 사건이 긴밀하게 발전한다는 의미는 ‘조건 관련’ 의미로 발전하고, 최종적으로 ‘주관적 평가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就’는 공간적으로 ‘어떤 목표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대상에 집중함’의 의미, ‘어떤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함’의 의미로 발전하였다.

②‘才’는 한 가지 방향으로 발전했다. 처음에 ‘才’는 ‘범위에 대한 한정’이나 ‘수량이 적음’의 의미를 나타냈는데 후에 ‘시간에 대한 한정’의 의미로 발전하여 ‘짧은 시간’을 나타내게 된다. ‘짧은 시간’의 의미는 ‘사건의 발생이 예상보다 늦음’의 의미로 발전하고 이는 다시 ‘예상보다 더 큰 조건에서 어떤 결과에 도달함’의 의미로 발전한다. 이러한 ‘조건 관련’ 의미는 최종적으로 ‘반박’의 어기를 나타내는 용법으로 발전했다.

마지막으로, ‘只’, ‘就’, ‘才’의 대조 연구는 다음과 같이 들 수 있다. 김혜진(2011)은 현대중국어 ‘只’류 범위부사의 어법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통사적, 의미적으로 ‘只’, ‘就’, ‘才’, ‘单’, ‘仅’, ‘光’이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只’, ‘就’, ‘才’가 모두 수식할 수 있는 경우는 차이점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제는 이 논문은 老舍와 王硕의 51개 작품 중의 ‘只’류 범위부사들을 연구한 것인데, 이 작품들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났기 때문에 현대의 어감과 맞지 않은 예문들이 적지 않다.

车慧(2011)도 통사적, 의미적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는데, 한정부사 ‘只’는 동작의 방식, 도구, 시점, 목적 등 용언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7) 我只用算盘来计算。

나는 주판으로만 계산한다.

본고는 车慧(2011)와 달리, (7)의 ‘只’자문은 ‘才’자문으로 바꿀 수 없지만 ‘就’자문으로는 바꿀 수 있으며,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동작의 방식, 도구, 시점, 목적 등 용언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위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한정부사 ‘只’, ‘就’, ‘才’의 대조 연구는 더 많은 화용적 대조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통사적, 의미적 대조 분석도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陈伟琳(1998), 王丽君(2000), 徐以中(2003, 2010), 邓根芹(2005), 李范烈(2009) 등 많은 학자들은 한정부사 ‘只’는 뒤의 성분만 의미지향할 수 있고 앞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王群(2005), 蒋静忠·魏红华(2010), 曹妍(2011), 李恩洙(2012), 丁青(2015) 등 많은 학자들은 한정부사 ‘就’와 ‘才’는 앞의 성분도 뒤의 성분도 모두 의

미지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8) a. 我只吃了两碗。  
나는 두 그릇만 먹었어.  
b. 我就吃了两碗。  
나는 두 그릇만 먹었어.  
c. 我才吃了两碗。  
나는 두 그릇만 먹었어.

- (9) a. \*两碗只够。  
b. 两碗就够。  
두 그릇이면 충분해.  
c. 两碗才够。  
두 그릇이야 충분해.

(8)을 살펴보면, (8a)~(8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뒤의 성분인 ‘两碗’을 의미지향하는 예문이다. 또한 (9)를 살펴보면, (9a)~(9c)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앞의 성분인 ‘两碗’을 의미지향하는 예문이다. 그러나 (8a)의 ‘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a)의 ‘只’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의미지향으로 인해 생기는 세 한정부사의 차이점은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 있으므로, 본고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을 것이다. 더 유의미한 대조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고는 연구 대상을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한정부사 ‘只’, ‘就’, ‘才’로 한정할 것이다.

또한 Chao(1968)와 朱德熙(1982)는 문장의 성분을 주어와 술어로 나누며, 주어는 화자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이며, 술어는 주제에 대한 진술이라고 보았는데, 본고는 Chao(1968)와 朱德熙(1982)의 의견에 따라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의미지향하는 뒤의 성분을 주어와 술어로 나누며, 먼저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서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부사어

를 수식하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 및 의미기능 차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 1.3 연구 방법

정밀한 분석을 위해, 본고에서는 어감 설문조사법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퍼스 분석은 언어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연구자들이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코퍼스에서 예문의 문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문들이 종종 있다. 이 때문에, 본고는 예문의 문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중국어 원어민 화자를 대상으로 어감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 과학기술, 문화 등 요인에 따라 중국어의 사용 방식과 규칙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데 코퍼스에는 일찍이 통용되던 중국어 문법 규범에 부합했지만 현재의 어감으로는 부자연스러운 예문들도 다수 존재하여 다양하고 정확한 양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반면에 어감 설문조사는 감성적 인식과 직관적 파악을 기반으로 하는 조사 방법으로, 특정 언어 표현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직관적인 반응을 수집함으로써 언어의 사용 방식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중국어의 실제 적용 상황과 사용 추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조사 방법을 사용하면 중국어 표현의 문법성을 보다 정확하게 연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어감 설문조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러 중국인 실험자에게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예문 수용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신의 어감으로 예문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하였다. 본고에는 수많은 예문이 포함되어 동일한 실험자에게 모든 설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 없으며, 한 번에 수많은 예문을 판단하게 하면 실험자가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감이 흐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는 총



4번의 어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매번 80명의 중국인 실험자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모든 실험자는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어감 설문조사 실험자의 학력 정보는 다음 <표 2>와 같다.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기타	총계
	재학	졸업	재학	졸업	재학	졸업		
①	5	18	23	14	19	1	0	80
②	6	25	26	11	8	1	3	80
③	3	30	16	12	15	1	3	80
④	6	18	26	14	15	1	0	80

<표 2> 어감 설문조사 실험자의 학력 정보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할 때, 본고는 이분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100%의 문장 중에서 이분법을 적용한다. 정문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50%보다 낮은 예문을 본고는 비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하고, 별표(\*)로 표시한다. 반대로 정문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50%보다 높은 예문을 본고는 문법적인 문장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50%의 문법적인 문장 중에서 다시 이분법을 적용한다. 정문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50%보다 높고 75%보다 낮은 예문을 본고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간주하고, 물음표(?)로 표시한다. 그리고 정문으로 판단되는 비율이 75%보다 높은 예문을 본고는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간주하고, 무표(o)로 표시한다. 그 외에, 50%와 75%는 각각 부자연스러운 문장과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판단되는 경계선이므로, 본고는 정문 비율이 50%인 예문을 부자연스러운 문장, 75%인 예문을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즉 어감 설문조사 결과의 표기 방법은 다음 <표 3>과 같다.

정문 비율	0% ~ 50% (50% 미표함)	50% ~ 75% (50% 포함, 75% 미표함)	75% ~ 100% (75% 포함)
표기 부호	*	?	o

<표 3> 어감 설문조사 결과의 표기 방법

## 1.4 논의 구성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서론 부분이며, 본고의 연구 대상, 연구 주제, 연구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제2장은 ‘只’, ‘就’, ‘才’가 비연용하는 경우<sup>13)</sup>에 갖는 특성 부분이다.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각각 어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은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특성 부분이다.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연속적, 비연속적 연용 특성을 살펴보며,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은 ‘只’, ‘就’, ‘才’의 특성에 대한 해석 부분이다. 본고는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을 통해 이들의 통사적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해석한 다음,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제5장은 결론 부분이며, 본고의 연구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

13) 비연용은 ‘非連用’으로, 연용하지 않고 단독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연구 대상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한정 부사 ‘只’, ‘就’, ‘才’이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수량이 적음’이라는 ‘소량’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예를 들면, 杨立斌(2012)과 刘芝(2012)는 ‘只’와 ‘才’의 의미지향과 통사기능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只’와 ‘才’는 모두 ‘수량이 적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王群(2005)은 ‘就’와 ‘才’의 의미변화의 양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就’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 기타 배타)-확신 어기 강화’를 나타내고,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戴春霞(2005)는 부사 ‘才’의 주관량 문제를 탐구하였는데,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주관소량’을 나타낸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수식 성분인 ‘수량 성분’은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나타내는 ‘수량이 적음’이라는 ‘소량’의 차이점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车慧(2011)에 따르면, ‘只’, ‘就’, ‘才’의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다. ‘才’의 기본 의미는 주관적으로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며, 수량을 한정하고 범위를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량을 한정하는 담화 맥락에서만 출현할 수 있고 범위를 한정하는 담화 맥락에서 출현할 수 없다. ‘只’와 ‘就’는 수량을 한정하는 담화 맥락에서도 범위를 한정하는 담화 맥락에서도 모두 출현할 수 있다. 刘立成(2008)도 한정성 부사의 문법적 의미는 수식 대상의 수량이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sup>14)</sup> 따라서 수량을 한정하는 담화 맥락인지 범위를 한정하는 담화 맥락인지에 따라 한정부사 ‘只’, ‘就’, ‘才’에 기능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량을 한정하는 담화 맥락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담화 맥락에 해당하고, 범위를 한정하는 담화 맥락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담화 맥락에 해당한다. 즉

14) 刘立成(2008). 限定性副词的语法意义是限定所修饰对象的数量或范围.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한정부사 ‘只’, ‘就’, ‘才’ 사이에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김혜진(2011)은 현대중국어 ‘只’류 범위부사의 어법 특성을 연구하였는데, 크게 주어를 수식하는 어법 특성, 술어를 수식하는 어법 특성, 부사어를 수식하는 어법 특성으로 나누었다. 저자는 수량사 유무에 따라 ‘只’, ‘就’, ‘才’가 주어, 술어를 수식하는 어법 특성에 차이가 있다고 논의하였지만, 부사어를 수식하는 어법 특성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 또한 수량사 유무에 따라 논의하는 것은 전면적이지 않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각각 어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수량 성분은 수량사 뿐만 아니라, ‘수사’, ‘수사+양사’, ‘수사+양사+명사’, ‘명사+수사+양사+명사’, ‘대명사+수사+양사+명사’ 등 수량을 나타내는 모든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 2.1 주어 수식 양상

본 절에서는 ‘只’, ‘就’, ‘才’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를 수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1.1 수량 미포함 주어

먼저 주어가 ‘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일반명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10) a. ?冬天百花凋零，只梅花不畏严寒，傲然盛开。[67.5%]<sup>15)</sup>  
b. 冬天百花凋零，就梅花不畏严寒，傲然盛开。[92.5%]  
겨울에 꽃들이 시드는데, 매화만 추위를 타지 않고  
오만하게 핀다.  
c. \*冬天百花凋零，才梅花不畏严寒，傲然盛开。[8.75%]

(10)을 살펴보면, (10a)~(10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일반명사’인 ‘梅花’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0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일반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10b)의 ‘就’자문은 ‘겨울에 꽃들이 다 시드는데 매화만 추위를 타지 않고 오만하게 핀다’는 의미이며, ‘매화가 매우 존경스럽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고유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 a. ?大家都不想报名马拉松，只张三报名了。[63.75%]  
b. 大家都不想报名马拉松，就张三报名了。[95%]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장삼만 지원했다.  
c. \*大家都不想报名马拉松，才张三报名了。[12.5%]

(인명)

---

15) 어감 설문조사에서 정문으로 판단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아래 글도 이와 같다.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 (12) a. ?今天韩国大部分地区都天气晴朗, 只首尔地区下雨。[67.5%]  
b. 今天韩国大部分地区都天气晴朗, 就首尔地区下雨。[96.25%]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데, 서울 지역만 비가 온다.  
c. \*今天韩国大部分地区都天气晴朗, 才首尔地区下雨。[3.75%]  
(지명)

(11)을 살펴보면, (11a)~(11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고유명사’인 인명 ‘张三’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또한 (12)를 살펴보면, (12a)~(12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고유명사’인 지명 ‘首尔地区’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b), (12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a), (12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1c), (12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11b)의 ‘就’자문은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장삼만 지원했다’는 의미이며, ‘장삼이 매우 용감하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한다. (12b)의 ‘就’자문은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맑은데 서울 지역만 비가 온다’는 의미이며, ‘서울 지역의 날씨가 좋지 않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한정부사 ‘只’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郑根芹(2005)은 ‘只’ 뒤에 체언성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只+고유명사’의 예를 들었다.

- (13) \*只马林生像个头一回逛窑子的嫖客不知是客气点好还是亲热点好。  
《王朔文集·我是你爸爸》[48.75%]

邓根芹(2005)이 든 (13)은 90년대 문학작품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는 수용도가 높지 않고,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다음으로, 주어가 ‘대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14) a.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只我没及格。 [66.25%]  
b.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就我没及格。 [93.75%]  
우리 반 학우들은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했는데,  
나만 합격하지 못했다.  
c.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才我没及格。 [6.25%]

(14)를 살펴보면, (14a)~(14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대명사’인 ‘我’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4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4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4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14b)의 ‘就’자문은 ‘우리 반 학우들은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했는데 나만 합격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며, 화자가 매우 슬프고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한다.

그러나 많은 선행 연구에서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邓根芹(2005)은 ‘只’ 뒤에 체언성 성분이 나타나는 경우를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只+대명사’의 예를 들었다.

(15) ?春燕便对她娘说：“只我进去罢，你老不用。” [52.5%]

《红楼梦·第六十四回》

邓根芹(2005)이 든 (15)는 청대 문학작품에서 인용한 것으로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고,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 2.1.2 수량 포함 주어

김혜진(2011)에 따르면, ‘才’는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 혹은 상태 등을 나타내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문장의 주어는 이미 정해진 것으로 주관적인 판단이 이입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才’가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 주어가 정해진 것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며, 주어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본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어가 ‘수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16) a.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只五百，根本不够花。 [57.5%]

b.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就五百，根本不够花。 [9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c.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才五百，根本不够花。 [92.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16)을 살펴보면, (16a)~(16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인 ‘五百’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6b)의 ‘就’자문과 (16c)의 ‘才’자문



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6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16b)의 ‘就’자문과 (16c)의 ‘才’자문은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16b)의 ‘就’자문은 ‘받은 용돈의 실제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16c)의 ‘才’자문은 ‘받은 용돈의 실제 금액이 예상 금액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음으로, 주어가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17) a. ?这学期选了五门课, 只一门得了A+。 [73.75%]

b. 这学期选了五门课, 就一门得了A+。 [9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c. 这学期选了五门课, 才一门得了A+。 [81.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17)을 살펴보면, (17a)~(17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양사’인 ‘一门’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7b)의 ‘就’자문과 (17c)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7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17b)의 ‘就’자문과 (17c)의 ‘才’자문은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

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는 의미이며, (17b)의 ‘就’자문은 ‘A+를 받은 과목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17c)의 ‘才’자문은 ‘A+를 받은 과목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어서 주어가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8) a.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只一个学生考满分。[72.5%]

b.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就一个学生考满分。[95%]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c.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才一个学生考满分。[90%]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18)을 살펴보면, (18a)~(18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学生’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8b)의 ‘就’자문과 (18c)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8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18b)의 ‘就’자문과 (18c)의 ‘才’자문은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18b)의 ‘就’자문은 ‘만점을 받은 학생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18c)의 ‘才’자문은 ‘만점을 받은 학생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네 번째로, 주어가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9) a. ?室友们都睡了, 只张三一个人还在学习。 [70%]  
b. 室友们都睡了, 就张三一个人还在学习。 [97.5%]  
    룸메이트들은 다 자는데, 장삼 혼자만 공부하고 있다.  
c. \*室友们都睡了, 才张三一个人还在学习。 [18.75%]

(19)를 살펴보면, (19a)~(19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9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9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9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이것은 ‘只’, ‘就’, ‘才’의 의미지향과 관련이 있다.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은 ‘명사’인 ‘张三’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人’으로 구성된 동격구조이다.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동격구조 ‘张三一个人’을 수식할 때 의미지향은 ‘수사+양사+명사’인 ‘一个人’이 아니라 ‘명사’인 ‘张三’이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只’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도 수식하기 어렵다. 한정부사 ‘才’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도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19b)의 ‘就’자문은 ‘룸메이트들은 다 자는데 장삼 혼자만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장삼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주어가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20) a. ?爸妈都去上班了, 只我一个人在家. [66.25%]  
 b. 爸妈都去上班了, 就我一个人在家. [97.5%]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나 혼자만 집에 있다.  
 c. \*爸妈都去上班了, 才我一个人在家. [27.5%]

(20)을 살펴보면, (20a)~(20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20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0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20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이것도 ‘只’, ‘就’, ‘才’의 의미지향과 관련이 있다.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은 ‘대명사’인 ‘我’와 ‘수사+양사+명사’인 ‘一个人’으로 구성된 동격구조이다.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동격구조 ‘我一个人’을 수식할 때 의미지향은 ‘수사+양사+명사’인 ‘一个人’이 아니라 ‘대명사’인 ‘我’이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도 수식하기 어렵다.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도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보면, (20b)의 ‘就’자문은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나 혼자만 집에 있다’는 의미이며, 집에 아무도 없어서 화자가 좀 외롭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4>, <표 5>, <표 6>과 같다.

주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일반명사	?	○	*
		한정부사+고유명사	?	○	*
	한정부사+대명사		?	○	*
수량 ○	한정부사+수사		?	○	○
	한정부사+수사+양사		?	○	○
	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표 4>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표 4>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를 수식할 수 있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주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부사 +명사	한정부사+일반명사	?	범위 한정	*
		한정부사+교유명사	?	범위 한정	*
	한정부사+대명사		?	범위 한정	*
수량 ○	한정부사+수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수사+양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명사+수사+양사+명사		?	범위 한정	*
	한정부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범위 한정	*

<표 5>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표 5>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주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주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주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부사+ 명사	한정부사+ 일반명사	?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한정부사+ 고유명사	?		*
	한정부사+대명사		?		*
수량 O	한정부사+수사		?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수사+양사		?		
	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		?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
	한정부사+대명사+수사 +양사+명사		?	내포한다	*

<표 6>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표 6>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둘째, 한정부사 ‘才’는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 2.2 술어 수식 양상

본 절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체언성 술어와 용언성 술어를 수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1 체언성 술어

본 절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체언성 술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1.1 수량 미포함 체언성 술어

먼저 술어가 ‘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의 경우를 보자.

- (21) a. ?拿到奖学金的只张三。 [55%]  
b. 拿到奖学金的就张三。 [93.75%]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삼밖에 없다.  
c. \*拿到奖学金的才张三。 [26.25%]

(21)을 살펴보면, (21a)~(21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명사’인 ‘张三’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1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1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21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21b)의 ‘就’자문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삼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장삼이 매우 대단하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한다.

‘只/就/才+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의 경우를 보자. 崔立成(2008)에 따르면, ‘才’ 뒤에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성 성분(주로 인명 또는 기관명)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2) a. 我才副教授，人家都博导了。[92.5%]

나는 부교수일 뿐인데, 그 사람은 박사 지도교수가 되었다.

b. 他才预备党员，人家都党委书记了。[90%]

그는 예비 당원일 뿐인데, 그 사람은 당위원회 서기가 되었다.

위의 ‘才’자문을 ‘就’자문, ‘只’자문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23) a. ?我就副教授，人家都博导了。[53.75%]

b. ?他就预备党员，人家都党委书记了。[55%]

(24) a. \*我只副教授，人家都博导了。[35%]

b. \*他只预备党员，人家都党委书记了。[36.25%]

(22)~(24)를 살펴보면, (22)~(24)는 각각 한정부사 ‘才’, ‘就’, ‘只’가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인 ‘副教授’, ‘预备党员’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2a), (22b)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3a), (23b)의 ‘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24a), (24b)의 ‘只’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才’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就’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只’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또한 화용적으로 보면, (22a), (22b)의 ‘才’자문은 ‘직위의 실제 계급이 예상 계급보다 많이 낮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앞의 낮은 직위와 뒤의 높은 직위는 대조 초점을 이루는데, 실제로 ‘양(量)’의 주관적 대조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只’, ‘就’, ‘才’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의미적으로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才’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就’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只’는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就’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데, 왜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을까? 본고는 이를 한정부사 ‘就’가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는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미적으로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때문이라 본다. 따라서 ‘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다음으로, 술어가 ‘대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25) a. ?不知道这件事的只我。 [53.75%]
- b. 不知道这件事的就我。 [91.25%]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 c. \*不知道这件事的才我。 [25%]

(25)를 살펴보면, (25a)~(25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대명사’인 ‘我’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5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5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25c)의 ‘才’자

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25b)의 ‘就’자문은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화자가 좀 서운하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한다.

### 2.2.1.2 수량 포함 체언성 술어

먼저 술어가 ‘수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26) a. 这支钢笔多少钱?

이 만년필은 얼마야?

b-1. \*这支钢笔只二十。[38.75%]

b-2. 这支钢笔就二十。[88.75%]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b-3. 这支钢笔才二十。[90%]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26)을 살펴보면, (26b-1)~(26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인 ‘二十’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6b-2)의 ‘就’자문과 (26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6b-1)의 ‘只’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26b-2)의 ‘就’자문과 (26b-3)의 ‘才’자문은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다’라는 의미이며, (26b-2)의 ‘就’자문은 ‘만년필의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좀 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26b-3)의 ‘才’자문은 ‘만년필의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많이 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刘立成(2008)에 따르면, ‘才’ 뒤에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성 성분(그 자체로 순서 의미가 있는 시간명사와 문맥에서 임시로 순서 의미를 얻은 기타 명사성 성분도 포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의 경우를 보자.

(27) a. 张三今年多大了?

장삼은 올해 몇 살이야?

b-1. ?张三今年只十八。[52.5%]

b-2. ?张三今年就十八。[67.5%]

b-3. 张三今年才十八。[90%]

장삼은 올해 겨우 18세야.

(27)을 살펴보면, (27b-1)~(27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인 ‘十八’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7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7b-1)의 ‘只’자문과 (27b-2)의 ‘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才’는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와 ‘就’는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또한 한정부사 ‘只’, ‘就’, ‘才’는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의미적으로 술어의 시간량을 한정하고 ‘시간이 이름’이라는 ‘주관소량’을 나타낸다. 따라서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才’는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시간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와 ‘就’는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27b-3)의 ‘才’자문은 ‘장삼은 올해 겨우 18세이다’라는 의미이며, ‘장삼의 실제 나이가 예상 나이보다 많이 어리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就’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는데, 왜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을까? 이는 한정부사 ‘就’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는 ‘시간이 이름’이라는 ‘주관소량’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就’는 시간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이 늦음’이라는 ‘주관대량’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我到学校的时候就十二点了’는 ‘내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2시였다’는 의미이며, ‘학교에 도착한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좀 늦었다’는 주관적 판단을 내포한다. 따라서 ‘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다음으로, 술어가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28) a. 你要写的报告书有几个?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몇 개야?

b-1. \*我要写的报告书只两个。[48.75%]

b-2. 我要写的报告书就两个。[93.75%]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야.

b-3. 我要写的报告书才两个。[92.5%]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야.

(28)을 살펴보면, (28b-1)~(28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양사’인 ‘两个’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8b-2)의 ‘就’자문과 (28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8b-1)의 ‘只’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28b-2)의 ‘就’자문과 (28b-3)의 ‘才’자문은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다’라는 의미이며, (28b-2)의 ‘就’자문은 ‘써야 할 보고서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28b-3)의 ‘才’자문은 ‘써야 할 보고서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어서 술어가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29) a. 你今天有几门课？

너는 오늘 수업이 몇 개 있니?

b-1. ?我今天只两门课。[70%]

b-2. 我今天就两门课。[9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b-3. 我今天才两门课。[88.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29)를 살펴보면, (29b-1)~(29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수사+양사+명사’인 ‘两门课’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29b-2)의 ‘就’자문과 (29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29b-1)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29b-2)의 ‘就’자문과 (29b-3)의 ‘才’자문은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다’는 의미이며, (29b-2)의 ‘就’자문은 ‘오늘 수업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29b-3)의 ‘才’자문은 ‘오늘 수업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그러나 马志纯(1988)은 부사와 동사의 조합 ‘只+有’는 부사 ‘只’ 또는 동사 ‘有’로 대체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只有/只/有+수사+양사+명사’의 예를 들었다.

- (30) a. 她只有一个孩子。[93.75%]  
 그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다.  
 b. \*她只一个孩子。[37.5%]  
 c. 她有一个孩子。[96.25%]  
 그녀는 아이가 하나 있다.

马志纯(1988)이 든 (30b)는 현대중국어의 어감으로 수용도가 높지 않고,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네 번째로, 술어가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31) a. 报名游泳比赛的有几个人?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b-1. ?报名游泳比赛的只张三一个人。[72.5%]  
 b-2. 报名游泳比赛的就张三一个人。[95%]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야.  
 b-3. 报名游泳比赛的才张三一个人。[80%]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야.

(31)을 살펴보면, (31b-1)~(31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1b-2)의 ‘就’자문과 (31b-3)의 ‘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1b-1)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31b-2)의 ‘就’자문과 (31b-3)의 ‘才’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이며, (31b-2)의 ‘就’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31b-3)의 ‘才’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술어가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32) a. 这次考满分的有几个人？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b-1. ?这次考满分的只我一个人。[71.25%]

b-2. 这次考满分的就我一个人。[96.25%]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저 한 명뿐이야.

b-3. 这次考满分的才我一个人。[76.25%]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저 한 명뿐이야.

(32)를 살펴보면, (32b-1)~(32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2b-2)의 ‘就’자문과 (32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2b-1)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就’와 ‘才’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32b-2)의 ‘就’자문과 (32b-3)의 ‘才’자문은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저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이며, (32b-2)의 ‘就’자문은 ‘만점을 받은 사람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32b-3)의 ‘才’자문은 ‘만점을 받은 사람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 2.2.2 용언성 술어

본 절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용언성 술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용언성 술어를 수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2.2.1 수량 미포함 용언성 술어

먼저 술어가 ‘동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33) a. 张三只做饭，不洗碗。 [97.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b. 张三就做饭，不洗碗。 [78.7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c. \*张三才做饭，不洗碗。 [28.75%]

(33)을 살펴보면, (33a)~(33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인 ‘做饭’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3a)의 ‘只’자문과 (33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3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33b)의 ‘就’자문과 (33a)의 ‘只’자문은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33b)의 ‘就’자문은 화자가 장삼에게 좀 불만이 있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만, (33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sup>16)</sup>

다음으로, 술어가 ‘형용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34) a. 他只好色，不花心。 [9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b. 他就好色，不花心。 [87.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c. \*他才好色，不花心。 [36.25%]

16) 실제 담화에서 화자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성분에 강제나 어기를 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문장은 자연스럽게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갖게 되므로, 본고는 강제나 어기를 주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 경우만 고려하고자 한다.

(34)를 살펴보면, (34a)~(34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인 ‘好色’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4a)의 ‘只’자문과 (34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4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34b)의 ‘就’자문과 (34a)의 ‘只’자문은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34b)의 ‘就’자문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 별것 아니고 바람만을 피우지 않으면 된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34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 2.2.2.2 수량 포함 용언성 술어

먼저 동사가 포함되는 술어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술어가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35) a. 这本书卖了多少钱?

이 책은 얼마에 팔았어?

b-1. 这本书只卖了二十。[96.2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2. 这本书就卖了二十。[88.7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3. 这本书才卖了二十。[9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35)를 살펴보면, (35b-1)~(35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수사’인 ‘卖二十’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리고 (35b-1)의 ‘只’자문, (35b-2)의 ‘就’자문과 (35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35b-1)의 ‘只’자문은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다’는 의미이며, 예상 가격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35b-2)의 ‘就’자문은 ‘책을 판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좀 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35b-3)의 ‘才’자문은 ‘책을 판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많이 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두 번째로, 술어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36) a. 你这次去釜山玩了几天？

너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며칠 놀았어?

b-1. 我这次去釜山只玩了三天。 [97.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b-2. 我这次去釜山就玩了三天。 [9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b-3. 我这次去釜山才玩了三天。 [92.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36)을 살펴보면, (36b-1)~(36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수사+양사’인 ‘玩三天’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리고 (36b-1)의 ‘只’자문, (36b-2)의 ‘就’자문과 (36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

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36b-1)의 ‘只’자문은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다’는 의미이며, 예상 시간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36b-2)의 ‘就’자문은 ‘부산에 가서 논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좀 짧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36b-3)의 ‘才’자문은 ‘부산에 가서 논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짧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세 번째로, 술어가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37) a. 你申请了几所学校？

너는 학교를 몇 개 신청했어?

b-1. 我只申请了一所学校。 [97.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2. 我就申请了一所学校。 [9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3. 我才申请了一所学校。 [80%]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37)을 살펴보면, (37b-1)~(37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수사+양사+명사’인 ‘申请一所学校’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리고 (37b-1)의 ‘只’자문, (37b-2)의 ‘就’자문과 (37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37b-1)의 ‘只’자문은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다’는 의미이며, 화자가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37b-2)의 ‘就’자문은 ‘신청한 학교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37b-3)의 ‘才’자문은 ‘신청한 학교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네 번째로, 술어가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38) a. 没毕业的还剩几个人？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毕业的只剩张三一个人了。[97.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b-2. 没毕业的就剩张三一个人了。[96.2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b-3. \*没毕业的才剩张三一个人了。[46.25%]

(38)을 살펴보면, (38b-1)~(38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剩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8b-1)의 ‘只’자문과 (38b-2)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8b-3)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38b-2)의 ‘就’자문과 (38b-1)의 ‘只’자문은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다’는 의미이며, (38b-2)의 ‘就’자문은 화자가 장삼을 불쌍히 여겨 좀 안타깝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만, (38b-1)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로, 술어가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39) a. 没交报告书的还差几个人？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交报告书的只差我一个人。[97.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b-2. 没交报告书的就差我一个人。[96.2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b-3. ?没交报告书的才差我一个人。[51.25%]

(39)를 살펴보면, (39b-1)~(39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差我一个人’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39b-1)의 ‘只’자문과 (39b-2)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39b-3)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39b-2)의 ‘就’자문과 (39b-1)의 ‘只’자문은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다’는 의미이며, (39b-2)의 ‘就’자문은 화자가 스트레스를 받고 좀 부끄럽다는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만, (39b-1)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형용사가 포함되는 술어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술어가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40) a. 听说超市促销，牛肉便宜了多少钱？

슈퍼마켓에서 할인한다고 들었는데, 소고기가 얼마 싸졌어?

b-1. 牛肉只便宜了十五。[9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2. 牛肉就便宜了十五。[93.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3. 牛肉才便宜了十五。[88.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40)을 살펴보면, (40b-1)~(40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수사’인 ‘便宜十五’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리고 (40b-1)의 ‘只’자문, (40b-2)의 ‘就’자문과 (40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40b-1)의 ‘只’자문은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다’는 의미이며, 예상 가격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40b-2)의 ‘就’자문은 ‘소고기가 싸진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좀 비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40b-3)의 ‘才’자문은 ‘소고기가 싸진 실제 가격이 예상 가격보다 많이 비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두 번째로, 술어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41) a. 比起上次的考试分数，你这次的考试分数高了多少分？

지난번 시험 점수에 비해 이번 시험 점수가 몇 점이나 올랐어?

b-1. 我这次的考试分数只高了七分。[95%]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b-2. 我这次的考试分数就高了七分。[90%]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b-3. 我这次的考试分数才高了七分。[88.75%]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41)을 살펴보면, (41b-1)~(41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수사+양사’인 ‘高七分’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리고 (41b-1)의 ‘只’자문, (41b-2)의 ‘就’자문과 (41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41b-1)의 ‘只’자문은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다’는 의미이며, 예상 점수가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41b-2)의 ‘就’자문은 ‘실제 오른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좀 낮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41b-3)의 ‘才’자문은 ‘실제 오른 점수가 예상 점수보다 많이 낮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세 번째로, 술어가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42) a. 你来得有点晚。

네가 좀 늦게 왔어.

b-1. 我只晚了一个小时。[9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2. 我就晚了一个小时。[91.2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3. 我才晚了一个小时。[9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42)를 살펴보면, (42b-1)~(42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수사+양사+명사’인 ‘晚一个小时’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42b-1)의 ‘只’자문, (42b-2)의 ‘就’자문과 (42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42b-1)의 ‘只’자문은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다’는 의미이며, 예상 시간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42b-2)의 ‘就’자문은 ‘실제 늦은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좀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42b-3)의 ‘才’자문은 ‘실제 늦은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네 번째로, 술어가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43) a. 听说多了几个申请旁听课的人。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났다고 들었어.

b-1. 申请旁听课的只多了张三一个人。[96.25%]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2. 申请旁听课的就多了张三一个人。[92.5%]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3. 申请旁听课的才多了张三一个人。[90%]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43)을 살펴보면, (43b-1)~(43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多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리고 (43b-1)의 ‘只’자문, (43b-2)의 ‘就’자문과 (43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보면, (43b-1)의 ‘只’자문은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다’라는 의미이며, 화자가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43b-2)의 ‘就’자문은 ‘실제 늘어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43b-3)의 ‘才’자문은 ‘실제 늘어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섯 번째로, 술어가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44) a. 听说少了几个报名补习班的人。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들었다.

b-1. 报名补习班的只少了我一个人。[9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2. 报名补习班的就少了我一个人。[96.2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3. 报名补习班的才少了我一个人。[8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44)를 살펴보면, (44b-1)~(44b-3)은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少我一个人’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리고 (44b-1)의 ‘只’자문, (44b-2)의 ‘就’자문과 (44b-3)의 ‘才’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화용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적으로 보면, (44b-1)의 ‘只’자문은 ‘학원에 등록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다’라는 의미이며, 화자가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44b-2)의 ‘就’자문은 ‘실제 줄어든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44b-3)의 ‘才’자문은 ‘실제 줄어든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7>, <표 8>, <표 9>와 같다.

술어		구조		只	就	才
체언성	수량 x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명사	?	○	*
			한정부사+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	?	○
		한정부사+대명사		?	○	*
	수량 ○	한정부사+수사	한정부사+수사	*	○	○
			한정부사+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	?	?	○
		한정부사+수사+양사		*	○	○
		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용언성	수량 x	한정부사+동사		○	○
한정부사+형용사				○	○	*
수량 ○		한정부사+동사+수사		○	○	○
		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		○	○	○
		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형용사+수사		○	○	○
		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		○	○	○
		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표 7>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표 7>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체언성 술어도 용언성 술어도 수식할 수 있지만,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동사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술어		구조	只	就	才	
체 언 성	수 량 x	한정 부사+ 명사	한정부사+명사	?	범위 한정	*
			한정부사+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	?	정도량 한정
		한정부사+대명사	?	범위 한정	*	
	수 량 o	한정 부사+ 수사	한정부사+수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	?	?	시간량 한정
		한정부사+수사+양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명사+수사+양사+ 명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대명사+수사+양사 +명사	?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용 언 성	수 량 x	한정부사+동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형용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수 량 o	한정부사+동사+수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 +명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동사+명사+수사 +양사+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동사+대명사+수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양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수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명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한정부사+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수량 한정

<표 8>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표 8>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범위,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없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술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술어	구조		只	就	才
체언성	수량 x 부사 + 명사	한정부사 + 명사	?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한정부사 + 계급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	*	?	‘실제 정도가 예상 정도보다 많이 낮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한정부사+대명사	?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수량 ○	한정부사 +수사	한정부사 +수사	*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수사	?	?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수사 +양사	*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수사 +양사+명사	?			
	한정부사+명사 +수사+양사+명사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			
	용언성	수량 x	한정부사+동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한정부사+형용사			*		
수량 ○		한정부사+동사 +수사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한정부사+동사 +수사+양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동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동사 +명사+수사+양사 +명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한정부사+동사 +대명사+수사 +양사+명사			?
	한정부사+형용사 +수사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형용사 +수사+양사			
	한정부사+형용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명사+수사+양사 +명사			
	한정부사+형용사 +대명사+수사 +양사+명사			

<표 9>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표 9>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으며,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 ‘실제 정도가 예상 정도보다 많이 낮다’,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른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 2.3 부사어 수식 양상

본 절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는 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3.1 수량 미포함 부사어

먼저 부사어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처소명사’의 경우를 보자.

- (45) a. 张三只在图书馆学习。 [9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 b. 张三就在图书馆学习。 [81.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 c. ?张三才在图书馆学习。 [52.5%]

(45)를 살펴보면, (45a)~(45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처소명사’인 ‘在图书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45a)의 ‘只’자문과 (45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45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처소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처소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처소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처소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45b)의 ‘就’자문과 (45a)의 ‘只’자문은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는 의미이며, (45b)의 ‘就’자문은 ‘장삼은 학습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45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도구명사’의 경우를 보자. 车慧(2011)에 따르면, ‘只’는 동작의 방식, 도구, 시점, 목적 등 용언성 성분으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는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6) 我只用算盘来计算。[95%]

나는 주판으로만 계산한다.

그러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의 ‘只’자문을 ‘才’자문으로 바꿀 수 없지만 ‘就’자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a. 我就用算盘来计算。[82.5%]

나는 주판으로만 계산한다.

b. \*我才用算盘来计算。[46.25%]

(46), (47)을 살펴보면, (46), (47a), (47b)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도구명사’인 ‘用算盘’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46)의 ‘只’자문과 (47a)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47b)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도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도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도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도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보면, (47a)의 ‘就’자문과 (46)의 ‘只’자문은 ‘나는 주판으로만 계산한다’는 의미이며, (47a)의 ‘就’자문은 ‘나는 주판 외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만, (46)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고유명사’의 경우를 보자.

(48) a. 他只跟李四玩儿。 [96.25%]

그는 이사하고만 논다.

b. 他就跟李四玩儿。 [91.25%]

그는 이사하고만 논다.

c. ?他才跟李四玩儿。 [57.5%]

(48)을 살펴보면, (48a)~(48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고유명사’인 ‘跟李四’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48a)의 ‘只’자문과 (48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48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고유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고유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고유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고유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48b)의 ‘就’자문과 (48a)의 ‘只’자문은 ‘그는 이사하고만 논다’는 의미이며, (48b)의 ‘就’자문은 ‘장삼은 이사 외의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48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사어가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49) a. 张三只向他请教。 [97.5%]

장삼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b. 张三就向他请教。 [91.25%]

장삼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c. ?张三才向他请教。 [70%]

(49)를 살펴보면, (49a)~(49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대명사’인 ‘向他’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49a)의 ‘只’자문과 (49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49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49b)의 ‘就’자문과 (49a)의 ‘只’자문은 ‘장삼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는 의미이며, (49b)의 ‘就’자문은 ‘장삼은 그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49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 2.3.2 수량 포함 부사어

먼저 부사어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50) a. 张三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不够全面。[98.75%]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
- b. 张三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不够全面。[95%]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
- c. ?张三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不够全面。[66.25%]

(50)을 살펴보면, (50a)~(50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从一个方面’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50a)의 ‘只’자문과 (50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50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50b)의 ‘就’자문과 (50a)의 ‘只’자문은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며, (50b)의 ‘就’자문은 ‘측면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지만, (50a)의 ‘只’자문은 화자가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부사어가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51) a.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只比张三一个人矮。[9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 b.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就比张三一个人矮。[92.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 c.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才比张三一个人矮。[66.25%]

(51)을 살펴보면, (51a)~(51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比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51a)의 ‘只’자문과 (51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51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51b)의 ‘就’자문과 (51a)의 ‘只’자문은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라는 의미이며, (51b)의 ‘就’자문은 ‘그의 키가 매우 크다’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51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사어가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52) a. 我只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93.7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  
b. 我就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9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  
c. ?我才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70%]

(52)를 살펴보면, (52a)~(52c)는 각각 한정부사 ‘只’, ‘就’, ‘才’와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对你们两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52a)의 ‘只’자문과 (52b)의 ‘就’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52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통사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한정부사 ‘只’와 ‘就’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보면, (52b)의 ‘就’자문과 (52a)의 ‘只’자

## 제2장 ‘只’, ‘就’, ‘才’의 비연용 특성

문은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는 의미이며, (52b)의 ‘就’자문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만, (52a)의 ‘只’자문은 화자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한 후 질문할 뿐이고,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0>, <표 11>, <표 12>와 같다.

부사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부사+개사+명사	한정부사+개사+처소명사	○	○	?
		한정부사+개사+도구명사	○	○	*
		한정부사+개사+고유명사	○	○	?
	한정부사+개사+대명사	○	○	?	
수량 ○	한정부사+개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한정부사+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표 10>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통사적 특성

<표 10>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와 ‘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다. 둘째, 한정부사 ‘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부사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부사 +개사+명사	한정부사+개사+처소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개사+도구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개사+고유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개사+대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수량 ○	한정부사+개사+수사+양사+명사	수량 한정	수량 한정	?	
	한정부사+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한정부사+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범위 한정	범위 한정	?	

<표 11>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의미적 특성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표 11>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와 ‘就’는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둘째, 한정부사 ‘才’는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부사어	구조		只	就	才
수량 x	한정 부사 +개사 +명사	한정부사+개사 +처소명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한정부사+개사 +도구명사			*
		한정부사+개사 +고유명사			?
	한정부사+개사+대명사	?			
수량 o	한정부사+개사 +수사+양사+명사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
	한정부사+개사+명사 +수사+양사+명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한다	?
	한정부사+개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

<표 12>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화용적 특성

<표 12>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으며, 예상 수량이 없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 2.4 소결

본 장에서는 ‘只’, ‘就’, ‘才’가 비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각각 어떤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주어를 수식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주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주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다음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술어를 수식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통사적으로 용언성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용언성 술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범위,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예상 수량이 없고,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통사적으로 체언성 술어도 용언성 술어도 수식할 수 있지만,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술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화용적으로 화자의 주



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통사적으로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동사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화용적으로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 ‘실제 정도가 예상 정도보다 많이 낮다’,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마지막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부사 ‘只’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예상 수량이 없고,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둘째, 한정부사 ‘就’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화용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셋째, 한정부사 ‘才’는 통사적으로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 제3장 ‘只’, ‘就’, ‘才’의 연용 특성

지금까지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비연용하는 경우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도 있다.

钱兢(2005)에 따르면, 현대중국어에는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범위부사가 앞뒤로 이어져 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범위부사의 연용’이라고 부른다. 연용 형식은 연속적 연용과 비연속적 연용으로 나눌 수 있다. 연속적 연용이란 두 범위부사가 함께 사용되고 두 범위부사 사이에 다른 성분을 삽입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비연속적 연용이란 두 범위부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있거나 두 범위부사가 각각 앞뒤 두 절에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를 연속적 연용하는 경우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한다.

### 3.1 연속적 연용 양상

钱兢(2005)에 따르면, 부사가 다른 부사와 연용하는 경우는 전연용과 후연용이라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53) a. 这些罪行他一概都不承认。

이 범죄들을 그는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b. 从今年开春起, 他们都只吃个半饱。

올해 초봄부터 그들은 모두 반만 배불리 먹었다.

(53a)에서 범위부사 ‘都’가 범위부사 ‘一概’와 연용하는데, 범위부사 ‘一概’는 범위부사 ‘都’의 전연용 부사이고 범위부사 ‘都’는 범위부사 ‘一概’의 후연용 부사이다. 즉 (53a)에서의 범위부사 ‘都’ 앞에 다른 범위부사가

나타날 수 있어서 전연용 능력이 있다고 본다. 또한 (53b)에서 범위부사 ‘都’가 범위부사 ‘只’와 연용하는데, 범위부사 ‘只’는 범위부사 ‘都’의 후연용 부사이고 범위부사 ‘都’는 범위부사 ‘只’의 전연용 부사이다. 즉 (53b)에서의 범위부사 ‘都’ 뒤에 다른 범위부사가 나타날 수 있어서 후연용 능력이 있다고 본다.

钱兢(2005)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범위부사 중 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는 28개였고, 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는 25개였는데, 다음 <표 13>과 같다.

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	都, 全, 尽, 一概, 一律, 统统, 通通, 仅仅, 仅, 才, 光, 就, 至多, 至少, 顶多, 顶少, 单, 只, 不过, 足足, 唯(惟), 独, 再, 又, 也, 另外, 另, 还
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	都, 全, 一概, 一律, 一共, 总共, 统共, 统统, 通通, 仅仅, 仅, 才, 就, 至多, 至少, 顶多, 顶少, 单, 只, 不过, 再, 又, 也, 另外, 还

<표 13> 전연용, 후연용 능력이 있는 부사

<표 13>에 따라 ‘只’, ‘就’, ‘才’는 앞과 뒤에 모두 다른 부사를 연용할 수 있다. 즉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 이 여섯 가지 한정부사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먼저 이 여섯 가지 한정부사의 사용양상과 사용빈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연용 능력 강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경우는 비연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데 차이점을 보였다.

## 3.1.1 수량 미포함 주어, 술어, 부사어

먼저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명사’의 경우를 보자.

- (54) a.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只就张三报名了. [30%]  
 b.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只才张三报名了. [22.5%]  
 c.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就只张三报名了. [75%]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장삼만 지원했다.  
 d.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就才张三报名了. [32.5%]  
 e.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才只张三报名了. [31.25%]  
 f.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才就张三报名了. [31.25%]

(54)를 살펴보면, (54a)~(54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명사’인 ‘张三’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54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55) a.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只就我没及格. [33.75%]  
 b.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只才我没及格. [11.25%]  
 c.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就只我没及格. [66.25%]  
 d.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就才我没及格. [21.25%]  
 e.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才只我没及格. [18.75%]  
 f.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才就我没及格. [13.7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55)를 살펴보면, (55a)~(55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대명사’인 ‘他’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55c)의 ‘就只’자문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으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이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명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명사’의 경우를 보자.

- (56) a. \*拿到奖学金的只就张三。 [38.75%]
- b. \*拿到奖学金的只才张三。 [23.75%]
- c. ?拿到奖学金的就只张三。 [66.25%]
- d. \*拿到奖学金的就才张三。 [31.25%]
- e. \*拿到奖学金的才只张三。 [26.25%]
- f. \*拿到奖学金的才就张三。 [25%]

(56)을 살펴보면, (56a)~(56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명사’인 ‘张三’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56c)의 ‘就只’자문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57) a. \*不知道这件事的只就我。 [33.75%]
- b. \*不知道这件事的只才我。 [15%]
- c. ?不知道这件事的就只我。 [63.75%]
- d. \*不知道这件事的就才我。 [28.75%]

e. \*不知道这件事的才只我。 [23.75%]

f. \*不知道这件事的才就我。 [22.5%]

(57)을 살펴보면, (57a)~(57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대명사’인 ‘我’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57c)의 ‘就只’자문만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동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58) a. \*张三只就做饭, 不洗碗。 [33.75%]

b. \*张三只才做饭, 不洗碗。 [18.75%]

c. 张三就只做饭, 不洗碗。 [86.2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는 하지 않는다.

d. \*张三就才做饭, 不洗碗。 [22.5%]

e. \*张三才只做饭, 不洗碗。 [28.75%]

f. \*张三才就做饭, 不洗碗。 [26.25%]

(58)을 살펴보면, (58a)~(58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인 ‘做饭’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58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형용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59) a. \*他只就好色, 不花心。 [25%]  
b. \*他只才好色, 不花心。 [16.25%]  
c. 他就只好色, 不花心。 [76.2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d. \*他就才好色, 不花心。 [21.25%]  
e. \*他才只好色, 不花心。 [28.75%]  
f. \*他才就好色, 不花心。 [25%]

(59)를 살펴보면, (59a)~(59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인 ‘好色’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59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60) a. \*张三只就在图书馆学习。 [37.5%]  
b. \*张三只才在图书馆学习。 [22.5%]  
c. 张三就只在图书馆学习。 [81.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d. \*张三就才在图书馆学习。 [23.75%]  
e. \*张三才只在图书馆学习。 [26.25%]  
f. \*张三才就在图书馆学习。 [30%]

(60)을 살펴보면, (60a)~(60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개사+명사’인 ‘在图书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0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개사+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61) a. \*张三只就向他请教。 [38.75%]
- b. \*张三只才向他请教。 [30%]
- c. 张三就只向他请教。 [88.75%]  
          장삼은 그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 d. \*张三就才向他请教。 [40%]
- e. \*张三才只向他请教。 [31.25%]
- f. \*张三才就向他请教。 [33.75%]

(61)을 살펴보면, (61a)~(61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개사+대명사’인 ‘向他’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1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개사+대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3.1.2 수량 포함 주어, 술어, 부사어

먼저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62) a.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只就五百, 根本不够花。 [38.75%]  
 b.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只才五百, 根本不够花。 [45%]  
 c.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就只五百, 根本不够花。 [70%]  
 d.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就才五百, 根本不够花。 [86.2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e.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才只五百, 根本不够花。 [48.75%]  
 f.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才就五百, 根本不够花。 [63.75%]

(62)를 살펴보면, (62a)~(62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인 ‘五百’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2d)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62c)의 ‘就只’자문과 (62f)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只’, ‘才就’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63) a. \*这学期选了五门课, 只就一门得了A+。 [42.5%]  
 b. \*这学期选了五门课, 只才一门得了A+。 [41.25%]  
 c. 这学期选了五门课, 就只一门得了A+。 [87.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d. 这学期选了五门课, 就才一门得了A+。 [8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e. ?这学期选了五门课, 才只一门得了A+。 [60%]  
 f. ?这学期选了五门课, 才就一门得了A+。 [67.5%]

(63)을 살펴보면, (63a)~(63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양사’인 ‘一门’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3c)의 ‘就只’자문과 (63d)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63e)의 ‘才只’자문과 (63f)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63a)의 ‘只就’자문과 (63b)의 ‘只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才只’, ‘才就’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 ‘只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와 ‘就才’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64) a.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只就一个学生考满分。[36.25%]  
 b.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只才一个学生考满分。[33.75%]  
 c.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就只一个学生考满分。[76.25%]  
 반에 50명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d.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就才一个学生考满分。[75%]  
 반에 50명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e.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才只一个学生考满分。[47.5%]  
 f.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才就一个学生考满分。[61.25%]

(64)를 살펴보면, (64a)~(64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学生’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4c)의 ‘就只’자문과 (64d)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64f)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才就’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65) a. \*室友们都睡了, 只就张三一个人还在学习。 [41.25%]  
b. \*室友们都睡了, 只才张三一个人还在学习。 [18.75%]  
c. 室友们都睡了, 就只张三一个人还在学习。 [75%]  
    룸메이트들은 다 자는데, 장삼 혼자만 공부하고 있다.  
d. \*室友们都睡了, 就才张三一个人还在学习。 [31.25%]  
e. \*室友们都睡了, 才只张三一个人还在学习。 [26.25%]  
f. \*室友们都睡了, 才就张三一个人还在学习。 [30%]

(65)를 살펴보면, (65a)~(65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5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66) a. \*爸妈都去上班了, 只就我一个人在家。 [38.75%]  
b. \*爸妈都去上班了, 只才我一个人在家。 [21.25%]  
c. 爸妈都去上班了, 就只我一个人在家。 [80%]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나 혼자만 집에 있다.  
d. \*爸妈都去上班了, 就才我一个人在家。 [30%]

e. \*爸妈都去上班了, 才只我一个人在家. [28.75%]

f. \*爸妈都去上班了, 才就我一个人在家. [32.5%]

(66)을 살펴보면, (66a)~(66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66c)의 ‘就只’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만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이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명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67) a. 这支钢笔多少钱?

이 만년필은 얼마야?

b-1. \*这支钢笔只就二十. [31.25%]

b-2. \*这支钢笔只才二十. [43.75%]

b-3. ?这支钢笔就只二十. [66.25%]

b-4. 这支钢笔就才二十. [87.5%]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b-5. ?这支钢笔才只二十. [63.75%]

b-6. ?这支钢笔才就二十. [73.75%]

(67)을 살펴보면, (67b-1)~(67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인 ‘二十’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67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67b-3)의 ‘就只’자문, (67b-5)의 ‘才只’자문과 (67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고, (67b-1)의 ‘只就’자문과 (67b-2)의 ‘只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只’, ‘才只’, ‘才就’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 ‘只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才’는 ‘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68) a. 你要写的报告有几个?

네가 써야 할 보고서는 몇 개야?

b-1. \*我要写的报告只就两个。[26.25%]

b-2. \*我要写的报告只才两个。[37.5%]

b-3. ?我要写的报告就只两个。[56.25%]

b-4. ?我要写的报告就才两个。[70%]

b-5. \*我要写的报告才只两个。[36.25%]

b-6. ?我要写的报告才就两个。[53.75%]

(68)을 살펴보면, (68b-1)~(68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양사’인 ‘两个’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68b-3)의 ‘就只’자문, (68b-4)의 ‘就才’자문과 (68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 ‘才就’는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69) a. 你今天有几门课?

너는 오늘 수업이 몇 개 있니?

b-1. \*我今天只就两门课。[41.25%]

b-2. \*我今天只才两门课。[43.75%]

b-3. ?我今天就只两门课。[71.25%]

b-4. 我今天就才两门课。[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b-5. \*我今天才只两门课。[37.5%]

b-6. ?我今天才就两门课。[53.75%]

(69)를 살펴보면, (69b-1)~(69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수사+양사+명사’인 ‘两门课’로 구성된 명사 술어문이다. 그러나 (69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69b-3)의 ‘就只’자문과 (69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只’, ‘才就’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才’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70) a. 报名游泳比赛的有几个人?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b-1. ?报名游泳比赛的只就张三一个人。[50%]

b-2. \*报名游泳比赛的只才张三一个人。[38.75%]

b-3. 报名游泳比赛的就只张三一个人。[75%]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야.

b-4. ?报名游泳比赛的就才张三一个人。[66.25%]

b-5. \*报名游泳比赛的才只张三一个人。[36.25%]

b-6. \*报名游泳比赛的才就张三一个人。[48.75%]

(70)을 살펴보면, (70b-1)~(70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0b-3)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0b-1)의 ‘只就’자문과 (70b-4)의 ‘就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 ‘就才’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71) a. 这次考满分的有几个人?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 b-1. \*这次考满分的只就我一个人。[40%]
- b-2. \*这次考满分的只才我一个人。[40%]
- b-3. ?这次考满分的就只我一个人。[70%]
- b-4. ?这次考满分的就才我一个人。[70%]
- b-5. \*这次考满分的才只我一个人。[41.25%]
- b-6. ?这次考满分的才就我一个人。[58.75%]

(71)을 살펴보면, (71b-1)~(71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구성된 명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1b-3)의 ‘就只’자문, (71b-4)의 ‘就才’자문과 (71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 ‘才就’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동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72) a. 这本书卖了多少钱?

이 책은 얼마에 팔았어?

b-1. \*这本书只就卖了二十。[42.5%]

b-2. ?这本书只才卖了二十。[50%]

b-3. 这本书就只卖了二十。[78.7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4. 这本书就才卖了二十。[78.7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5. ?这本书才只卖了二十。[57.5%]

b-6. ?这本书才就卖了二十。[63.75%]

(72)를 살펴보면, (72b-1)~(72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수사’인 ‘卖二十’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2b-3)의 ‘就只’자문과 (72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2b-2)의 ‘只才’자문, (72b-5)의 ‘才只’자문과 (72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72b-1)의 ‘只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는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才’, ‘才只’, ‘才就’는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는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동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73) a. 你这次去釜山玩了几天?

너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며칠 놀았어?

b-1. ?我这次去釜山只就玩了三天。[51.2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b-2. ?我这次去釜山只才玩了三天。 [56.25%]

b-3. 我这次去釜山就只玩了三天。 [86.2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b-4. 我这次去釜山就才玩了三天。 [81.2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b-5. ?我这次去釜山才只玩了三天。 [67.5%]

b-6. ?我这次去釜山才就玩了三天。 [63.75%]

(73)을 살펴보면, (73b-1)~(73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수사+양사’인 ‘玩三天’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3b-3)의 ‘就只’자문과 (73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는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74) a. 你申请了几所学校?

너는 학교를 몇 개 신청했어?

b-1. ?我只就申请了一所学校。 [50%]

b-2. ?我只才申请了一所学校。 [50%]

b-3. 我就只申请了一所学校。 [87.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4. 我就才申请了一所学校。 [77.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b-5. ?我才只申请了一所学校。 [61.25%]

b-6. ?我才就申请了一所学校。 [63.75%]

(74)를 살펴보면, (74b-1)~(74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수사+양사+명사’인 ‘申请一所学校’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4b-3)의 ‘就只’자문과 (74b-4)의 ‘就才’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만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동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75) a. 没毕业的还剩几个人?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毕业的只就剩张三一个人了。[56.25%]

b-2. \*没毕业的只才剩张三一个人了。[38.75%]

b-3. 没毕业的就只剩张三一个人了。[8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b-4. ?没毕业的就才剩张三一个人了。[51.25%]

b-5. \*没毕业的才只剩张三一个人了。[36.25%]

b-6. \*没毕业的才就剩张三一个人了。[32.5%]

(75)를 살펴보면, (75b-1)~(75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5b-3)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5b-1)의 ‘只就’자문과 (75b-4)의 ‘就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 ‘就才’는 ‘동사+명사+수

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76) a. 没交报告书的还差几个人？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交报告书的只就差我一个人。[52.5%]

b-2. \*没交报告书的只才差我一个人。[30%]

b-3. 没交报告书的就只差我一个人。[91.2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b-4. \*没交报告书的就才差我一个人。[46.25%]

b-5. \*没交报告书的才只差我一个人。[36.25%]

b-6. \*没交报告书的才就差我一个人。[41.25%]

(76)을 살펴보면, (76b-1)~(76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구성된 동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6b-3)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6b-1)의 ‘只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형용사술어문인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77) a. 听说超市促销, 牛肉便宜了多少钱?

슈퍼마켓에서 할인한다고 들었는데, 소고기가 얼마 싸졌어?

b-1. \*牛肉只就便宜了十五。[47.5%]

b-2. ?牛肉只才便宜了十五。[61.25%]

b-3. 牛肉就只便宜了十五。[86.2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4. 牛肉就才便宜了十五。[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5. 牛肉才只便宜了十五。[76.2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6. ?牛肉才就便宜了十五。[56.25%]

(77)을 살펴보면, (77b-1)~(77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수사’인 ‘便宜十五’로 구성된 형용사 술어문이다. 그러나 (77b-3)의 ‘就只’자문, (77b-4)의 ‘就才’자문과 (77b-5)의 ‘才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7b-2)의 ‘只才’자문과 (77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77b-1)의 ‘只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 들 중 ‘就只’, ‘就才’, ‘才只’는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才’, ‘才就’는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는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 ‘才只’는 ‘형용사+수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78) a. 比起上次的考试分数, 你这次的考试分数高了多少分?

지난번 시험 점수에 비해 이번 시험 점수가 몇 점이나 올랐어?

b-1. \*我这次的考试分数只就高了七分。[47.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b-2. ?我这次的考试分数只才高了七分。[61.25%]  
b-3. 我这次的考试分数就只高了七分。[87.5%]  
내 이번 시험 점수는 겨우 7점 밖에 안 올랐어.  
b-4. 我这次的考试分数就才高了七分。[81.25%]  
내 이번 시험 점수는 겨우 7점 밖에 안 올랐어.  
b-5. 我这次的考试分数才只高了七分。[75%]  
내 이번 시험 점수는 겨우 7점 밖에 안 올랐어.  
b-6. ?我这次的考试分数才就高了七分。[60%]

(78)을 살펴보면, (78b-1)~(78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수사+양사’인 ‘高七分’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8b-3)의 ‘就只’자문, (78b-4)의 ‘就才’자문과 (78b-5)의 ‘才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78b-2)의 ‘只才’자문과 (78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78b-1)의 ‘只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 ‘才只’는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才’, ‘才就’는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는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 ‘才只’는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79) a. 你来得有点晚。  
네가 좀 늦게 왔어.  
b-1. ?我只就晚了一个小时。[53.75%]  
b-2. ?我只才晚了一个小时。[67.5%]  
b-3. 我就只晚了一个小时。[86.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4. 我就才晚了一个小时。[8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5. ?我才只晚了一个小时。[62.5%]

b-6. ?我就就晚了一个小时。[61.25%]

(79)를 살펴보면, (79b-1)~(79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수사+양사+명사’인 ‘晚一个小时’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79b-3)의 ‘就只’자문과 (79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만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형용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80) a. 听说多了几个申请旁听课的人。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났다고 들었어.

b-1. \*申请旁听课的只就多了张三一个人。[46.25%]

b-2. ?申请旁听课的只才多了张三一个人。[56.25%]

b-3. 申请旁听课的就只多了张三一个人。[91.25%]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4. 申请旁听课的就才多了张三一个人。[80%]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5. ?申请旁听课的才只多了张三一个人。[61.25%]

b-6. ?申请旁听课的才就多了张三一个人。[60%]

(80)을 살펴보면, (80b-1)~(80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多张三一个

人’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80b-3)의 ‘就只’자문과 (80b-4)의 ‘就才’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0b-2)의 ‘只才’자문, (80b-5)의 ‘才只’자문과 (80b-6)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80b-1)의 ‘只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는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才’, ‘才只’, ‘才就’는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就’는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81) a. 听说少了几个报名补习班的人。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들었어.

b-1. ?报名补习班的只就少了我一个人。[51.25%]

b-2. ?报名补习班的只才少了我一个人。[58.75%]

b-3. 报名补习班的就只少了我一个人。[90%]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4. 报名补习班的就才少了我一个人。[7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5. ?没报名补习班的才只少了我一个人。[56.25%]

b-6. ?报名补习班的才就少了我一个人。[55%]

(81)을 살펴보면, (81b-1)~(81b-6)은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少我一个人’으로 구성된 형용사술어문이다. 그러나 (81b-3)의 ‘就只’자문과 (81b-4)의 ‘就才’자문만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 ‘就才’만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 ‘就才’는 ‘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82) a. ?张三只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50%]  
 b. \*张三只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48.75%]  
 c. 张三就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88.75%]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  
 d. ?张三就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56.25%]  
 e. ?张三才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61.25%]  
 f. ?张三才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 [53.75%]

(82)를 살펴보면, (82a)~(82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从一个方面’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2c)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2a)의 ‘只就’자문, (82d)의 ‘就才’자문, (82e)의 ‘才只’자문과 (82f)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82b)의 ‘只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 ‘就才’, ‘才只’, ‘才就’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才’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83) a.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只就比张三一个人矮。 [52.5%]  
 b.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只才比张三一个人矮。 [45%]  
 c.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就只比张三一个人矮。 [87.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d.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就才比张三一个人矮。 [61.25%]  
 e.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才只比张三一个人矮。 [57.5%]  
 f.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 他才就比张三一个人矮。 [42.5%]

(83)을 살펴보면, (83a)~(83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인 ‘比张三一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3c)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3a)의 ‘只就’자문, (83d)의 ‘就才’자문과 (83e)의 ‘才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83b)의 ‘只才’자문과 (83f)의 ‘才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 ‘就才’, ‘才只’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才’, ‘才就’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只/就/才+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84) a. ?我只就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55%]  
 b. \*我只才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27.5%]  
 c. 我就只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92.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  
 d. ?我就才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50%]  
 e. ?我才只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56.25%]  
 f. ?我才就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 怎么大家都知道了? [53.75%]

제3장 ‘只’, ‘就’, ‘才’의 연용 특성

(84)를 살펴보면, (84a)~(84f)는 각각 한정부사 ‘只就’, ‘只才’, ‘就只’, ‘就才’, ‘才只’, ‘才就’와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对你们两个人’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4c)의 ‘就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4a)의 ‘只就’자문, (84d)의 ‘就才’자문, (84e)의 ‘才只’자문과 (84f)의 ‘才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84b)의 ‘只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只’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就’, ‘就才’, ‘才只’, ‘才就’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只才’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의미적으로 보면, ‘就只’는 ‘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수식 성분		구조	只 就	只 才	就 只	就 才	才 只	才 就	
수량 x	주어	한정부사+한정부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대명사	*	*	?	*	*	*	
	술어	명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대명사	*	*	?	*	*	*
		동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동사	*	*	○	*	*	*
	형용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	*	*	○	*	*	*	
	부사어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 +대명사	*	*	○	*	*	*	
수량 ○	주어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양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명사 +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	*	○	*	*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술어	명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양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	?	?	○	○	?	?
	동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동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수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	*	?	○	○	○	?
	형용사 술어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부사어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수사+양사+명사	?	*	○	?	?	*
		한정부사+한정부사+개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	?	*	○	?	?	?
	점수 (○=1, ?=0.5, *=0)			5	4	27	16.5	7.5

<표 14> ‘只’, ‘就’, ‘才’의 연속적 연용 특성

<표 14>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只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둘째, ‘只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 명사 술어,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셋째, ‘就只’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 명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다. 넷째, ‘就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섯째, ‘才只’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여섯째, ‘才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또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只 > 就才 > 才就 > 才只 > 只就 > 只才’ 순이다. 钱兢(2005)은 범위부사 연용의 실례 분석을 통해, 범위부사의 연용 능력은 전연용 능력이 강하면 후연용 능력이 약하고, 반대로 후연용 능력이 강하면 전연용 능력이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연용 능력 강약은 다음과 같다.

(85) 전연용 능력: 只 > 才 > 就

후연용 능력: 就 > 才 > 只

따라서 한정부사 ‘只’의 전연용 능력은 강하지만 후연용 능력은 약하다. 반대로 한정부사 ‘就’의 후연용 능력은 강하지만 전연용 능력은 약하다. 钱兢(2005)은 또한 ‘只’가 ‘仅仅’, ‘仅’, ‘才’, ‘就’, ‘单’, ‘不过’ 등과 같은 한정성 범위부사와 연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只’가 다른 동종의 한정성 범위부사 뒤에 위치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역시 한정부사 ‘只’의 전연용 능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왜 한정부사 ‘就’와 ‘才’가 한정부사 ‘只’와 연용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가 모두 한정부사 ‘只’ 앞에 위치하는 것일까? 张谊生(1996)에 따르면, 주관적 경향이 강할수록 부사의 위치가 앞으로 간다고 하였다<sup>17)</sup>.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就’와 ‘才’는 화용적으로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만, 한정부사 ‘只’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정부사 ‘就’와 ‘才’가 한정부사 ‘只’와 연용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가 모두 한정부사 ‘只’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 외에 왜 한정부사 ‘就’가 한정부사 ‘才’와 연용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는 한정부사 ‘才’ 앞에 위치하는 것일까? 张谊生(1996)에 따르면, 의미 범위가 넓을수록 부사의 위치가 앞으로 간다고 하였다<sup>18)</sup>.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就’는 범위와 수량을 모두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수량을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고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정부사 ‘就’의 의미 범위가 한정부사 ‘才’의 의미 범위보다 더 넓다고 할 수 있다.<sup>19)</sup> 이 때문에 한정부사 ‘就’가 한정부사 ‘才’와 연용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가 한정부사 ‘才’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17) 张谊生(1996). 主观倾向越强, 位序越前.

18) 张谊生(1996). 语义辖域越宽, 位序越前.

19) 한정부사 ‘就’의 의미 범위가 한정부사 ‘才’의 의미 범위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넓을지 4.2절에서 자세히 논의할 것이다.

## 3.2 비연속적 연용 양상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경우,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는 주어를 수식하고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는 술어, 부사어를 수식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경우도 비연용하는 경우와 같이,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데 차이점을 보였다.

### 3.2.1 수량 미포함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

먼저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가 주어를 수식하고 두 번째 한정부사가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86) a-1. \*朋友们都教过韩语, 只张三只学过韩语。 [36.25%]  
 a-2. \*朋友们都教过韩语, 只张三就学过韩语。 [41.25%]  
 a-3. \*朋友们都教过韩语, 只张三才学过韩语。 [40%]  
 b-1. 朋友们都教过韩语, 就张三只学过韩语。 [81.25%]  
 친구들은 모두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기만 한 사람은 장삼뿐이다.  
 b-2. \*朋友们都教过韩语, 就张三就学过韩语。 [45%]  
 b-3. ?朋友们都教过韩语, 就张三才学过韩语。 [70%]  
 c-1. \*朋友们都教过韩语, 才张三只学过韩语。 [30%]  
 c-2. \*朋友们都教过韩语, 才张三就学过韩语。 [31.25%]  
 c-3. \*朋友们都教过韩语, 才张三才学过韩语。 [28.75%]

(86)을 살펴보면, (86a-1)~(86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张三’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인 ‘学’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6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6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87) a-1.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只看过论文。[40%]  
 a-2.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就看过论文。[40%]  
 a-3.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才看过论文。[51.25%]  
 b-1.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只看过论文。[87.5%]  
 학우들은 모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한 사람은 나뿐이다.  
 b-2.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就看过论文。[36.25%]  
 b-3.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才看过论文。[72.5%]  
 c-1.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只看过论文。[21.25%]  
 c-2.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就看过论文。[27.5%]  
 c-3.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才看过论文。[22.5%]

(87)을 살펴보면, (87a-1)~(87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我’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인 ‘看’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7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87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87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88) a-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只李四只聪明, 不漂亮. [42.5%]  
 a-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只李四就聪明, 不漂亮. [47.5%]  
 a-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只李四才聪明, 不漂亮. [22.5%]  
 b-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只聪明, 不漂亮. [83.75%]  
 자매들은 모두 똑똑하고 예쁜데, 이사만 똑똑할 뿐이고 예쁘지 않다.  
 b-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就聪明, 不漂亮. [46.25%]  
 b-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才聪明, 不漂亮. [43.75%]  
 c-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只聪明, 不漂亮. [23.75%]  
 c-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就聪明, 不漂亮. [26.25%]  
 c-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才聪明, 不漂亮. [17.5%]

(88)을 살펴보면, (88a-1)~(88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李四’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인 ‘聪明’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8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만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89) a-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只幽默, 不帅气. [38.75%]  
 a-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就幽默, 不帅气. [37.5%]  
 a-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才幽默, 不帅气. [23.75%]  
 b-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只幽默, 不帅气. [83.75%]  
 룸메이트들은 모두 유머러스하고 멋있는데,  
 그 사람만 유머러스할 뿐이고 멋있지 않다.  
 b-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就幽默, 不帅气. [43.75%]  
 b-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才幽默, 不帅气. [36.25%]  
 c-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只幽默, 不帅气. [17.5%]  
 c-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就幽默, 不帅气. [23.75%]  
 c-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才幽默, 不帅气. [18.75%]

(89)를 살펴보면, (89a-1)~(89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他’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인 ‘幽默’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89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만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으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가 주어를 수식하고 두 번째 한정부사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90) a-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只在电视上见过. [53.75%]  
 a-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就在电视上见过. [60%]  
 a-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才在电视上见过. [37.5%]

- b-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就张三只在电视上见过. [87.5%]  
 친구들은 모두 연예인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장삼만 텔레비전에서만 본 적이 있다.
- b-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就张三就在电视上见过. [48.75%]
- b-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就张三才在电视上见过. [62.5%]
- c-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才张三只在电视上见过. [28.75%]
- c-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才张三就在电视上见过. [27.5%]
- c-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才张三才在电视上见过. [25%]

(90)을 살펴보면, (90a-1)~(90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张三’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명사’인 ‘在电视上’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0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0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90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90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91) a-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我只对羽毛球感兴趣. [52.5%]
- a-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我就对羽毛球感兴趣. [56.25%]
- a-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我才对羽毛球感兴趣. [36.25%]
- b-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就我只对羽毛球感兴趣. [92.5%]  
 학우들은 모두 배드민턴과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데,  
 나만 배드민턴에만 관심이 있다.
- b-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就我就对羽毛球感兴趣. [48.75%]
- b-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就我才对羽毛球感兴趣. [56.25%]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c-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才我只对羽毛球感兴趣。 [21.25%]
- c-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才我就对羽毛球感兴趣。 [23.75%]
- c-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才我才对羽毛球感兴趣。 [16.25%]

(91)을 살펴보면, (91a-1)~(91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我’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명사’인 ‘对羽毛球’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1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1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91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91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 3.2.2 수량 포함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

먼저 ‘只’, ‘就’, ‘才’가 비연속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가 주어를 수식하고 두 번째 한정부사가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주어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92) a-1.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只一个同学只听说了这起事故。 [47.5%]
- a-2.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只一个同学就听说了这起事故。 [50%]
- a-3.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只一个同学才听说了这起事故。 [47.5%]

- b-1.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就一个同学只听说了这起事故。 [86.25%]  
 학우들은 모두 직접 이 사고를 목격했는데,  
 한 학우만 이 사고를 전해 듣기만 했다.
- b-2.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就一个同学就听说了这起事故。 [46.25%]
- b-3.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就一个同学才听说了这起事故。 [60%]
- c-1.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才一个同学只听说了这起事故。 [35%]
- c-2.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才一个同学就听说了这起事故。 [37.5%]
- c-3. \*同学们都亲眼目睹了这起事故的发生 ,  
 才一个同学才听说了这起事故。 [27.5%]

(92)를 살펴보면, (92a-1)~(92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同学’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인 ‘听说’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2b-1)의 ‘就<sub>1</sub> 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2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92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 只<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93) a-1. ?朋友们都教过韩语，只张三一个人只学过韩语。 [55%]  
 a-2. \*朋友们都教过韩语，只张三一个人就学过韩语。 [46.25%]  
 a-3. \*朋友们都教过韩语，只张三一个人才学过韩语。 [43.75%]  
 b-1. 朋友们都教过韩语，就张三一个人只学过韩语。 [81.25%]  
 친구들은 모두 한국어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기만 한 사람은 장삼뿐이다.  
 b-2. ?朋友们都教过韩语，就张三一个人就学过韩语。 [50%]  
 b-3. ?朋友们都教过韩语，就张三一个人才学过韩语。 [60%]  
 c-1. \*朋友们都教过韩语，才张三一个人只学过韩语。 [43.75%]  
 c-2. \*朋友们都教过韩语，才张三一个人就学过韩语。 [32.5%]  
 c-3. \*朋友们都教过韩语，才张三一个人才学过韩语。 [30%]

(93)을 살펴보면, (93a-1)~(93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인 ‘学’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3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3a-1)의 ‘只<sub>1</sub>只<sub>2</sub>’, (93b-2)의 ‘就<sub>1</sub>就<sub>2</sub>’, (93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94) a-1.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一个人只看过论文。 [41.25%]  
 a-2.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一个人就看过论文。 [38.75%]  
 a-3. \*同学们都发表过论文，只我一个人人才看过论文。 [42.5%]

- b-1.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一个人只看过论文。 [85%]  
 학우들은 모두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보기만 한 사람은 나뿐이다.
- b-2.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一个人就看过论文。 [40%]
- b-3. ?同学们都发表过论文，就我一个人人才看过论文。 [65%]
- c-1.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一个人只看过论文。 [35%]
- c-2.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一个人就看过论文。 [31.25%]
- c-3. \*同学们都发表过论文，才我一个人人才看过论文。 [22.5%]

(94)를 살펴보면, (94a-1)~(94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인 ‘看’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4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4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95) a-1.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只一间房只干净，不宽敞。 [38.75%]
- a-2.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只一间房就干净，不宽敞。 [35%]
- a-3.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只一间房才干净，不宽敞。 [27.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b-1.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就一间房只干净，不宽敞。 [81.25%]  
이 호텔의 방은 모두 깨끗하고 넓지만,  
방 한 칸만 깨끗할 뿐이고 넓지 않다.
- b-2.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就一间房就干净，不宽敞。 [35%]
- b-3.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就一间房才干净，不宽敞。 [28.75%]
- c-1.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才一间房只干净，不宽敞。 [41.25%]
- c-2.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才一间房就干净，不宽敞。 [28.75%]
- c-3. \*这个酒店的房间都既干净又宽敞，  
才一间房才干净，不宽敞。 [23.75%]

(95)를 살펴보면, (95a-1)~(95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间房’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인 ‘干净’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5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 只<sub>2</sub>’만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96) a-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只李四一个人只聪明，不漂亮。 [48.75%]  
a-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只李四一个人就聪明，不漂亮。 [41.75%]  
a-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只李四一个人才聪明，不漂亮。 [22.5%]

제3장 ‘只’, ‘就’, ‘才’의 연용 특성

- b-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一个人只聪明, 不漂亮。 [85%]  
 자매들은 모두 똑똑하고 예쁜데, 이사 혼자만 똑똑할 뿐이고 예쁘지 않다.
- b-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一个人就聪明, 不漂亮。 [40%]
- b-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就李四一个人才聪明, 不漂亮。 [28.75%]
- c-1.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一个人只聪明, 不漂亮。 [31.25%]
- c-2.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一个人就聪明, 不漂亮。 [26.25%]
- c-3. \*姐妹们都既聪明又漂亮, 才李四一个人才聪明, 不漂亮。 [20%]

(96)을 살펴보면, (96a-1)~(96c-3)은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수사+양사+명사’인 ‘李四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인 ‘聪明’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6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만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 (97) a-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一个人只幽默, 不帅气。 [58.75%]
- a-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一个人就幽默, 不帅气。 [47.5%]
- a-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只他一个人才幽默, 不帅气。 [31.25%]
- b-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一个人只幽默, 不帅气。 [80%]  
 룸메이트들은 모두 유머러스하고 멋있는데,  
 그 사람만 유머러스할 뿐이고 멋있지 않다.
- b-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一个人就幽默, 不帅气。 [46.25%]
- b-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就他一个人才幽默, 不帅气。 [33.75%]
- c-1.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一个人只幽默, 不帅气。 [40%]
- c-2.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一个人就幽默, 不帅气。 [32.5%]
- c-3. \*室友们都既幽默又帅气, 才他一个人才幽默, 不帅气。 [27.5%]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97)을 살펴보면, (97a-1)~(97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他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인 ‘幽默’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7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7a-1)의 ‘只<sub>1</sub>只<sub>2</sub>’는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술어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98) a-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只张三只考了四级。 [50%]  
a-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只张三就考了四级。 [55%]  
a-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只张三才考了四级。 [55%]  
b-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就张三只考了四级。 [97.5%]  
학우들은 모두 한국어 6급을 땀는데, 장삼만 4급을 땀다.  
b-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就张三就考了四级。 [53.75%]  
b-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就张三才考了四级。 [76.25%]  
학우들은 모두 한국어 6급을 땀는데, 장삼만 4급을 땀다.  
c-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才张三只考了四级。 [25%]  
c-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才张三就考了四级。 [27.5%]  
c-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才张三才考了四级。 [23.75%]

(98)을 살펴보면, (98a-1)~(98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张三’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수사+양사’인 ‘考四级’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8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98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8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98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98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96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99) a-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只我只选了一门。 [56.25%]  
 a-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只我就选了一门。 [68.75%]  
 a-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只我才选了一门。 [58.75%]  
 b-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就我只选了一门。 [92.5%]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 모두 전공 수업 세 개를 수강했는데, 나만 한 개만 수강했다.  
 b-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就我就选了一门。 [57.5%]  
 b-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就我才选了一门。 [76.25%]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 모두 전공 수업 세 개를 수강했는데, 나만 한 개만 수강했다.  
 c-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才我只选了一门。 [25%]  
 c-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才我就选了一门。 [35%]  
 c-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才我才选了一门。 [26.25%]

(99)를 살펴보면, (99a-1)~(99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我’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수사+양사’인 ‘选一门’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99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99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99a-1)의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只<sub>1</sub>只<sub>2</sub>’자문, (99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99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99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0) a-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只张三只多了二十分。[48.75%]  
a-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只张三就多了二十分。[53.75%]  
a-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只张三才多了二十分。[57.5%]  
b-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只多了二十分。[90%]  
룸메이트들의 수능 시험 점수는 모두 일급 대학 합격선보다  
50점 이상 높았는데, 장삼만 20점밖에 안 높았다.  
b-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就多了二十分。[56.25%]  
b-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才多了二十分。[75%]  
룸메이트들의 수능 시험 점수는 모두 일급 대학 합격선보다  
50점 이상 높았는데, 장삼만 20점밖에 안 높았다.  
c-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只多了二十分。[22.5%]

- c-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就多了二十分。[26.25%]
- c-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才多了二十分。[20%]

(100)을 살펴보면, (100a-1)~(100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张三’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수사+양사’인 ‘多二十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0b-1)의 ‘就<sub>1</sub>只<sub>2</sub>’문과 (100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0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0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0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1) a-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只他只高了一公分。[52.5%]
- a-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只他就高了一公分。[58.75%]
- a-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只他才高了一公分。[57.5%]
- b-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就他只高了一公分。[92.5%]
- 학우들은 중3 때 모두 중1 때보다 5cm 이상 컸는데,  
그 사람만 1cm밖에 안 컸다.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b-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就他就高了一公分。 [57.5%]
- b-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就他才高了一公分。 [82.5%]  
학우들은 중3 때 모두 중1 때보다 5cm 이상 컸는데,  
그 사람만 1cm밖에 안 컸다.
- c-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只高了一公分。 [26.25%]
- c-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就高了一公分。 [28.75%]
- c-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才高了一公分。 [23.75%]

(101)을 살펴보면, (101a-1)~(101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他’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수사+양사’인 ‘高一公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1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1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1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1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1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1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주어와 술어에 모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2) a-1.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只一个小朋友只吃了一碗。 [53.75%]
- a-2.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只一个小朋友就吃了一碗。 [62.5%]
- a-3.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只一个小朋友才吃了一碗。 [56.25%]
- b-1.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就一个小朋友只吃了一碗。 [90%]  
 유치원 어린이들은 모두 밥 두 그릇을 먹었는데,  
 한 어린이만 한 그릇만 먹었다.
- b-2.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就一个小朋友就吃了一碗。 [62.5%]
- b-3.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就一个小朋友才吃了一碗。 [76.25%]  
 유치원 어린이들은 모두 밥 두 그릇을 먹었는데,  
 한 어린이만 한 그릇만 먹었다.
- c-1.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才一个小朋友只吃了一碗。 [30%]
- c-2.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才一个小朋友就吃了一碗。 [27.5%]
- c-3. \*幼儿园的小朋友都吃了两碗米饭 ,  
 才一个小朋友才吃了一碗。 [26.25%]

(102)를 살펴보면, (102a-1)~(102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小朋友’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수사+양사’인 ‘吃一碗’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2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2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2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2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2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0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

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3) a-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只张三一个人只考了四级. [53.75%]  
 a-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只张三一个人就考了四级. [57.5%]  
 a-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只张三一个人才考了四级. [58.75%]  
 b-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就张三一个人只考了四级. [92.5%]  
 학우들은 모두 한국어 6급을 땀는데, 장삼 혼자만 4급을 땀다.  
 b-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就张三一个人就考了四级. [57.5%]  
 b-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就张三一个人才考了四级. [82.5%]  
 학우들은 모두 한국어 6급을 땀는데, 장삼 혼자만 4급을 땀다.  
 c-1.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才张三一个人只考了四级. [36.25%]  
 c-2.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才张三一个人就考了四级. [31.25%]  
 c-3. \*同学们都考了韩语六级, 才张三一个人才考了四级. [27.5%]

(103)을 살펴보면, (103a-1)~(103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와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수사+양사’인 ‘考四级’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3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3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3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3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3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3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4) a-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只我一个人只选了一门。 [58.75%]
- a-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只我一个人就选了一门。 [62.5%]
- a-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只我一个人才选了一门。 [57.5%]
- b-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就我一个人只选了一门。 [91.25%]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 모두 전공 수업 세 개를 수강했는데,  
나 혼자만 한 개만 수강했다.
- b-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就我一个人就选了一门。 [65%]
- b-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就我一个人才选了一门。 [83.75%]  
학우들은 이번 학기에 모두 전공 수업 세 개를 수강했는데,  
나 혼자만 한 개만 수강했다.
- c-1.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才我一个人只选了一门。 [30%]
- c-2.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才我一个人就选了一门。 [35%]
- c-3. \*同学们这学期都选了三门专业课 ,  
才我一个人才选了一门。 [25%]



(104)를 살펴보면, (104a-1)~(104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동사+수사+양사’인 ‘选一门’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4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4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4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4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4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4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동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5) a-1.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只一个朋友只瘦了一公斤。 [56.25%]
- a-2.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只一个朋友就瘦了一公斤。 [57.5%]
- a-3.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只一个朋友才瘦了一公斤。 [61.25%]
- b-1.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就一个朋友只瘦了一公斤。 [86.25%]  
 친구들은 다이어트 약을 먹고 3kg 이상 빠졌는데,  
 한 친구만 1kg만 빠졌다.
- b-2.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就一个朋友就瘦了一公斤。 [60%]

- b-3.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就一个朋友才瘦了一公斤。 [81.25%]  
 친구들은 다이어트 약을 먹고 3kg 이상 빠졌는데,  
 한 친구만 1kg만 빠졌다.
- c-1.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才一个朋友只瘦了一公斤。 [37.5%]
- c-2.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才一个朋友就瘦了一公斤。 [36.25%]
- c-3. \*朋友们吃了减肥药后都瘦了三公斤以上 ,  
 才一个朋友才瘦了一公斤。 [30%]

(105)를 살펴보면, (105a-1)~(105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朋友’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수사+양사’인 ‘瘦一公斤’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5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5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5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5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5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5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2</sub>就<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6) a-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  
 只张三一个人只多了二十分。 [51.2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a-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只张三一个人就多了二十分。[55%]
- a-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只张三一个人才多了二十分。[60%]
- b-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一个人只多了二十分。[88.75%]  
룸메이트들의 수능 시험 점수는 모두 일급 대학 합격선보다  
50점 이상 높았는데, 장삼 혼자만 20점밖에 안 높았다.
- b-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一个人就多了二十分。[65%]
- b-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就张三一个人才多了二十分。[80%]  
룸메이트들의 수능 시험 점수는 모두 일급 대학 합격선보다  
50점 이상 높았는데, 장삼 혼자만 20점밖에 안 높았다.
- c-1.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一个人只多了二十分。[35%]
- c-2.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一个人就多了二十分。[36.25%]
- c-3. \*室友们的高考分数都比一本线多了五十分以上，  
才张三一个人才多了二十分。[31.25%]

(106)을 살펴보면, (106a-1)~(106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수사+양사’인 ‘多二十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6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6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6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6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6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6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수사+양사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07) a-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只他一个人只高了一公分。 [55%]
- a-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只他一个人就高了一公分。 [60%]
- a-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只他一个人才高了一公分。 [61.25%]
- b-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就他一个人只高了一公分。 [85%]  
학우들은 중3 때 모두 중1 때보다 5cm 이상 컸는데,  
그 사람 혼자만 1cm밖에 안 컸다.
- b-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就他一个人就高了一公分。 [62.5%]
- b-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就他一个人才高了一公分。 [78.75%]  
학우들은 중3 때 모두 중1 때보다 5cm 이상 컸는데,  
그 사람 혼자만 1cm밖에 안 컸다.
- c-1.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一个人只高了一公分。 [32.5%]
- c-2.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一个人就高了一公分。 [32.5%]
- c-3. \*同学们初三都比初一高了五公分以上 ,  
才他一个人才高了一公分。 [26.25%]

(107)을 살펴보면, (107a-1)~(107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他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형용사+수사+양사’인 ‘高一公分’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7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과 (107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7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7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07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과 (107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형용사+수사+양사’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으로, ‘只’, ‘就’, ‘才’가 비연속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가 주어를 수식하고 두 번째 한정부사가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 주어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08) a-1.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只一个同学只在研究室学习。 [58.75%]  
a-2.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只一个同学就在研究室学习。 [57.5%]  
a-3.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只一个同学才在研究室学习。 [35%]  
b-1.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就一个同学只在研究室学习。 [88.75%]  
학우들은 평소 연구실과 도서관 두 곳에서 공부하는데,  
한 학우만 연구실에서만 공부한다.

- b-2.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就一个同学就在研究室学习。 [58.75%]
- b-3.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就一个同学才在研究室学习。 [38.75%]
- c-1.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才一个同学只在研究室学习。 [38.75%]
- c-2.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才一个同学就在研究室学习。 [38.75%]
- c-3. \*同学们平时都在研究室和图书馆这两个地方学习 ,  
才一个同学才在研究室学习。 [30%]

(108)을 살펴보면, (108a-1)~(108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同学’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명사’인 ‘在研究室’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8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8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8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108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09) a-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一个人只在电视上见过。 [56.25%]  
a-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一个人就在电视上见过。 [52.5%]  
a-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 只张三一个人才在电视上见过。 [38.75%]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b-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就张三一个人只在电视上见过。[87.5%]  
친구들은 모두 연예인 실물을 본 적이 있는데,  
장삼 혼자만 텔레비전에서만 본 적이 있다.
- b-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就张三一个人就在电视上见过。[57.5%]
- b-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就张三一个人才在电视上见过。[45%]
- c-1.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才张三一个人只在电视上见过。[38.75%]
- c-2.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才张三一个人就在电视上见过。[36.25%]
- c-3. \*朋友们都见过明星本人，才张三一个人才在电视上见过。[28.75%]

(109)를 살펴보면, (109a-1)~(109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명사’인 ‘在电视上’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09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09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09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109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0) a-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我一个人只对羽毛球感兴趣。[58.75%]
- a-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一个人就对羽毛球感兴趣。[62.5%]
- a-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只一个人才对羽毛球感兴趣。[40%]

- b-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就我一个人只对羽毛球感兴趣。 [87.5%]  
 학우들은 모두 배드민턴과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데,  
 나 혼자만 배드민턴에만 관심이 있다.
- b-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就我一个人就对羽毛球感兴趣。 [67.5%]
- b-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就我一个人只对羽毛球感兴趣。 [42.5%]
- c-1.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才我一个人只对羽毛球感兴趣。 [38.75%]
- c-2.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才我一个人就对羽毛球感兴趣。 [33.75%]
- c-3. \*同学们都对羽毛球和网球感兴趣 ,  
 才我一个人只对羽毛球感兴趣。 [23.75%]

(110)을 살펴보면, (110a-1)~(110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명사’인 ‘对羽毛球’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0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0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0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과 (110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만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就<sub>1</sub>就<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양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부사어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1) a-1.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只张三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56.25%]
- a-2.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56.25%]
- a-3.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53.75%]
- b-1.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88.75%]  
 동료들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했는데,  
 장삼만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다.
- b-2.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6.25%]
- b-3.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6.25%]
- c-1.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27.5%]
- c-2.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30%]
- c-3.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22.5%]

(111)을 살펴보면, (111a-1)~(111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인 ‘张三’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从一个方面’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1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1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1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11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111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과 (111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

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2) a-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只我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55%]
- a-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只我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62.5%]
- a-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只我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56.25%]
- b-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就我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88.75%]  
 친구들은 모두 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나만 한 회사에만 이력서를 냈다.
- b-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就我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63.75%]
- b-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就我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71.25%]
- c-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才我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33.75%]
- c-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才我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33.75%]
- c-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  
 才我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22.5%]

(112)를 살펴보면, (112a-1)~(112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인 ‘我’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给一个公司’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2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2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2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12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112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과 (112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세 번째로, 주어와 부사어에 모두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를 분석할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3) a-1.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只一个室友只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52.5%]
- a-2.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只一个室友就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61.25%]
- a-3.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只一个室友才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53.75%]
- b-1.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就一个室友只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87.5%]  
 룸메이트들은 모두 두 교수와 상담 시간을 잡았는데,  
 한 룸메이트만 단지 한 교수와 상담 시간을 잡았다.
- b-2.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就一个室友就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62.5%]

- b-3.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就一个室友才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73.75%]
- c-1.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才一个室友只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37.5%]
- c-2.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才一个室友就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37.5%]
- c-3. \*室友们都和两位教授约了商谈时间 ,  
 才一个室友才和一位教授约了商谈时间。 [28.75%]

(113)을 살펴보면, (113a-1)~(113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수사+양사명사’인 ‘一个室友’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和一位教授’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3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3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3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13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113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과 (113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4) a-1.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只张三一个人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55%]
- a-2. ?同事们都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只张三一个人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3.75%]

- a-3.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只张三一个人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0%]
- b-1.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一个人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91.25%]  
 동료들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분석했는데,  
 장삼 혼자만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다.
- b-2.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一个人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0%]
- b-3.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就张三一个人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67.5%]
- c-1.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一个人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33.75%]
- c-2.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一个人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33.75%]
- c-3. \*同事们都是从多个方面分析了问题 ,  
 才张三一个人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26.25%]

(114)를 살펴보면, (114a-1)~(114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명사+수사+양사명사’인 ‘张三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从一个方面’으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4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4a-1)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4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14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114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과 (114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15) a-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只我一个人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57.5%]
- a-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只一个人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61.25%]
- a-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只一个人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61.25%]
- b-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就我一个人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90%]  
 친구들은 모두 세 회사에 이력서를 냈는데,  
 나만 한 회사에만 이력서를 냈다.
- b-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就一个人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66.25%]
- b-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就一个人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73.75%]
- c-1.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才我一个人只给一个公司投了简历。 [32.5%]
- c-2.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才一个人就给一个公司投了简历。 [36.25%]
- c-3. \*朋友们都给三个公司投了简历，  
 才一个人才给一个公司投了简历。 [30%]

(115)를 살펴보면, (115a-1)~(115c-3)은 각각 첫 번째 한정부사 ‘只<sub>1</sub>’, ‘就<sub>1</sub>’, ‘才<sub>1</sub>’과 ‘대명사+수사+양사명사’인 ‘我一个人’으로, 두 번째 한정부사 ‘只<sub>2</sub>’, ‘就<sub>2</sub>’, ‘才<sub>2</sub>’와 ‘개사+수사+양사+명사’인 ‘给一个公司’로 구성된 예문이다. 그러나 (115b-1)의 ‘就<sub>1</sub>只<sub>2</sub>’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15a-1)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의 ‘只<sub>1</sub>只<sub>2</sub>’자문, (115a-2)의 ‘只<sub>1</sub>就<sub>2</sub>’자문, (115a-3)의 ‘只<sub>1</sub>才<sub>2</sub>’자문, (115b-2)의 ‘就<sub>1</sub>就<sub>2</sub>’자문과 (115b-3)의 ‘就<sub>1</sub>才<sub>2</sub>’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只’, ‘就’, ‘才’가 연속적 비연용하는 한정부사들 중 ‘就<sub>1</sub>只<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只<sub>1</sub>只<sub>2</sub>’, ‘只<sub>1</sub>就<sub>2</sub>’, ‘只<sub>1</sub>才<sub>2</sub>’, ‘就<sub>1</sub>就<sub>2</sub>’, ‘就<sub>1</sub>才<sub>2</sub>’는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나머지는 모두 ‘대명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주어와 ‘개사+수사+양사+명사’로 이루어진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수식 성분	구조	只 <sub>1</sub>	只 <sub>1</sub>	只 <sub>1</sub>	就 <sub>1</sub>	就 <sub>1</sub>	就 <sub>1</sub>	才 <sub>1</sub>	才 <sub>1</sub>	才 <sub>1</sub>
			只 <sub>2</sub>	就 <sub>2</sub>	才 <sub>2</sub>	只 <sub>2</sub>	就 <sub>2</sub>	才 <sub>2</sub>	只 <sub>2</sub>	就 <sub>2</sub>	才 <sub>2</sub>
수량 X	주어 술어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동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동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형용사	*	*	*	○	*	*	*	*	*
	주어 부사어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개사+명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개사+명사	?	?	*	○	*	?	*	*	*
수량 ○	주어 ○ 술어 X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동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한정부사+ 동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동사	*	*	*	○	*	?	*	*	*

제3장 ‘只’, ‘就’, ‘才’의 연용 특성

주 어 술 어	주 어 x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형용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	*	*	○	*	*	*	*	*	
	술 어 ○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동사+ 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동사+ 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수사+양사	*	?	?	○	?	○	*	*	*	
	주 어 ○ 술 어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형용사+ 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동사+ 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한정부사+ 동사+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한정 부사+동사+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 형용사+수사+양사	?	?	?	○	?	○	*	*	*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한정부사+ 형용사+수사+양사	?	?	?	○	?	○	*	*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형용사+ 수사+양사	?	?	?	o	?	o	*	*	*	
주 어 부 사 어 x 주 어 x 부 사 어 o 주 어 o 부 사 어 o	주 어 o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개사+ 명사	?	?	*	o	?	*	*	*	*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한정부사+ 개사+명사	?	?	*	o	?	*	*	*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개사+명사	?	?	*	o	?	*	*	*	*	
	부 사 어 x	주 어 x	한정부사+명사+ 한정부사+개사+수사+ 양사+명사	?	?	?	o	?	?	*	*	*
			한정부사+대명사+ 한정부사+개사 +수사+양사+명사	?	?	?	o	?	?	*	*	*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개사+ 수사+양사+명사	?	?	?	o	?	?	*	*	*
	o	부 사 어 o	한정부사+명사+수사+ 양사+명사+한정부사+ 개사+수사+양사+명사	?	?	?	o	?	?	*	*	*
			한정부사+대명사+ 수사+양사+명사+ 한정부사+개사+ 수사+양사+명사	?	?	?	o	?	?	*	*	*
			한정부사+수사+양사+ 명사+한정부사+개사+ 수사+양사+명사	?	?	?	o	?	?	*	*	*
	점수 (o=1, ?=0.5, *=0)			10. 5	10. 5	8	30	9.5	16	0	0	0

<표 15> ‘只’, ‘就’, ‘才’의 비연속적 연용 특성

<표 15>를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只<sub>1</sub>只<sub>2</sub>’는 주어와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둘째, ‘只<sub>1</sub>就<sub>2</sub>’는 주어와 부사어,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셋째, ‘只<sub>1</sub>才<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넷째, ‘就<sub>1</sub>只<sub>2</sub>’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다섯째, ‘就<sub>1</sub>就<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여섯째, ‘就<sub>1</sub>才<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부사어,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형용사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일곱째, ‘才<sub>1</sub>只<sub>2</sub>’, ‘才<sub>1</sub>就<sub>2</sub>’, ‘才<sub>1</sub>才<sub>2</sub>’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없다.

또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sub>1</sub>只<sub>2</sub> > 就<sub>1</sub>才<sub>2</sub> > 只<sub>1</sub>只<sub>2</sub>/只<sub>1</sub>就<sub>2</sub> > 就<sub>1</sub>就<sub>2</sub> > 只<sub>1</sub>才<sub>2</sub>’ 순이다.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就’는 주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就’는 비연속적 연용하는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일 수 있지만, ‘只’는 비연속적 연용하는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기 어렵고, ‘才’는 비연속적 연용하는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일 수 없다. 따라서 ‘才’는 비연속적 연용하는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才<sub>1</sub>只<sub>2</sub>’, ‘才<sub>1</sub>就<sub>2</sub>’, ‘才<sub>1</sub>才<sub>2</sub>’는 모두 사용될 수 없다. 그리고 비연속적 연용하는 첫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就 > 只’ 순이다.

뿐만 아니라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只’와 ‘就’는 술어,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술어만 수식할 수 있고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비연속적 연용하는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就 > 才’ 순이다. 이 외에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한정부사를 비연속적 연용하는 것은 수용도가 높지 않다. 따라서 ‘就’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 > 才 > 就’ 순이다. 이는 ‘就’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수용도가 높기 때문에, 같은 한정부사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只’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就 > 才’ 순이다. 이는 ‘只’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수용도가 원래 높지 않기 때문에, 같은 한정부사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 3.3 소결

본 장에서는 한정부사 ‘只’, ‘就’, ‘才’가 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특성을 고찰하였다. ‘只’, ‘就’, ‘才’가 수량 성분 유무에 따라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연속적, 비연속적 연용 특성을 살펴보고,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를 살펴보았다.

먼저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경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只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둘째, ‘只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 명사 술어,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셋째, ‘就只’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 명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다. 넷째, ‘就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다섯째, ‘才只’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할 수 있거나 수식하기 어렵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여섯째, ‘才就’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명사 술어, 동사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또한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只 > 就才 > 才就 > 才只 > 只就 > 只才’ 순이다.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전연용 능력은 ‘只 > 才 > 就’ 순이며, 후연용 능력은 ‘就 > 才 > 只’ 순이다.

다음으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경우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只<sub>1</sub>只<sub>2</sub>’는 주어와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

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둘째, ‘只<sub>1</sub>就<sub>2</sub>’는 주어와 부사어,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셋째, ‘只<sub>1</sub>才<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할 수 없다. 넷째, ‘就<sub>1</sub>只<sub>2</sub>’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다섯째, ‘就<sub>1</sub>就<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여섯째, ‘就<sub>1</sub>才<sub>2</sub>’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술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와 부사어,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동사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형용사 술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를 수식할 수 없다. 일곱째, ‘才<sub>1</sub>只<sub>2</sub>’, ‘才<sub>1</sub>就<sub>2</sub>’, ‘才<sub>1</sub>才<sub>2</sub>’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든 되지 않든 주어와 술어, 주어와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없다.

또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sub>1</sub>只<sub>2</sub> > 就<sub>1</sub>才<sub>2</sub> > 只<sub>1</sub>只<sub>2</sub>/只<sub>1</sub>就<sub>2</sub> > 就<sub>1</sub>就<sub>2</sub> > 只<sub>1</sub>才<sub>2</sub>’ 순이다. ‘只’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就 > 才’ 순이며, ‘就’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 > 才 > 就’ 순이다.

## 제4장 ‘只’, ‘就’, ‘才’의 특성 해석

본 장에서는 먼저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을 통해,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통사적 특성이 나타난 원인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 4.1 의미변화 과정

먼저 앞의 분석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성분만 수식할 수 있고,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马志纯(1988), 周小兵(1991), 邓根芹(2005) 등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정부사 ‘只’는 예전에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었지만, 점차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려워졌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只’의 의미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런 통사적 특성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只’는 《说文解字》에서 ‘只, 語已詞也.’라고 해석되었다. 즉 ‘只’가 원래 어기사였음을 알 수 있다. 邓慧爱(2010), 奥莉娅(2014) 등 많은 선행 연구에 따르면, 상고(上古) 시대<sup>20)</sup>, 어기사 ‘只’는 문말에 쓰이고, 감탄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20) 본고는 邓慧爱(2010)의 중국어사 시대 분류 기준을 채용하고자 한다. 저자는 先秦에서 西漢까지를 上古시대, 東漢에서 魏晉南北朝까지를 中古시대, 隋唐에서 清까지는 近古시대, 5·4 운동 이후를 현대중국어시대로 분류하였다.

- (116) a. 母也天只! 不谅人只! 《诗经·柏舟》  
어머니야! 하늘이야! 사람의 마음을 믿지 않는구나!  
b. 青春受谢, 白日昭只! 《楚辞·大招》  
사계절이 번갈아 봄이 오니 만물이 소생하는구나!

여기서 ‘只’는 문중에도 쓰일 수 있고, 독립적 실사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7) 乐只君子。《诗经·樛木》  
즐거운 군자.

何乐士(1979)의 《文言虚词浅释》에서는, ‘只’가 여기서 쓰이는 것을 선진(先秦) 고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주로 문중이나 문말에 쓰여 음울적 휴지를 나타내며, 문장의 감정색채를 강화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奥莉娅(2014)에 따르면, 여기서 ‘只’의 용법은 진한(秦漢) 시기 때 점차 사라졌다고 하였다.

乔玉雪(2004)에 따르면, ‘祇’는 선진 시대의 ‘適(適)’를 가차하여 한정성 범위부사로 쓰였는데, ‘祇’가 한정성 범위부사로 쓰이는 용법은 육조(六朝)에서 시작하여 당나라(唐朝) 때 흥성했다고 하였다. 청나라(清朝) 학자 段玉裁는 《说文解字注·只部》에서, ‘宋人詩用只爲祇字. 但也. 今人仍之.’라고 언급하였다. 즉 송나라(宋朝) 때 ‘祇’가 ‘只’로 가차되었다고 본 것이다. 乔玉雪(2004)는 ‘只’와 ‘祇’의 발음이 비슷하고, ‘祇’의 의미가 다양하고 쓰임이 ‘只’보다 복잡하며, 늦어도 당나라 때 ‘祇’가 이미 ‘只’로 가차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당송(唐宋) 시기에는 ‘止’가 ‘只’로 대체되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18) 只想竹林眠。杜甫《示侄佐》  
대나무 숲에서 잠만 자고 싶다.

한정부사 ‘只’의 용법의 유래에 대해, 太田辰夫(1957)도 부사 ‘只’가 남북조(南北朝) 시대에 출현하여 고대중국어의 ‘祇’와 ‘止’를 ‘只’로 잘못 썼다고 보았다. 즉 한정부사 ‘只’는 ‘祇’와 ‘止’의 가차에서 유래한 것이다.

陈迎娣(2012)의 통계에 따르면, 명나라(明朝) 시대의 《逆臣录》에서 범위부사 ‘只’는 전체 범위부사 사용의 8.1%를 차지하였는데, 동작과 관련된 사물을 한정한다고 하였다. 奥莉娅(2014)에 따르면, 명청(明清) 시대의 범위부사 ‘只’는 명사성, 동사성, 형용사성 성분과 수량구를 수식할 수 있고, 어기사 ‘只’는 가차를 통해 부사 ‘只’로 변화하였는데, ‘只’의 허화 정도가 강화되지 않고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부사에서 어기사로 변화하는 허화 현상에 반대되며, 어기사에서 부사로 변화하는 실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张谊生(1996)에 따르면, 교학에서는 부사와 명사의 문법적 특성을 언급할 때 부사와 명사가 서로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쳤다. 심지어는 명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명사와 술어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의 특수한 용법이며, 본고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특별부사’라고 부르고, 수식할 수 없는 부사를 ‘일반부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가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한정부사 ‘只’가 ‘특별부사’에서 ‘일반부사’로 변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只’는 ‘어기사-특별부사-일반부사’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只’의 실화 정도가 강화되었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려워졌다는 원인이다.



다음으로 앞의 분석에 따르면, 한정부사 ‘就’는 체언성 성분, 용언성 성분을 모두 수식할 수 있으며, 주어, 술어,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周小兵(1991), 陈伟琳(1998), 刘立成(2005) 등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정부사 ‘就’는 한정부사 ‘只’보다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더 적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정부사 ‘就’가 예전에는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었지만, 점차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났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就’의 의미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왜 이런 통사적 특성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就’는 《说文·京部》에서 “就，高也，从京从尤，尤，异于凡也。”라고 해석되었다. 즉 ‘就’는 원래 동사였는데, ‘높은 곳으로 간다’는 뜻이었다.<sup>21)</sup> ‘다가가다’, ‘접근하다’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19) a. 木受绳则直，金就砺则利。 《劝学》

나무는 먹줄을 받으면 곧게 되고, 쇠는 숫돌에 갈면 예리해지네.

b. 邂逅不如意，便还就孤。 《赤壁之战》

만일 전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나에게로 돌아와라.

邓慧爱(2013)는 동사 ‘就’가 어떻게 한정부사 ‘就’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한정성 범위부사 ‘就’는 본래의 ‘접근’ 의미에서 주관화 메커니즘을 통해 허화되어, ‘공간적 거리 접근’에서 ‘시간적 접근’으로 발전하였고, 이후 ‘논리적 개념 접근’으로 발전하였다고 지적하였다.

邓慧爱(2010), 奥莉娅(2014)는 범위부사 ‘就’는 근고(近古) 시대에 출현하였다고 보았지만, 徐凤兰(2009)는 위진(魏晋) 시대, 즉 중고(中古) 시대에 출현하였다고 보았다. 徐凤兰(2009)이 든 예들 중에, 다음과 같이 한정부사 ‘就’가 쓰인 예가 있는데, ‘수량이 적음’을 나타내므로, 한정부사 ‘就’가 대략 위진 시대에 이미 출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1) 易正中(2009), 徐凤兰(2009), 邓慧爱(2010), 奥莉娅(2014)를 참고한 해석이다.

(120) 旧律因秦《法经》，就增三篇。《三国文·新律序略》

한율(汉律)은 진나라의 법경을 답습하여 세 편만 증편한다.

奥莉娅(2014)에 따르면, 명나라 초기에 ‘就’는 이미 범위를 한정할 수 있었고, 한정하는 범위 외의 것을 배제함을 나타내는데, 주로 대상, 동작, 상태를 한정하고 그 뒤의 성분을 수식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21) 他的舍人也来打听，你如今就等他一路回去。《逆臣录》

그의 측근도 알아보러 왔으니, 너는 지금 그와 함께 돌아가기만 기다리거라.

陈迎娣(2012)의 통계에 따르면, 명나라 시대에 범위부사 ‘就’는 자주 쓰이지 않았고 《逆臣录》에서 두 번 밖에 출현하지 않았다. 奥莉娅(2014)에 따르면, 명청 시대의 백화소설에서도 ‘就’는 한정성 범위부사로 쓰였는데, 의미적으로 ‘仅’, ‘只’와 비슷하며, 뒤의 동사나 동사구를 수식할 수 있고, 명사나 명사구도 수식할 수 있으며, 절도 수식할 수 있었다.

徐凤兰(2009)에 따르면, 원나라(元朝) 시대에 이르러 부사 ‘就’의 의미는 현대 부사 ‘就’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고 하였다. 저자가 든 예들 중에, 다음과 같이 한정부사 ‘就’가 쓰인 예가 있는데, ‘범위 한정’을 나타내므로, 현대 한정부사 ‘就’의 의미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22) a. 那马劳苦了的时候，不要就饮水。《老乞大》

그 말이 고달플 때 물만 마시게 하지 마라.

b. 路又不远，我就在这里等他罢。《老乞大》

길이 멀지 않으니 나는 여기서만 그를 기다릴게.

奥莉娅(2014)에 따르면, 범위부사 ‘就’는 근고(近古) 시대에 이르러서야 출현했지만, 널리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앞에서 분석했듯이,

범위부사 ‘就’는 현대중국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易正中(2009)에 따르면, ‘就’는 동사에서 부사, 개사, 그리고 접속사로의 변화를 거쳤고, 부사 ‘就’의 허화 정도는 강화되었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就’는 동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就’의 허화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就’의 의미가 앞으로 더 허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났다는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분석에 따르면, 한정부사 ‘才’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항상 수량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才’의 의미변화 과정을 살펴보면서 왜 이런 통사적 특성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해석하고자 한다.

‘才’는 《说文·才部》에서 “才，艸木之初也。”라고 해석되었다. 즉 ‘才’는 원래 명사였는데, ‘갓 태어난 초목’이라는 뜻이었다. 徐凤兰(2009)에 따르면, ‘才’의 갑골문자는 형태적으로 ‘적을 막다’는 의미를 나타냈는데, 은유 기제를 통해 ‘적을 막은 병사들에게 재능이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고, 나아가 ‘재능’이라는 의미가 생겨났다. ‘才’는 선진, 양한(兩漢) 시대에 이미 ‘재능’, ‘능력’, ‘재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3) a. 夫卜梁倚有圣人之才而无圣人之道，我有圣人之道而无圣人之才，吾欲以教之，庶几其果为圣人乎！ 《庄子》  
복량의는 성인의 재능이 있으나 성인의 도덕이 없고, 나는 성인의 도덕이 있으나 성인의 재능이 없으니, 내가 그를 가르치고자 하면, 아마 그는 과연 성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b. 以子之才，而善事襄子，襄子必近幸子。 《战国策》  
당신의 재능으로 양자를 잘 섬기면, 양자는 분명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당신을 총애할 것이다.

‘纒’는 《说文·糸部》에서 “纒, 淺也.”라고 해석되었다. 현대중국어에서 ‘纒’는 ‘才’의 변체로만 사용된다. 하지만 ‘才’의 의미변화를 연구하려면, ‘纒(財, 裁)’도 같이 연구해야 한다. 奧莉婭(2014)에 따르면, ‘纒(財, 裁)’는 언어가 변천하면서 ‘才’로 가차되었고, 동한(東漢) 시대에 수량을 한정하는 범위부사 ‘才(纒, 財, 裁)’가 이미 나타났으며, 이후 여러 시대에서 계속 사용되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에 ‘才’는 동사성 술어 앞에 쓰이고 ‘仅仅’, ‘只’와 비슷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4) a. 比至郁成, 士財有数千, 皆饥罢。《汉书·李广利传》  
 울성에 이르자 병사는 수천 명만 있었고 모두 배가 고팠다.
- b. 孤志在立事, 不得不屈意于公路, 求索故兵。  
 再往纒得千余人耳。《三国志·吴书·太史慈传》  
 나는 큰일을 이루려는 포부를 가지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공로에게 굴복하여 옛 군사를 되찾으려 하였으나, 두 차례에  
 걸쳐 겨우 천여 명을 얻었다.

徐凤兰(2009)에 따르면, 한나라(汉朝), 육조 시대에 부사 ‘才’는 주로 한정 의미를 나타내는데, ‘수량이 적음’, ‘정도가 약함’을 강조하며, 당송 시대에도 여전히 ‘수량이 적음’, ‘정도가 약함’을 의미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25) a. 至于服从官役, 才五千馀家。《晋书·陶璜传》  
 관역에 복종하는 것은 겨우 5천여 집이다.
- b. 河内一郡, 尝调缣素绮縠才八万余匹, 今乃十五万匹。  
 하내군에서 예전에 견직물을 징발한 것이 겨우 8만여  
 필이었는데, 지금은 비로소 15만 필이다。《后汉·朱穆传》

奥莉娅(2014)에 따르면, 명청 소설에서 ‘才’는 동사, 동사구, 수량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지만, 수식한 동사 구조에는 수량 성분이 반드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원나라(元朝) 시대에 ‘才’는 한정성 범위부사로서 동사구를 수식하고, 뒤의 수량사나 명사를 의미지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才’는 동한 시대에 ‘才’와 ‘纔’의 발음이 비슷해서 ‘纔’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才’는 원래 명사였고, ‘재능’이라는 구체적인 의미를 가졌었는데, 은유 기제를 통해 ‘드물다’라는 추상적 의미로 발전하였다. 즉 구체적인 명사에서 추상적인 부사로 허화되었다.

요약하면, ‘才’는 명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才’의 의미가 ‘재능’에서 ‘드물다’로 변화하였으며, ‘수량 한정’의 의미가 생겨났다. 이것이 한정부사 ‘才’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항상 수량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원인이다.

## 4.2 의미기능 차이

먼저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就’는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只’는 범위를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고, 한정부사 ‘才’는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본고는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기능을 ‘유일성(唯一性)’이라고 하고자 한다<sup>22)</sup>. 둘째, 한정부사 ‘就’는 수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수량을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고, 한정부사 ‘只’는 수량을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본고는 수량을 한정하는 의미기능을 ‘한량성(限量性)’이라고 하고자 한다<sup>23)</sup>.

22) 刘立成(2004)은 ‘单(单单)’, ‘但’, ‘独(独独)’, ‘光(光光)’, ‘仅(仅仅)’, ‘就’, ‘就是’, ‘偏(偏偏)’, ‘惟/唯’, ‘惟/唯独’, ‘只’, ‘只是’, ‘专’, ‘专门’을 ‘유일성 범위부사’로 분류하였다. 주기하(2014, 2015)는 시간부사 ‘就’와 접속부사 ‘就’는 ‘연결 기능’을 지니고 있고 범위부사 ‘就’와 어기부사 ‘就’는 ‘유일화 기능’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허설영(2015)은 범위부사 ‘就’가 ‘유일성’ 자질을 지니고 있어 배타적인 기능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23) 刘立成(2004)은 ‘한정성 부사’를 ‘수량 한정성 부사’와 ‘유일성 범위 한정부사’로 분류하였다. ‘한량성’은 ‘수량 한정성’을 의미한다.

## 제4장 ‘只’, ‘就’, ‘才’의 특성 해석

다음으로 앞의 분석을 통해,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화용적 특성을 알 수 있다. 즉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한정부사 ‘才’도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한정부사 ‘只’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지 않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할 수 없다. 본고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기능을 ‘양태성(情态性)’이라고 하고자 한다<sup>24)</sup>. 그리고 범위를 한정할 때의 양태성을 ‘양태성<sub>1</sub>’, 수량을 한정할 때의 양태성을 ‘양태성<sub>2</sub>’라고 하고자 한다.

24) Lyons(1977)는 양태(modality)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고 정의하였다. 박재연(2006)은 양태를 명제에 대한 화/청자의 주관적인 한정을 표현하는 문법 범주라고 정의하였다. 박진호(2011)는 양태를 절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명제/사태에 대한 주관적 태도/판단을 나타내는 범주라고 정의하였고, 양태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번호	양태 유형	정의	예시
①	인식 양태 (epistemic modality)	명제의 확실성에 대한 판단, 믿음의 정도(commitment)를 나타냄	확실성(certainty) 개연성(probability) 가능성(possibility)
②	당위 양태 (deontic modality)	사태의 바람직함에 대한 판단을 나타냄. 또는 사태의 발생 책임이나 권리가 사태 내의 특정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의무(obligation) 허락/허용(permission)
③	동적 양태 (dynamic modality)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원인이 사태 내부의 참여자에게 있음을 나타냄	능력(ability) 의도(intention, willingness) 바람(wish)
④	감정 양태 (emotive modality, evaluative modality)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를 나타냄	놀라움, 유감스러움, 아쉬움, 후회, 다행으로 여김, 두려움, 경계심 등
⑤	증거 양태 (evidential modality)	정보의 근원, 입수 경로를 나타냄	직접 경험(direct evidence) 傳聞(hearsay) 추론(inferred)

#### 4.2.1 유일성 및 양태성<sub>1</sub>

지금부터 ‘유일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의 경우를 보자.

- (126) a.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只张三报名了。[63.75%]  
b.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就张三报名了。[95%]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는데, 장삼만 지원했다.  
c. \*大家都 不想报名马拉松, 才张三报名了。[12.5%]

(126)을 살펴보면, (126b)의 ‘就’자문은 ‘다들 마라톤에 지원하고 싶지 않아 하데 장삼만 유일하게 신청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张三’이라는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张三’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127) a.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只我没及格。[66.25%]  
b.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就我没及格。[93.75%]  
우리 반 학우들은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했는데,  
나만 합격하지 못했다.  
c. \*我们班的同学这次考试都及格了, 才我没及格。[6.25%]

(127)을 살펴보면, (127b)의 ‘就’자문은 ‘우리 반 학우들은 이번 시험에 모두 합격했는데 나만 유일하게 합격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我’라는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我’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28) a. ?室友们都睡了, 只张三一个人还在学习。 [70%]  
 b. 室友们都睡了, 就张三一个人还在学习。 [97.5%]  
 룸메이트들은 다 자는데, 장삼 혼자만 공부하고 있다.  
 c. \*室友们都睡了, 才张三一个人还在学习。 [18.75%]

(128)을 살펴보면, (128)의 ‘就’자문은 ‘룸메이트들은 다 자는데 장삼만 유일하게 공부하고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张三一个人’이라는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张三一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29) a. ?爸妈都去上班了, 只我一个人在家。 [66.25%]  
 b. 爸妈都去上班了, 就我一个人在家。 [97.5%]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나 혼자만 집에 있다.  
 c. \*爸妈都去上班了, 才我一个人在家。 [27.5%]

(129)를 살펴보면, (129b)의 ‘就’자문은 ‘부모님은 출근하셔서 나만 유일하게 집에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我一个人’이라는 주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我一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따라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26a)~(129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26c)~(129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只’는 ‘유일성’을 가지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sup>25)</sup>이고,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다.

다음으로,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의 경우를 보자.

25) [?유일성]은 유일성을 가지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130) a. ?拿到奖学金的只张三。 [55%]  
b. 拿到奖学金的就张三。 [93.75%]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장삼밖에 없다.  
c. \*拿到奖学金的才张三。 [26.25%]

(130)을 살펴보면, (130b)의 ‘就’자문은 ‘장삼만 유일하게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张三’이라는 명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张三’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131) a. ?不知道这件事的只我。 [53.75%]  
b. 不知道这件事的就我。 [91.25%]  
 이 일을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c. \*不知道这件事的才我。 [25%]

(131)을 살펴보면, (131b)의 ‘就’자문은 ‘나만 유일하게 이 일을 몰랐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는 ‘我’라는 명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我’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따라서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30a), (131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130c), (131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只’는 ‘유일성’을 가지기 어렵고, 한정부사 ‘才’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고,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다.

두 번째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의 경우를 보자.

- (132) a. 张三只做饭，不洗碗。 [97.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b. 张三就做饭，不洗碗。 [78.7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c. \*张三才做饭，不洗碗。 [28.75%]

(132)를 살펴보면, (132a)의 ‘只’자문과 (132b)의 ‘就’자문은 ‘장삼이 유일하게 하는 집안일은 요리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做饭’이라는 동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做饭’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33) a. 没毕业的还剩几个人？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毕业的只剩张三一个人了。 [97.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b-2. 没毕业的就剩张三一个人了。 [96.2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b-3. \*没毕业的才剩张三一个人了。 [46.25%]

(133)을 살펴보면, (133b-1)의 ‘只’자문과 (131b-2)의 ‘就’자문은 ‘장삼만 유일하게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剩张三一个人’이라는 동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张三一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34) a. 没交报告书的还差几个人?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몇 명이나 남았어?

b-1. 没交报告书的只差我一个人。[97.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b-2. 没交报告书的就差我一个人。[96.2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b-3. ?没交报告书的才差我一个人。[51.25%]

(134)를 살펴보면, (134b-1)의 ‘只’자문과 (134b-2)의 ‘就’자문은 ‘나만 유일하게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差我一个人’이라는 동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我一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따라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32c), (133b-3), (134b-3)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才’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지만,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다.

그렇다면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모두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한정부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1</sub>’로 구별할 수 있다. (132a)의 ‘只’자문은 ‘장삼이 유일하게 하는 집안일은 요리하는 것이다’, (133b-1)의 ‘只’자문은 ‘장삼만 유일하게 아직 졸업하지 못했다’, (134b-1)의 ‘只’자문은 ‘나만 유일하게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132b), (133b-2), (134b-2)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132b)의 ‘就’자문은 ‘장삼은 그다지 부지런하지 않다’는 화자의 ‘불만’, (133b-2)의 ‘就’자문은 ‘장삼이 불쌍하다’는 화자의 ‘동정’, (134b-2)의 ‘就’자문은 ‘나는 가능한 한 빨리 보고서를 제출해야겠다’는 화자의 ‘조급’ 등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한다. 따라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다.

세 번째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의 경우를 보자.

(135) a. 他只好色, 不花心。 [9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b. 他就好色, 不花心。 [87.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c. \*他才好色, 不花心。 [36.25%]

(135)를 살펴보면, (135a)의 ‘只’자문과 (135b)의 ‘就’자문은 ‘그의 유일한 단점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好色’라는 형용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好色’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35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才’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지만,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다.

그렇다면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모두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한정부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1</sub>’로 구별할 수 있다. (135a)의 ‘只’자문은 ‘그의 유일한 단점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평가를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135b)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그는 나쁜 남자가 아니다’라는 화자의 긍정적 평가를 내포한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136) a. 张三只在图书馆学习。 [9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b. 张三就在图书馆学习。 [81.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c. ?张三才在图书馆学习。 [52.5%]

(136)을 살펴보면, (136a)의 ‘只’자문과 (136b)의 ‘就’자문은 ‘장삼은 유일하게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在图书馆’이라는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图书馆’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대명사’의 경우를 보자.

- (137) a. 张三只向他请教。 [97.5%]  
장삼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b. 张三就向他请教。 [91.25%]  
장삼은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c. ?张三才向他请教。 [70%]

(137)을 살펴보면, (137a)의 ‘只’자문과 (137b)의 ‘就’자문은 ‘장삼은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向他’라는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他’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38) a.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只比张三一个人矮。 [9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b.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就比张三一个人矮。 [92.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c.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才比张三一个人矮。 [66.25%]

(138)을 살펴보면, (138a)의 ‘只’자문과 (138b)의 ‘就’자문은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유일하게 장삼보다 작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比张三一个人’이라는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张三一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39) a. 我只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93.7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  
 b. 我就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9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  
 c. ?我才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70%]

(139)를 살펴보면, (139a)의 ‘只’자문과 (139b)의 ‘就’자문은 ‘나는 유일하게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냐?’는 의미를 포함한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对你们两个人’이라는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고, ‘你们两个人’ 외의 모든 범위를 배제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36c)~(139c)의 ‘才’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才’는 ‘유일성’을 가지지 않는다. 즉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지만,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이다.

그렇다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모두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두 한정부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1</sub>’로 구별할 수 있다. (136a)의 ‘只’자문은 ‘장삼은 유일하게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137a)의 ‘只’자문은 ‘장삼은 유일하게 그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138a)의 ‘只’자문은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유일하게 장삼보다 작다’, (139a)의 ‘只’자문은 ‘나는 유일하게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지 않는다. 그러나 (136b)~(139b)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136b)의 ‘就’자문은 ‘장삼은 학습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다’는 화자의 부정적 평가, (137b)의 ‘就’자문은 ‘장삼은 그 사람 외의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화자의 부정적 평가, (138b)의 ‘就’자문은 ‘그의 키가 매우 크다’는 화자의 긍정적 평가, (139b)의 ‘就’자문은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부정적 평가를 내포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양태성<sub>1</sub>]이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 ‘就’는 모두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只’와 ‘就’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 ‘只就’와 ‘就只’가 모두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40) a. 张三就只做饭, 不洗碗。 [86.25%]  
장삼은 요리만 할 뿐이고, 설거지는 하지 않는다.
- b. 没毕业的就只剩张三一个人了。 [85%]  
아직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장삼 혼자만 남았어.
- c. 没交报告书的就只差我一个人。 [91.25%]  
아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어.  
(동사 술어)
- d. 他就只好色, 不花心。 [76.25%]  
그는 단지 여색을 좋아할 뿐이고, 바람은 피우지 않는다.  
(형용사 술어)
- e. 张三就只在图书馆学习。 [81.25%]  
장삼은 도서관에서만 공부한다.
- f. 张三就只向他请教。 [88.75%]  
장삼은 그에게만 가르침을 청한다.

- g.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就只比张三一个人矮。 [87.5%]  
 그의 키는 반에서 큰 편인데, 그는 장삼보다 작을 뿐이다.
- h. 我就只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92.5%]  
 나는 너희들에게만 이 일을 말했는데, 왜 다들 다 알았나?  
 (부사어)

- (141) a. \*张三只就做饭，不洗碗。 [33.75%]  
 b. ?没毕业的只就剩张三一个人了。 [56.25%]  
 c. ?没交报告书的只就差我一个人。 [52.5%] (동사 술어)
- d. \*他只就好色，不花心。 [25%] (형용사 술어)
- e. \*张三只就在图书馆学习。 [37.5%]  
 f. \*张三只就向他请教。 [38.75%]  
 g. ?他的个子在班里算高的，他只就比张三一个人矮。 [52.5%]  
 h. ?我只就对你们两个人说过这件事，怎么大家都知道了？ [55%]  
 (부사어)

(140), (141)을 살펴보면, (140a)~(140h)의 ‘就只’자문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41b), (141c), (141g), (141h)의 ‘只就’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따라서 ‘就只’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모두 한정할 수 있지만, ‘只就’는 동사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고 형용사 술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즉 ‘就只’가 ‘只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그렇다면 왜 ‘只’와 ‘就’가 연속적 연용할 때 ‘就只’가 ‘只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을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관적 경향이 강할수록 부사의 위치가 앞으로 간다. 또한 黄河(1990)는 151개 부사들을 분석한 후 부사들이 연용할 때 기본적으로 ‘어기부사 > 시간부사/총괄부사 > 한정부사 >



정도부사 > 부정부사 > 협동부사 > 중복부사 > 방식부사’의 선후 순서를 따라서 나타난다고 제시하였다.<sup>26)</sup> 袁毓林(2002)도 어기부사가 앞에 출현해야 듣는 사람이 인지적으로 정보를 빨리 처리한다고 제시하였다. 崔诚恩(2002)에 따르면, 많은 문법학자들은 ‘어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양태적 의미를 갖는 부사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나 비록 양태(modality)와 어기(mood)는 서로 분리될 수 없고 이들은 모두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며 기능적으로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만, 실제로 양태 범주와 어기 범주 사이에는 차이가 있고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전자는 어휘적 수단이고 후자는 문법적 수단이다. 즉 어기는 넓은 의미에서 양태의 의미를 표현하는 모든 문법적 범주를 가리킨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어기부사는 양태성을 가지고 있으며, 양태성 때문에 위치가 앞으로 간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只’는 양태성을 가지지 않고 한정부사 ‘就’는 양태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只’와 ‘就’가 연속적 연용할 때 ‘就只’가 ‘只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26) 黄河(1990)가 제시한 부사 연용의 사용빈도 선후 순서.

语气副词 > 时间副词/总括副词 > 限定副词 > 程度副词 > 否定副词 > 协同副词 > 重复副词 > 方式副词

语气副词	本来, 大概, 当然, 的确, 究竟, 居然, 幸亏
时间副词	常常, 曾经, 从来, 刚刚, 马上, 仍然, 已经
总括副词	都, 全, 一概, 统统
限定副词	不过, 才, 光, 仅仅, 只, 就
程度副词	非常, 更加, 很, 及其, 稍微, 太, 挺, 最
否定副词	不
协同副词	一块儿, 一起, 一齐, 一同.
重复副词	重复, 反复, 屡次, 再, 又, 再三, 重.
方式副词	白, 分别, 亲自, 偷偷, 逐步, 逐渐, 逐个

#### 4.2.2 한량성 및 양태성<sub>2</sub>

지금부터 ‘한량성’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먼저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 (142) a.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只五百, 根本不够花。 [57.5%]  
 b.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就五百, 根本不够花。 [9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c.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才五百, 根本不够花。 [92.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142)를 살펴보면, (142b)의 ‘就’자문과 (142c)의 ‘才’자문은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五百’라는 주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 (143) a. ?这学期选了五门课, 只一门得了A+。 [73.75%]  
 b. 这学期选了五门课, 就一门得了A+。 [9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c. 这学期选了五门课, 才一门得了A+。 [81.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143)을 살펴보면, (143b)의 ‘就’자문과 (143c)의 ‘才’자문은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一门’이라는 주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44) a.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只一个学生考满分。[72.5%]  
b.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就一个学生考满分。[95%]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c.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才一个学生考满分。[90%]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144)를 살펴보면, (144b)의 ‘就’자문과 (144c)의 ‘才’자문은 ‘내가 가르치는 반에 50명의 학생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一个学生’이라는 주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는 ‘한량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42a)~(144a)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只’는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즉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다.

그렇다면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한정부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2</sub>’로 구별할 수 있다. (142b)~(144b)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42b)의 ‘就’자문은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주신 용돈이 많지 않다’를, (143b)의 ‘就’자문은 ‘내가 이번 학기에 A+를 받은 과목이 많지 않다’를, (144b)의 ‘就’자문은 ‘내가 가르치는 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많지 않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142c)~(144c)의 ‘才’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42c)의 ‘才’자문은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주신 용돈이 매우 적다’, (143c)의 ‘才’자문은 ‘내가 이번 학기에 A+를 받은 과목이 매우 적다’, (144c)의 ‘才’자문은 ‘내가 가르치는 반에 만점을 받은 학생이 매우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

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주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가 다르고,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 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다.

다음으로,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로,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의 경우를 보자.

(145) a. 这支钢笔多少钱?

이 만년필은 얼마야?

b-1. \*这支钢笔只二十。[38.75%]

b-2. 这支钢笔就二十。[88.75%]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b-3. 这支钢笔才二十。[90%]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145)를 살펴보면, (145b-2)의 ‘就’자문과 (145b-3)의 ‘才’자문은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二十’라는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146) a. 你要写的报告书有几个?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몇 개야?

b-1. \*我要写的报告书只两个。[48.75%]

b-2. 我要写的报告书就两个。[93.75%]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야.

b-3. 我要写的报告书才两个。[92.5%]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야.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146)을 살펴보면, (146b-2)의 ‘就’자문과 (146b-3)의 ‘才’자문은 ‘내가 써야 할 보고서는 겨우 두 개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两个’라는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47) a. 你今天有几门课?

너는 오늘 수업이 몇 개 있니?

b-1. ?我今天只两门课。[70%]

b-2. 我今天就两门课。[9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b-3. 我今天才两门课。[88.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147)을 살펴보면, (147b-2)의 ‘就’자문과 (147b-3)의 ‘才’자문은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两门课’라는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48) a. 报名游泳比赛的有几个人?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b-1. ?报名游泳比赛的只张三一个人。[72.5%]

b-2. 报名游泳比赛的就张三一个人。[95%]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야.

b-3. 报名游泳比赛的才张三一个人。[80%]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야.

(148)을 살펴보면, (148b-2)의 ‘就’자문과 (148b-3)의 ‘才’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은 장삼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张三一个人’이라는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49) a. 这次考满分的有几个人?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있어?

b-1. ?这次考满分的只我一个人。[71.25%]

b-2. 这次考满分的就我一个人。[96.25%]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나 한 명뿐이야.

b-3. 这次考满分的才我一个人。[76.25%]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나 한 명뿐이야.

(149)를 살펴보면, (149b-2)의 ‘就’자문과 (149b-3)의 ‘才’자문은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은 나 한 명뿐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就’와 ‘才’는 ‘我一个人’이라는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는 ‘한량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45b-1)~(149b-1)의 ‘只’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只’는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즉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다.

그렇다면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한정부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2</sub>’로 구별할 수 있다. (145b-2)~(149b-2)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45b-2)의 ‘就’자문은 ‘이 만년필이 비싸지 않다’, (146b-2)의 ‘就’자문은 ‘내가 써야 할 보고서가 많지 않다’, (147b-2)의 ‘就’자문은 ‘나는 오늘 수업이 많지 않다’, (148b-2)의 ‘就’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이 많지 않다’, (149b-2)의 ‘就’자문은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145b-3)~(149b-3)의 ‘才’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45b-3)의

‘才’자문은 ‘이 만년필이 매우 싸다’, (146b-3)의 ‘才’자문은 ‘내가 써야 할 보고서가 매우 적다’, (147b-3)의 ‘才’자문은 ‘나는 오늘 수업이 매우 적다’, (148b-3)의 ‘才’자문은 ‘수영 대회에 신청한 사람이 매우 적다’, (149b-3)의 ‘才’자문은 ‘이번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이 매우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명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가 다르고,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다.

두 번째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150) a. 这本书卖了多少钱?

이 책은 얼마에 팔았어?

b-1. 这本书只卖了二十。[96.2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2. 这本书就卖了二十。[88.7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b-3. 这本书才卖了二十。[9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150)을 살펴보면, (150b-1)의 ‘只’자문, (150b-2)의 ‘就’자문과 (150b-3)의 ‘才’자문은 모두 ‘이 책은 겨우 20위안 팔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花二十’라는 동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151) a. 你这次去釜山玩了几天?

너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며칠 놀았어?

b-1. 我这次去釜山只玩了三天。[97.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 b-2. 我这次去釜山就玩了三天。 [9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 b-3. 我这次去釜山才玩了三天。 [92.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151)을 살펴보면, (151b-1)의 ‘只’자문, (151b-2)의 ‘就’자문과 (151b-3)의 ‘才’자문은 모두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玩三天’이라는 동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동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52) a. 你申请了几所学校?  
너는 학교를 몇 개 신청했어?
- b-1. 我只申请了一所学校。 [97.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 b-2. 我就申请了一所学校。 [9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 b-3. 我才申请了一所学校。 [80%]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152)를 살펴보면, (152b-1)의 ‘只’자문, (152b-2)의 ‘就’자문과 (152b-3)의 ‘才’자문은 모두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申请一所学校’라는 동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다. 즉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기능은 모두 [+한량성]이다.



그렇다면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 한정부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2</sub>’로 구별할 수 있다. (150b-1)의 ‘只’자문은 ‘이 책은 겨우 20위안 썼다’, (151b-1)의 ‘只’자문은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다’, (152b-1)의 ‘只’자문은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150b-2)~(152b-2)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50b-2)의 ‘就’자문은 ‘이 책을 판 가격이 비싸지 않다’, (151b-2)의 ‘就’자문은 ‘내가 이번에 부산에서 논 시간이 길지 않다’, (152b-2)의 ‘就’자문은 ‘내가 신청한 학교가 많지 않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150b-3)~(152b-3)의 ‘才’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50b-3)의 ‘才’자문은 ‘이 책을 판 가격이 매우 싸다’, (151b-3)의 ‘才’자문은 ‘내가 이번에 부산에서 논 시간이 매우 짧다’, (152b-3)의 ‘才’자문은 ‘내가 신청한 학교가 매우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동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다.

세 번째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의 경우를 보자.

(153) a. 听说超市促销, 牛肉便宜了多少钱?

슈퍼마켓에서 할인한다고 들었는데, 소고기가 얼마 싸졌어?

b-1. 牛肉只便宜了十五。[9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2. 牛肉就便宜了十五。[93.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b-3. 牛肉才便宜了十五。[88.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153)을 살펴보면, (153b-1)의 ‘只’자문, (153b-2)의 ‘就’자문과 (153b-3)의 ‘才’자문은 모두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便宜十五’라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의 경우를 보자.

(154) a. 比起上次的考试分数，你这次的考试分数高了多少分？

지난번 시험 점수에 비해 이번 시험 점수가 몇 점이나 올랐어?

b-1. 我这次的考试分数只高了七分。[95%]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b-2. 我这次的考试分数就高了七分。[90%]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b-3. 我这次的考试分数才高了七分。[88.75%]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어.

(154)를 살펴보면, (154b-1)의 ‘只’자문, (154b-2)의 ‘就’자문과 (154b-3)의 ‘才’자문은 모두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高七分’이라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55) a. 你来得有点晚。

네가 좀 늦게 왔어.

b-1. 我只晚了一个小时。[9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2. 我就晚了一个小时。[91.2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b-3. 我才晚了一个小时。[9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155)를 살펴보면, (155b-1)의 ‘只’자문, (155b-2)의 ‘就’자문과 (155b-3)의 ‘才’자문은 모두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晚一个小时’라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56) a. 听说多了几个申请旁听课的人。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나 늘어났다고 들었어.

b-1. 申请旁听课的只多了张三一个人。[96.25%]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2. 申请旁听课的就多了张三一个人。[92.5%]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b-3. 申请旁听课的才多了张三一个人。[90%]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156)을 살펴보면, (156b-1)의 ‘只’자문, (156b-2)의 ‘就’자문과 (156b-3)의 ‘才’자문은 모두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多张三一个人’이라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형용사+대명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157) a. 听说少了几个报名补习班的人。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줄어들었다고 들었어.

b-1. 报名补习班的只少了我一个人。[9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2. 报名补习班的就少了我一个人。[96.2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b-3. 报名补习班的才少了我一个人。[8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157)을 살펴보면, (157b-1)의 ‘只’자문, (157b-2)의 ‘就’자문과 (157b-3)의 ‘才’자문은 모두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少我一個人’이라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즉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기능은 모두 [+한량성]이다.

그렇다면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 ‘就’, ‘才’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세 한정부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2</sub>’로 구별할 수 있다. (153b-1)의 ‘只’자문은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다’, (154b-1)의 ‘只’자문은 ‘내 이번 시험 점수가 겨우 7점 올랐다’, (155b-1)의 ‘只’자문은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다’, (156b-1)의 ‘只’자문은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다’, (157b-1)의 ‘只’자문은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153b-2)~(157b-2)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53b-2)의 ‘就’자문은 ‘소고기가 많이 싸지지 않았다’, (154b-2)의 ‘就’자문은 ‘내 이번 시험 점수가 많이 높아지지 않았다’, (155b-2)의 ‘就’자문은 ‘나는 많이 늦지 않았다’, (156b-2)의 ‘就’자문은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157b-2)의 ‘就’자문은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리고 (153b-3)~(157b-3)의 ‘才’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153b-3)의 ‘才’자문은 ‘소고기가 매우 적게 싸졌다’, (154b-3)의 ‘才’자문은 ‘내 이번 시험 점수가 매우 조금 높아졌다’, (155b-3)의 ‘才’자문은 ‘나는 매우 조금 늦었다’, (156b-3)의 ‘才’자문은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매우 조금 늘어났다’, (157b-3)의 ‘才’자문은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매우 조금 줄어들었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형용사 술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다.

마지막으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只/就/才+개사+수사+양사+명사’의 경우를 보자.

- (158) a. 张三只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98.75%]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
- b. 张三就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95%]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
- c. ?张三才从一个方面分析了问题, 不够全面。[6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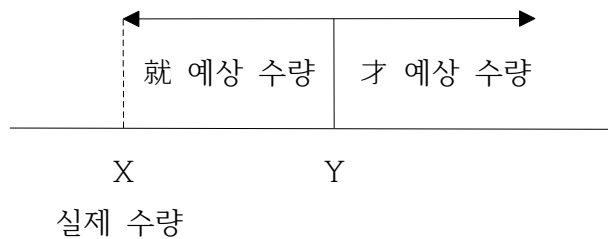
(158)을 살펴보면, (158a)의 ‘只’자문과 (158b)의 ‘就’자문은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을 뿐이고 전면적이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한정부사 ‘只’와 ‘就’는 ‘从一个方面’이라는 부사어의 수량을 한정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158c)의 ‘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한정부사 ‘才’는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즉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지만,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한량성]이다.

그렇다면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只’와 ‘就’는 모두 ‘한량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 두 한정부사를 구별할 수 있을까? 이는 ‘양태성<sub>2</sub>’로 구별할 수 있다. (158a)의 ‘只’자문은 ‘장삼은 한 측면에서만 문제를 분석했다’는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고,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지 않는다. (158b)의 ‘就’자문은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만 아니라, ‘측면의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지만,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한량성], [-양태성<sub>2</sub>]이다.

앞에서 분석했듯이, 한정부사 ‘就’와 ‘才’가 모두 ‘한량성’과 ‘양태성’을 가지는 경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가 다르다. 지금부터 한정부사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가 어떻게 다를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马真(1981)에 따르면, ‘就’는 화자가 ‘실제 수량이 많지 않다’고 여기는 것을 나타내지만, ‘才’는 화자가 ‘실제 수량이 매우 적다’고 여기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sup>27)</sup> 또한 周守晋(2004)에 따르면,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하는 ‘就’와 ‘才’가 서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는 문장이 단지 ‘부족함’을 나타내는지, 아니면 ‘중점’과 ‘기점’의 차이에 중점을 두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 차이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就’와 ‘才’의 주관적 심리 상태 차이

‘就’자문은 예상 수량이 최대 Y이고, 실제 수량이 X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이 가장 많은 예상 수량에 못 미쳤지만,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억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부사 ‘就’의 예상 수량은 ‘중점’이 있고, 화자가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며, ‘억울’이나 ‘타협’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才’자문은 예상 수량이 최소 Y이고, 실제 수량이 X이기 때문에, 실제 수량이 가장 적은 예상 수량에도 못 미쳤고, 차이가 매우 크게 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정부사 ‘才’의 예상 수량은 ‘기점’이 있고, 화자가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며, ‘불만’이나 ‘원망’의 태도를 나타낸다.

27) 周守晋(2004) 재인용.

马真(1981)指出, “就”表示在说话人看来并不多, “才”表示在说话人看来太少了.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就’, ‘才’가 모두 주어,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就’와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 ‘就才’와 ‘才就’가 모두 주어,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59) a.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 就才五百, 根本不够花。 [86.25%]  
아버지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용돈 500원을 주셨는데,  
500만으로는 도저히 쓰기 부족하다.

b. 这学期选了五门课, 就才一门得了A+。 [82.5%]  
이번 학기에 다섯 과목을 선택했는데, 한 과목만 A+를 받았다.

c.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 就才一个学生考满分。 [75%]  
반에 50명이 있는데, 한 학생만 만점을 받았다.

(주어)

d. 这支钢笔就才二十。 [87.5%]

이 만년필은 겨우 20위안이야.

e. ?我要写的报告书就才两个。 [70%]

f. 我今天就才两门课。 [75%]

나는 오늘 수업이 두 개밖에 없어.

g. ?报名游泳比赛的就才张三一个人。 [66.25%]

h. ?这次考满分的就才我一个人。 [70%]

(명사 술어)

i. 这本书就才卖了二十。 [78.75%]

이 책은 겨우 20위안에 팔았어.

j. 我这次去釜山就才玩了三天。 [81.25%]

나는 이번에 부산에 가서 3일만 놀았어.

k. 我就才申请了一所学校。 [77.5%]

나는 한 학교만 신청했어.

(동사 술어)

제4장 ‘只’, ‘就’, ‘才’의 특성 해석

- l. 牛肉就才便宜了十五。 [7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 m. 我这次的考试分数就才高了七分。 [81.25%]  
내 이번 시험 점수는 겨우 7점 밖에 안 올랐어.
- n. 我就才晚了一个小时。 [83.75%]  
나는 겨우 한 시간 늦었어.
- o. 申请旁听课的就才多了张三一个人。 [80%]  
청강을 신청한 사람이 장삼 한 명만 늘어났을 뿐이야.
- p. 报名补习班的就才少了我一个人。 [75%]  
학원에 등록한 사람이 나 한 명만 줄어들었을 뿐이야.  
(형용사 술어)

- (160) a. ?爸爸这个月给了我五百零花钱，才就五百，根本不够花 [63.75%]  
b. ?这学期选了五门课，才就一门得了A+。 [67.5%]  
c. ?我教的班里有五十个学生，才就一个学生考满分。 [61.25%]  
(주어)

- d. ?这支钢笔才就二十。 [73.75%]
- e. ?我要写的报告书才就两个。 [53.75%]
- f. ?我今天才就两门课。 [53.75%]
- g. \*报名游泳比赛的才就张三一个人。 [48.75%]
- h. ?这次考满分的才就我一个人。 [58.75%] (명사 술어)

- i. ?这本书才就卖了二十。 [63.75%]
- j. ?我这次去釜山才就玩了三天。 [63.75%]
- k. ?我才就申请了一所学校。 [63.75%] (동사 술어)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l. ?牛肉才就便宜了十五。[56.25%]
- m. ?我这次的考试分数才就高了七分。[60%]
- n. ?我才就晚了一个小时。[61.25%]
- o. ?申请旁听课的才就多了张三一个人。[60%]
- p. ?报名补习班的才就少了我一个人。[55%] (형용사 술어)

(159), (160)을 살펴보면, (159e), (159g), (159h)의 ‘就才’자문은 부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60g)의 ‘才就’자문은 비문법적인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就才’는 주어,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고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지만, ‘才就’는 주어,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명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다. 즉 ‘就才’가 ‘才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그렇다면 왜 ‘就’와 ‘才’가 연속적 연용할 때 ‘就才’가 ‘才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을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 범위가 넓을수록 부사의 위치가 앞으로 간다. 한정부사 ‘就’의 의미 범위가 한정부사 ‘才’의 의미 범위보다 더 넓기 때문에, ‘就’와 ‘才’가 연용할 때 ‘就’가 ‘才’ 앞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고,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며, ‘억울’, ‘타협’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한정부사 ‘才’는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하며,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그 외에, 祁伟伟(2021)에 따르면, 현대중국어 담화에서 ‘就’는 화자가 어떤 사실을 더욱 강조하거나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王群(2005)은 ‘就’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 기타 배타)-확신’을 나타내지만, ‘才’가 뒤의 성분을 의미지향할 때 ‘시간의 짧음-한정 의미(소량)’을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종합하면 한정부사 ‘就’의 양태성은 한정부사 ‘才’의 양태성보다 더 풍

부하다. 또한 한정부사 ‘就’는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才’ 앞에 출현하여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인할 수 있지만, 한정부사 ‘才’는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 ‘就’ 앞에 출현하여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적다’는 것을 강조하고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한정부사 ‘才’는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에서 ‘就’ 앞에 출현하여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적다’는 것을 불만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就’와 ‘才’가 연속적 연용할 때 ‘就才’가 ‘才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위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 ‘才’가 모두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只’와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 ‘只才’와 ‘才只’가 모두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161) a. ?这本书才只卖了二十。 [57.5%]  
 b. ?我这次去釜山才只玩了三天。 [67.5%]  
 c. ?我才只申请了一所学校。 [61.25%] (동사 술어)
- d. 牛肉才只便宜了十五。 [76.25%]  
 소고기가 겨우 15위안 싸졌어.
- e. 我这次的考试分数才只高了七分。 [75%]  
 내 이번 시험 점수는 겨우 7점 밖에 안 올랐어.
- f. ?我才只晚了一个小时。 [62.5%]  
 g. ?申请旁听课的才只多了张三一个人。 [61.25%]  
 h. ?没报名补习班的才只少了我一个人。 [56.25%] (형용사 술어)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162) a. ?这本书只才卖了二十。 [50%]  
b. ?我这次去釜山只才玩了三天。 [56.25%]  
c. ?我只才申请了一所学校。 [50%] (동사 술어)  
d. ?牛肉只才便宜了十五。 [61.25%]  
e. ?我这次的考试分数只才高了七分。 [61.25%]  
f. ?我只才晚了一个小时。 [67.5%]  
g. ?申请旁听课的只才多了张三一个人。 [56.25%]  
h. ?报名补习班的只才少了我一个人。 [58.75%] (형용사 술어)

(161), (162)를 살펴보면, (161d), (161e)의 ‘才只’자문은 자연스러운 문장이고 나머지 예문들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162)의 ‘只才’자문은 모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다. 따라서 ‘才只’는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할 수 있거나 한정하기 어렵고 동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지만, ‘只才’는 동사 술어, 형용사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즉 ‘才只’가 ‘只才’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그렇다면 왜 ‘只’와 ‘才’가 연속적 연용할 때 ‘才只’가 ‘只才’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을까? 이는 ‘只’와 ‘就’가 연속적 연용할 때 ‘就只’가 ‘只就’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은 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한정부사 ‘只’가 양태성을 가지지 않고 한정부사 ‘才’가 양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只’와 ‘才’가 연속적 연용할 때 ‘才只’가 ‘只才’보다 사용빈도가 더 높다.

위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6>과 같다.

제4장 ‘只’, ‘就’, ‘才’의 특성 해석

의미기능		只	就	才	
유일성	주어	?	+	-	
	술어	명사	?	+	-
		동사	+	+	-
		형용사	+	+	-
	부사어	+	+	-	
양태성 <sub>1</sub>	주어	∅	+	∅	
	술어	명사	∅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화자의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	∅
		동사	-		∅
		형용사	-		∅
	부사어	-	∅		
한량성	주어	?	+		+
	술어	명사	?	+	+
		동사	+	+	+
		형용사	+	+	+
	부사어	+	+	?	
양태성 <sub>2</sub>	주어	∅	+	+	
	술어	명사	∅	예상 수량에 ‘종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 ‘억울’, ‘타협’, ‘확신’의 주관적 태도	예상 수량에 ‘기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
		동사	-		
		형용사	-		
	부사어	-	∅		

<표 16>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

<표 16>을 통해 다음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지만,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 유일성과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무슨 성분을 수식하던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다. 셋째,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 [+양태성<sub>2</sub>]이지만,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량성과 양태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한정부사 ‘就’의 양태성은 한정부사 ‘才’의 양태성보다 더 풍부하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고, 예상 수량에 ‘종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억울’, ‘타협’,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한정부사 ‘才’는 예상 수량에 ‘기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불만’, ‘일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 4.3 소결

본 장에서는 ‘只’, ‘就’, ‘才’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을 통해 이들의 통사적 특성이 나타난 원인을 해석한 다음,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를 고찰함으로써 이들의 의미적, 화용적 특성을 해석하였다.

먼저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只’는 ‘어기사-특별부사-일반부사’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只’의 실화 정도가 강화되었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려워졌다는 원인이다. 둘째, ‘就’는 동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就’의 허화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就’의 의미가 앞으로 더 허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났다는 원인이다. 셋째, ‘才’는 명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才’의 의미가 ‘재능’에서 ‘드물다’로 변화하였으며, ‘수량 한정’의 의미가 생겨났다. 이것이 한정부사 ‘才’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항상 수량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원인이다.

다음으로,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지만,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 유일성과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둘째,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무슨 성분을 수식하든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다. 셋째,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sub>1</sub>], [+양태성<sub>2</sub>]이지만,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량성과 양태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한정부사 ‘就’의 양태성은 한정부사 ‘才’의 양태성보다 더 풍부하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고, 예상 수량에 ‘종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억울’, ‘타협’,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한정부사 ‘才’는 예상 수량에 ‘기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 제5장 결론

본고에서는 먼저 한정부사 ‘只’, ‘就’, ‘才’가 비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통사적, 의미적, 화용적 특성, 연용하는 경우에 갖는 연속적, 비연속적 연용 특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 및 의미기능 차이를 통해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지금까지 진행한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통사적 특성이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 부사어를 수식할 수 있지만, 주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는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라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就’는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지만, 주어, 술어, 부사어를 모두 수식할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才’는 주어를 수식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정부사 ‘才’는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부사어를 수식하기 어렵고,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부사어, 동사와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술어를 수식하기 어렵거나 수식할 수 없으며,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동격구조로 이루어진 주어, 수량 성분이 포함되지 않는 주어, 술어를 수식할 수 없지만, 수량 성분이 포함되는 주어, 술어, 계급 의미와 순서 의미를 나타내는 체언성 술어를 수식할 수 있다.

둘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적 특성이다. 한정부사 ‘只’는 용언성 술어,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주어의 수량, 범위, 체언성 술어의 범위,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체언성 술어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을 한정할 수 없다. 한정부사 ‘就’는 주어, 술어, 부사어의 수량, 범위를 한정할 수 있지만,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하기 어렵다. 한정부사 ‘才’는 주어, 술어의 수량, 체언성 술어의 정도량, 시간량을 한정할 수 있지만, 부사어

의 수량을 한정하기 어렵고, 술어, 부사어의 범위를 한정하기 어렵거나 한정할 수 없으며, 주어의 범위를 한정할 수 없다.

셋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화용적 특성이다. 한정부사 ‘只’는 예상 수량이 없고, 객관적 사실을 진술할 뿐이며,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 심리 상태를 나타내지 않는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평가, 감정을 내포하고,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좀 적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보다 완곡하게 표현한다. 한정부사 ‘才’는 ‘실제 수량이 예상 수량보다 많이 적다’, ‘실제 정도가 예상 정도보다 많이 낮다’, ‘실제 시간이 예상 시간보다 많이 이르다’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매우 솔직하게 표현한다.

넷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연용 특성이다. ‘只’, ‘就’, ‘才’가 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只 > 就才 > 才就 > 才只 > 只就 > 只才’ 순이다.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전연용 능력은 ‘只 > 才 > 就’ 순이며, 후연용 능력은 ‘就 > 才 > 只’ 순이다. 또한 ‘只’, ‘就’, ‘才’가 비연속적 연용하는 한정부사들의 사용빈도는 ‘就<sub>1</sub>只<sub>2</sub> > 就<sub>1</sub>才<sub>2</sub> > 只<sub>1</sub>只<sub>2</sub>/只<sub>1</sub>就<sub>2</sub> > 就<sub>1</sub>就<sub>2</sub> > 只<sub>1</sub>才<sub>2</sub>’ 순이다. ‘只’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就 > 才’ 순이며, ‘就’가 비연속적 연용할 때 첫 번째 한정부사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한정부사의 사용빈도는 ‘只 > 才 > 就’ 순이다.

다섯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변화 과정이다. ‘只’는 ‘어기사-특별부사-일반부사’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只’의 실화 정도가 강화되었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할 수 있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只’는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기 어려워졌다는 원인이다. ‘就’는 동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就’의 허화 정도가 강화되었으며, ‘就’의 의미가 앞으로 더 허화될 것으로 추측된다. 이것이 선행 연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제한적이었지만, 본고의 어감 설문조사에서는 한정부사 ‘就’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늘어났다는 원인이다. ‘才’는 명사에서 한정부사로, 실사에서 허사로의 의미변화 과정을 거쳤고,



‘才’의 의미가 ‘재능’에서 ‘드물다’로 변화하였으며, ‘수량 한정’의 의미가 생겨났다. 이것이 한정부사 ‘才’가 수식할 수 있는 성분이 항상 수량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원인이다.

여섯째, 한정부사 ‘只’, ‘就’, ‘才’의 의미기능 차이이다. 한정부사 ‘只’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지만, 체언성 성분을 수식하는 경우 유일성과 한량성을 가지기 어렵다. 한정부사 ‘就’의 의미기능은 무슨 성분을 수식하든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이다. 한정부사 ‘才’의 의미기능은 [-유일성], [+한량성], [-양태성<sub>1</sub>], [+양태성<sub>2</sub>]이지만, 부사어를 수식하는 경우 한량성과 양태성을 가지기 어렵다. 또한 한정부사 ‘就’의 양태성은 한정부사 ‘才’의 양태성보다 더 풍부하다. 한정부사 ‘就’는 화자의 주관적 긍정, 부정 평가, ‘불만’, ‘동정’, ‘조급’ 등 주관적 감정을 내포하고, 예상 수량에 ‘종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만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억울’, ‘타협’, ‘확신’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내지만, 한정부사 ‘才’는 예상 수량에 ‘기점’이 있고, 실제 수량에 ‘부족’을 느끼는 화자의 주관적 심리 상태를 표현하며, ‘불만’, ‘원망’의 주관적 태도를 나타낸다.

# 참고문헌

## 1. 논문

### 1.1. 국문 논문

- 김선아(2016), 「현대중국어 부사 ‘就’, ‘才’ 소고(小考): 主觀量(Subjective Quantity)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7(4), 277-309.
- 박용진(2003), 「대비분석을 통한 중국어 부사 ‘才’의 어법포인트 연구(1): 모국어 가 한국어인 중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중국어문학논집』 25, 237-254.
- 박용진(2004), 「중국어 부사 ‘才’의 敎學語法 배열 연구(2): 모국어가 한국어인 중국어 학습자의 관점에서」, 『중국어문학논집』 27, 365-381.
- 박재승(2011), 「부사 ‘就/才’와 ‘了’ 간 공기 인가·제한 규칙에 관한 연구」, 『중국학연구』 55, 3-24.
- 박정구(2022), 「정보구조적 관점에서 본 중국어 부사 중의문의 특성: ‘就’, ‘才’, ‘都’, ‘也’가 쓰인 구문을 중심으로」, 『중국학보』 101, 55-85.
- 박진호(2011),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289-322.
- 정비(2019), 「한·중 한정 기능어 대조 연구: 한국어 ‘만, 밖에, 뿐’과 중국어 ‘只, 光, 僅’을 중심으로」, 『중국학논총』 62, 49-69.
- 정명숙(2008), 「어기부사의 기능과 주관성 표현」, 『중국어문학논집』 50, 243-263.
- 조애숙(2012), 「韓日語副詞‘せいせい’와 ‘겨우/고작’의 對照研究」, 『일본어학연구』 35, 419-438.
- 조애숙(2012), 「韓日語副詞‘せいせい’와 ‘겨우/고작’에 대한 고찰」, 『한국일본어학회 학술발표회』, 123-129.
- 주기하(2014), 「현대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 분석」, 『중국학연구』 69, 245-266.
- 허설영(2015), 「현대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 재고(再考)」, 『중국학논총』 49, 25-50.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1.2. 중문 논문

- 祁伟伟(2021), 「浅析副词“就”的主观情态义」, 『今古文创』 45, 110-111.
- 金立鑫(2014), 「“就”与“才”主观量对比研究」, 『语言科学』 13(2), 140-153.
- 戴春霞(2005), 「关于副词“才”的主观量问题初探」, 『语文学刊』 12, 124-125.
- 邓根芹(2005), 「限定性副词“只”的句法、语义、语用分析」, 『嘉兴学院学报』 17(4), 91-96.
- 刘芝(2012), 「现代汉语虚词“只”和“才”的比较分析」, 『东京文学』, 342-343.
- 李运熹(1993), 「范围副词的分类及语义指向」, 『宁波师院学报(社会科学版)』 15(2), 37-43.
- 李宗江(2004), 「语法化的逆过程: 汉语量词的实义化」, 『古汉语研究』 4, 93-106.
- 李范烈(2009), 「现代汉语副词“只”的语义指向考察」, 『安庆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28(8), 109-116.
- 李恩洙(2012), 「“就”和“才”的语义分析」, 『中国语文论丛』 58, 121-142.
- 马志纯(1988), 「从“只有”和“只”+“有”谈起」, 『语文研究』 1, 22-24.
- 孟艳丽(2010), 「“就”“才”及相关副词与句尾“了”共现的不对称现象及成因」, 『现代语文(语言应用研究)』, 51-53.
- 史锡尧(1991), 「副词“才”与“都”、“就”语义的对立和配合」, 『世界汉语教学』 1, 18-22.
- 史天冠(2016), 「副词“才”与“就”辨析: 从语体色彩意义和语法用法方面分析」, 『辽宁广播电视大学学报(文史研究)』 3, 98-99.
- 徐以中(2010), 「“只”与“only”的语义指向及主观性比较研究」, 『语言教学与研究』 6, 62-69.
- 徐采霞·曾检红(2013), 「从“只X”的语法化看副词与连词的关系」, 『上饶师范学院学报』 3(5), 67-69.
- 邵敬敏(1997), 「从“才”看语义与句法的相互制约关系」, 『汉语学习』 3, 3-7.
- 邵琛欣(2015), 「汉语工具宾语的次范畴及其形成机制」, 『语言科学』 14(6), 579-588.
- 习晨(2019), 「现代汉语焦点标记“只”探析」, 『湘南学院学报』 40(6), 77-82.
- 杨立斌(2012), 「现代汉语副词“只”、“才”的分析比较」, 『东京文学』, 144-145.

- 杨晓霞(2013), 「现代汉语副词“才”研究综述」, 『德州学院学报』 29(3), 65-69.
- 杨晓霞(2020), 「现代汉语副词“才”的核心语义特征刍议」, 『现代交际』 16, 84-85.
- 易正中(2009), 「副词“才”的基本义与义项划分」, 『江西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2(6), 67-70.
- 易正中(2009), 「副词“就”的基本义及语法化」, 『长春理工大学学报(高教版)』 4(6), 79-80.
- 王丽君(2000), 「“只”的语义指向及语用特征」, 『喀什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21(1), 58-61.
- 王群(2005), 「试论“才”和“就”语义变化的双向性和不平衡性」, 『语言科学』 6, 18-26.
- 王小柳·孟之天(2005), 「从“就”和“才”的预设区别: “只要”句和“只有”句」, 『佳木斯教育学院学报』 3, 39-41.
- 王淑焕(2008), 「副词“才”与“就”在句法中的异同」, 『宿州教育学院学报』 11(5), 16-19.
- 王楠(2010), 「副词“才”和“就”在基础汉语精读课上的对比教学浅析」, 『文教资料』 9, 31-34.
- 王青云(2012), 「论副词“就”“才”和语气助词“了”的共现」, 『安徽职业技术学院学报』 11(3), 59-62.
- 王冬梅·姜炫先(2015), 「从肯定和叙述的角度看副词“就”“才”和句末“了、的”的共现」, 『语言教学与研究』 6, 45-52.
- 袁毓林(2002), 「多项副词共现的语序原则及其认知解释」, 『语言学论丛』 26, 313-339.
- 张旭(1999), 「估价副词“就”和“才”的语用过程分析」, 『天津师大学报』 2, 70-77.
- 张谊生(1996), 「名词的语义基础及功能转化与副词修饰名词」, 『语言教学与研究』 4, 57-75.
- 张谊生(1996), 「副词的连用类别和共现顺序」,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 86-95.
- 张谊生(1996), 「现代汉语副词“才”的句式与搭配」, 『汉语学习』 3, 10-15.
- 张谊生(1999), 「现代汉语副词“才”的共时比较」, 『上海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28, 45-50.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张谊生(2001), 「论现代汉语的范围副词」, 『上海师范大学学报(社会科学版)』 30(1), 107-113.
- 张振华(2009), 「浅析“只”语义指向谓词性成分的条件及规律」, 『语言应用研究』, 77-78.
- 蒋静忠·魏红华(2010), 「焦点敏感算子“才”和“就”后指的语义差异」, 『语言研究』 30(4), 43-50.
- 钱兢(2005), 「现代汉语范围副词的连用」, 『汉语学习』 2, 47-50.
- 丁青(2015), 「副词“就”与“才”的表义双向性分析」, 『语言文字修辞』, 22-24.
- 齐沪扬·李文浩(2009), 「突显度、主观化与短时义副词“才”」, 『语言教学与研究』 5, 23-30.
- 曹妍(2011), 「副词“就”与“才”的句法结构与语义的关系」, 『语文学刊』 6, 79-80.
- 赵清永·孙刚(2005), 「汉语焦点理论及其在对外汉语教学上的应用」, 『语言文字应用』, 48-50.
- 钟华(2009), 「“才”重读与非重读时语义、语用功能差异」, 『安徽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18(2), 46-50.
- 钟玲萍·朱军(2019), 「汉语范围副词研究的历史、现状与展望」, 『伊犁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37(3), 53-61.
- 左思民(2019), 「副词“就”、“才”再讨论」, 『中国语文论丛』 93, 1-28.
- 周小兵(1991), 「限定副词“只”和“就”」, 『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 8, 92-96.
- 周守晋(2004), 「“主观量”的语义信息特征与“就”、“才”的语义」, 『北京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41(3), 121-131.
- 周士宏(2008), 「从信息结构角度看焦点结构的分类」, 『汉语学习』 5, 35-42.
- 陈小荷(1994), 「主观量问题初探—兼谈副词“就”、“才”、“都”」, 『世界汉语教学』 4, 18-24.
- 陈伟琳(1998), 「限定副词“只”、“就”语义指向辨析」, 『信阳师范学院学报(哲学社会科学版)』 18(4), 78-81.
- 陈荣杰(2005), 「副词“就”和“才”之比较」, 『和田师范专科学校学报(汉文综合版)』 25(3), 136-138.
- 陈迎娣(2012), 「《逆臣录》范围副词研究」, 『淮阴师范学院教育科学论坛』 2, 80-86.

- 陈辰(2017), 「现代汉语焦点标记词“才”“就”的语义解释及其焦点关联特征」, 『乐山师范学院学报』 32(10), 55-63.
- 车慧(2011), 「限定副词“只”、“就”、“才”的句法、语义分析」, 『学理论』 (20), 141-142.
- 沈家煊(2001), 「语言的“主观性”和“主观化”」, 『外语教学与研究(外国语文双月刊)』 33(4), 268-320.
- 彭兵转·魏巍(2022), 「情态视角下的语篇主观性探究」, 『现代英语』 24, 90-93.
- 夏军(2018), 「论副词“只”的场景聚焦用法」, 『中国语文』 2, 195-206.

## 2. 단행본 · 학위논문

### 2.1. 국문 단행본 · 학위논문

- 김혜진(2011), 『현대중국어 ‘只’류 범위부사의 어법특성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류아페이(2020), 『현대중국어 ‘会’의 상, 서법, 시제 기능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마영(2013), 『한국어 양태부사 ‘ 과연(果然)’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명양양(2015), 『현대중국어 ‘T+就’와 ‘了2’의 공기와 출몰현상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 박재연(2006),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태학사.
- 송소맹(2020), 『현대중국어 양태사의 분포와 정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이후인(2015), 『한국어 양태접속부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주기하(2015), 『현대중국어 부사 ‘就’의 의미기능과 문법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 허설영(2013), 『현대중국어 부사 ‘就/才’와 어기조사 ‘了2’의共起관계』,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현대중국어 한정부사 ‘只’, ‘就’, ‘才’ 대조 연구

### 2.2. 중문 단행본·학위논문

- 乔玉雪(2004), 『“祇”“止”“只”的历史替换及相关问题研究』, 河南大学硕士论文.
- 邓思颖(2010), 『形式汉语句法学』, 上海教育出版社.
- 邓慧爰(2010), 『限定范围副词演变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论文.
- 刘立成(2005), 『汉语唯一性范围副词的研究与应用』, 吉林大学硕士论文.
- 刘立成(2008), 『现代汉语限定性副词研究』, 吉林大学博士论文.
- 李宗江(1998), 『汉语常用词演变研究』, 汉语大词典出版社.
- 李嘉璇(2016), 『限制性范围副词“光”“仅”“单”“只”重叠式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论文.
- 李孟函(2015), 『现代汉语限定副词表主观量考察』, 河北大学硕士论文.
- 李盼盼(2022), 『“就X”类情状副词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论文.
- 马真(1981), 『简明实用汉语语法』, 北京大学出版社.
- 明琴(2007), 『试论现代汉语范围副词的分类及语义指向』, 四川师范大学硕士论文.
- 徐凤兰(2009), 『“就”和“才”的语法化』, 东北师范大学硕士论文.
- 吴涛涛(2019), 『责备义副词“总(是)”“老(是)”“就”“才”的比较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
- 奥莉娅(2014), 『现代汉语范围副词研究』, 上海师范大学博士论文.
- 王琪(2012), 『范围副词“单”“光”“仅”“只”的对比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论文.
- 尹百利(2007), 『现代汉语范围副词研究』, 西北师范大学硕士论文.
- 张谊生(2000), 『现代汉语副词研究』, 学林出版社.
- 张琨(2012), 『限定性范围副词“就”“才”“光”的历时演变研究』, 北京师范大学硕士论文.
- 曹舒婷(2020), 『限定副词“就”“才”“只”“光”的偏误研究』, 南昌大学硕士论文.
- 朱德熙(1982),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 崔诚恩(2002), 『现代汉语情态副词研究』, 中国社会科学院研究生院博士论文.
- 太田辰夫(1957)著, 蒋绍愚·徐吕华(1987)译, 『中国语历史文法』, 北京大学出版社.
- 何乐士(1979), 『文言虚词浅释』, 北京出版社.
- 许娟(2003), 『副词“就”的语法化历程及其语义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论文.

黄河(1990), 『常用副词的共现时的次序』, 见严家炎、袁行霈主编『缀玉集』, 北京大学出版社.

### 2.3. 영문 단행본 · 학위논문

Chao, Y. R.(1968), *A Grammar of Spoke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laifornia Press. [丁邦新 译(1982), 『中国话的文法』, 香港中文大学出版社.]

Croft William(2003), *Typology and Universals*, Cambridge University Press. 『语言共性和语言类型』, 北京大学出版社.

Foley, William & Robert D. Van Valin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석주(외) 역(2000),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주제, 초점, 담화 지시물의 심적 표상』, 서울. 월인.]

Li & Thompson(1981),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of Mandarin Chines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박정구(외) 역 (1989),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한울.]

Saeed(2015), *Semantics*(4th edition), Wiley blackwell.

### 3. 사전 · 인터넷 자료

吕叔湘(1980),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北京:商务印书馆.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2016),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商务印书馆.

北京语言大学汉语语料库, <http://bcc.blcu.edu.cn>.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 <http://ccl.pku.edu.cn>.



# 中文摘要

## 现代汉语限定副词“只/就/才”对比研究

首尔大学中文系

周茜茜

现代汉语限定副词“只”、“就”、“才”不仅使用频率高，而且语义多样，用法复杂。限定副词“只”、“就”、“才”在语义上存在明显差异，在功能上呈现不同面貌，但是《现代汉语词典》中的限定副词“就”的第一个义项和《现代汉语八百词》中的限定副词“就”、“才”的第一个义项都是相当于“只”，没有明确说明这三个限定副词的语义功能差异。而且《现代汉语词典》中的限定副词“只”和《现代汉语八百词》中的限定副词“就”都可以限定范围，但是“只”和“就”能否经常相互替代还是个疑问。《现代汉语词典》中的限定副词“才”和《现代汉语八百词》中的限定副词“只”、“就”、“才”都可以限定数量，但是这可能会引起在所有限定数量的句子中可以相同使用这三个限定副词的误解。此外，虽然限定副词“只”、“就”、“才”的对比研究很多，但是还需要更多语用上的对比分析，句法、语义上的对比分析也还需要完善。

为了进行精确的分析，本文对汉语母语者进行了语感问卷调查。在分析问卷调查结果时，根据实验者将例句判断为正确句的比例来判断例句的语法性。语感问卷调查结果分析的标记方法如下：

正确句比例	0% ~ 50% (不含50%)	50% ~ 75% (含50%，不含75%)	75% ~ 100% (含75%)
标记符号	*	?	○

本文由以下五章组成。第一章介绍了本文的研究对象、研究主题、研究方法等。第二章考察了限定副词“只”、“就”、“才”的非连用特征。具体考察了限定副词“只”、“就”、“才”在是否含有数量成分时修饰主语、谓语、状语的句法、语义、语用特征。第三章考察了限定副词“只”、“就”、“才”的连用特征。具体考察了限定副词

“只”、“就”、“才”在是否含有数量成分时修饰主语、谓语、状语连续、非连续连用特征，以及连用的限定副词的使用频率。第四章解释了限定副词“只”、“就”、“才”的特征。通过“只”、“就”、“才”的语义变化过程，具体解释了它们的句法特征；通过“只”、“就”、“才”的语义功能差异，具体解释了它们的语义、语用特征。第五章总结了本文的研究成果，如下：

一、限定副词“只”、“就”、“才”的句法特征。先行研究中限定副词“只”可以限定体词性成分，然而本文的语感问卷调查结果显示，限定副词“只”可以修饰谓词性谓语、状语，但是难以修饰主语，难以或无法修饰体词性谓语。先行研究中限定副词“就”可以修饰的成分是有限的，然而本文的语感问卷调查结果显示，限定副词“就”难以修饰表阶级义和顺序义的体词性谓语，但是可以修饰主语、谓语、状语。先行研究中限定副词“才”无法修饰主语，然而本文的语感问卷调查结果显示，限定副词“才”难以修饰含数量成分的状态语，难以或无法修饰不含数量成分的状态语、动词和含数量成分的同位语结构充当的谓语，无法修饰含数量成分的同位语结构充当的主语、不含数量成分的主语、谓语，但是可以修饰含数量成分的主语、谓语、表阶级义和顺序义的体词性谓语。

二、限定副词“只”、“就”、“才”的语义特征。限定副词“只”可以限定谓词性谓语、状语的数量、范围，但是难以限定主语的数量、范围，体词性谓语的范围、时间量，难以或无法限定体词性谓语的数量，无法限定体词性谓语的程度量。限定副词“就”可以限定主语、谓语、状语的数量、范围，但是难以限定体词性谓语的程度量、时间量。限定副词“才”可以限定主语、谓语的数量、体词性谓语的程度量、时间量，但是难以限定状态语的数量，难以或无法限定谓语、状语的范围，无法限定主语的范围。

三、限定副词“只”、“就”、“才”的语用特征。限定副词“只”没有预想数量，只是陈述客观事实，不显示说话者的主观评价、感情、心理状态。限定副词“就”蕴含说话者的主观评价、感情，比较委婉地表现了“实际数量比预想数量少一点”的说话者的主观心理状态。限定副词“才”非常直接地表现了“实际数量比预想数量少很多”、“实际程度比预想程度低很多”、“实际时间比预想时间早很多”的说话者的主观心理状态。

四、限定副词“只”、“就”、“才”的连用特征。“只”、“就”、“才”连续连用的限定副词的使用频率依次为“就只 > 就才 > 才就 > 才只 > 只就 > 只才”。限定副词“只”、“就”、“才”的前连用能力依次为“只 > 才 > 就”，限定副词“只”、“就”、“才”的后连用能力依次为“就 > 才 > 只”。而且“只”、“就”、“才”非连续连用的限定副词的使用频率

依次为“就<sub>1</sub>只<sub>2</sub>>就<sub>1</sub>才<sub>2</sub>>只<sub>1</sub>只<sub>2</sub>/只<sub>1</sub>就<sub>2</sub>>就<sub>1</sub>就<sub>2</sub>>只<sub>1</sub>才<sub>2</sub>”。“只”作为非连续连用的第一个限定副词时，第二个限定副词的使用频率依次为“只/就>才”；“就”作为非连续连用的第一个限定副词时，第二个限定副词的使用频率依次为“只>才>就”。

五、限定副词“只”、“就”、“才”的语义变化过程。“只”经过了“语气词—特殊副词—普通副词”的语义变化过程，“只”的实化程度增强。这是先行研究中限定副词“只”可以修饰体词性成分，但是本文的语感调查中限定副词“只”变得难以修饰体词性成分的原因。“就”经过了从动词到限定副词，从实词到虚词的语义变化过程，“就”的虚化程度增强，“就”的语义推测以后会更加虚化。这是先行研究中限定副词“就”可以修饰的成分有限，但是本文的语感调查中限定副词“就”可以修饰的成分增多的原因。“才”经过了从名词到限定副词，从实词到虚词的语义变化过程，“才”的语义从“才能”变为“稀少”，从而产生了“限定数量”的语义。这是限定副词“才”可以修饰的成分总是和数量成分有关的原因。

六、限定副词“只”、“就”、“才”的语义功能差异。限定副词“只”的语义功能是[+唯一性]、[+限量性]、[-情态性]，但是修饰体词性成分时，难以具有唯一性和限量性。无论修饰什么成分，限定副词“就”的语义功能都是[+唯一性]、[+限量性]、[+情态性]。限定副词“才”的语义功能是[-唯一性]、[+限量性]、[-情态性<sub>1</sub>]、[+情态性<sub>2</sub>]，但是修饰状语时，难以具有限量性和情态性。而且限定副词“就”的情态性比限定副词“才”的情态性更加丰富。限定副词“就”蕴含说话者的主观肯定或否定评价、“不满”、“同情”、“着急”等主观感情，表现预想数量有“终点”，对实际数量感到“满足”的说话者的主观心理状态，显示“委屈”、“妥协”、“确信”的主观态度。但限定副词“才”表现预想数量有“起点”，对实际数量感到“不足”的说话者的主观心理状态，显示“不满”、“埋怨”的主观态度。

关键词: 限定副词, 只, 就, 才, 连用, 语义功能, 唯一性, 限量性, 情态性

学 号: 2019-23708